

해외 주요 방한 관광시장별 변화 특성과 전망

금기용

Characteristics and Prospects of South Korea's Inbound Tourism Markets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해외 주요
방한 관광시장별
변화 특성과 전망**

연구책임

금기용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
 글로벌관광연구센터장

연구진

소슬기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방한 외래관광객 앞으로도 지속증가 전망 아시아시장 타깃 국가별 맞춤 전략 필요

아시아 관광시장 성장세 뚜렷... 동아시아·동남아시아 급성장세 시현

2010년 이후 연평균 4.7%씩 빠르게 성장해온 세계 입국자 수는 2013년 11억 명을 초과하였다. 이처럼 관광시장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부문 중 하나인데 특히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입국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해외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목적지가 유럽인 것에는 변함이 없으나,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찾는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유럽형 관광객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표 1] 세계 및 주요지역 입국자 수 추이

(단위 : 백만 명, %)

구분	입국자 수					연평균 증가율			
	1995	2000	2005	2010	2013	1990s	2000s	2010s	'95~'13
세계	550	706	837	980	1,123	4.4	3.0	4.7	4.0
유럽	284	370	447	486	546	4.8	2.7	3.9	3.7
동아시아	34	58	87	111	127	11.2	5.9	4.4	7.6
동남아시아	32	41	55	80	105	3.1	6.3	9.6	6.8

해외여행객 중 상당수는 이동 비용 및 시간이 적게 드는 인근 국가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찾는 여행객 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중국 및 동남아시아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영해나 영토를 맞대고 있는 인근 국가 사이에는 정치 외교적 마찰이 있는 경우가 다반사지만 이 점이 관광객의 발걸음을 저지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한 관광객 2014년 1,400만 명 돌파 '88올림픽 후 최대 증가율'

방한 외래객은 2014년 1천4백만 명을 초과하며 전년 대비 17% 증가하였는데, 이는 88올림픽 이후 사상 최대의 증가율이었다. 방한 관광시장이 이 같은 활황을 이어가는 가운데 그 속을 면밀히 살펴보면 개별 시장별로 긍정적, 부정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인 관광객은 2013년부터 대폭 감소한 반면 중국인 관광객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관광객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관광시장별 방한 외래객 추이는 변화하는 데 비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광시장 분석 연구가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주요 시장별로 방한 관광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고 그 시사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또 관광시장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향후 방한 외래객을 전망해볼 필요가 있다.

방한 관광시장 규모 10대 국가 중 8개국이 동아시아에 위치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객들이 방한 외래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방한 외래객은 전체 외래객의 70%에 육박한다. 또 주요 해외 방한시장인 10개 국가 중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8개 국가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표 2] 주요 방한 시장 외래객 수

(단위 : 천 명, %)

		외래객 수		연평균 증가율				외래객 수		연평균 증가율	
순위	국가	2014	'00~'14		국가	2014	'00~'14		국가	2014	'00~'14
1	중국	6,127	20.6%	6	태국	467	12.7%				
2	일본	2,280	-0.6%	7	필리핀	435	4.1%				
3	미국	770	3.8%	8	말레이시아	245	10.6%				
4	대만	644	12.3%	9	러시아	214	2.3%				
5	홍콩	558	7.6%	10	인도네시아	208	9.4%				

목적별로 살펴보면 관광 목적 방한 외래객이 단연코 가장 많았다. 특히 일본을 제외한 9개 국가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외래객의 수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 관광객 외에도 승무원을 포함한 기타 목적 방한 외래객이 함께 증가하였고, 특히 유학연수 목적 방한 외래객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가 최근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표 3] 목적별 방한 외래객 추이

(단위 : 천 명, %)

구분	목적별 방한 외래객 수			연평균 증가율		
	2005	2010	2014	'05~'09	'10~'14	'05~'14
관광	4,304	6,293	10,778	6.9	14.4	10.7
상용	258	269	259	0.8	-0.9	0.1
공용	38	30	40	-3.4	6.9	0.4
유학연수	35	135	157	36.2	3.9	18.1
기타	1,033	1,627	2,432	8.5	10.6	10.0

방한 관광시장의 주요 결정요인은 소득...비용은 제한적인 영향

방한 수요가 가장 큰 중국, 일본, 미국, 대만, 홍콩의 방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소득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1인당 실질 GDP, 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환율을 사용하였으며 SARS를 더미변수로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다섯 개 국가의 방한 수요는 모두 소득의 영향을 받았으며, 방한 일본인과 미국인의 경우 환율과 SARS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 주요 방한 시장 회귀분석 결과

	중국	일본	미국	대만	홍콩
1인당 실질 GDP	3.58***	1.998***	5.541***	3.044***	7.797***
대(對)원화 환율	-1.146	0.597***	0.98***	-5.99	1.283
SARS	주) 참조	-0.248**	-0.157**	0.0452	주) 참조

* p<0.10 ** p<0.05 *** p<0.01

주) 중국과 홍콩은 각각 2008년과 2007년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SARS는 고려대상에서 제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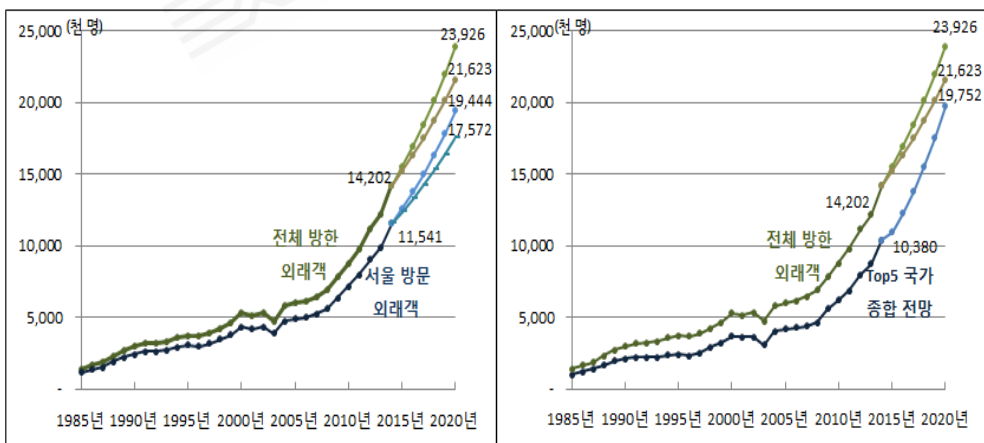
방한 외래객 2018년쯤 2,000만 명 예상... 서울은 2020년경 돌파

향후 관광수요 전망은 곡선적합 기법을 이용하여 방한 수요를 전망하였다. 곡선적합 기법에 필요한 추세함수는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구했다. 그 결과 방한 일본인은 선형함수 형태를, 전체 외래객과 중국, 미국, 홍콩, 대만 국적 외래객, 5개 주요 국적 외래객의 합은 지수함수 형태를 보였다.

[표 5] 방한 외래객 추세 함수

국적	추세 함수	
전체 방한 외래객	낙관적 전망	$f(x) = 3607643e^{0.09x} + 3$
	보수적 전망	$f(x) = 1521886e^{0.07x} + 3$
주요 5개 국적 외래객	$f(x) = 155e^{0.13x} + 1606111$	

향후 외래관광객 전망치를 추세에 맞추어 분석한 결과 연평균 증가율 7~9% 정도로 최근 증가율 보다는 다소 낮은 보수적 관점으로 추정되었다. 그 결과 2016년 방한 관광객은 16.4백만~17백만 명가량 될 것이고, 2018년에 18.8백만~20.2백만 명으로 2천만 관광객 시대가 도래하고, 2020년에는 21.6백만~24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었다. 만일 최근처럼 연 12~15%의 높은 성장률을 계속 보인다면 이 전망치들은 1년가량 당겨질 수 있다.



[그림 1] 전체 방한 외래객, 서울 방문 외래객, 주요 5개 국적 방한 외래객 전망

서울 방문 외래객은 2012~2014년 기간 평균 서울 방문율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추정된 결과 2016년에는 12.3백만~13.8백만 명가량으로 추정되었고, 2020년에 이르러 20백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또한 두 자리 증가율이 지속된다면 1년간가량 당겨질 수 있다.

시장별로는 방한 중국인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방한 일본인의 경우 느리지만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 방한 외래객 중 두 번째로 큰 비중을 계속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우에 따라선 방한 대만인이 방한 미국인의 수를 앞지를 가능성도 엿보인다. 방한 홍콩인은 연평균 6.9~26%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따라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르게 증가하는 국적의 외래객이 될 수도 있지만, 전망치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단정 짓기는 어렵다.

[표 6] 방한 외래객 전망

(단위 : 천 명, %)

	2016	2018	2020	연평균 증가율
총 방한 외래객	16,353 ~ 16,962	18,804 ~ 20,145	21,623 ~ 23,926	9.0 ~ 7.2
서울 방문 외래객	13,289 ~ 13,785	15,281 ~ 16,371	17,572 ~ 19,444	9.0 ~ 7.2
주요 5개 국적 외래객	12,293	15,531	19,752	12.6
방한 중국인	8,847 ~ 9,739	12,183 ~ 16,611	17,656 ~ 28,334	18.9 ~ 30.6
방한 일본인	2,684 ~ 3,257	2,757 ~ 3,409	2,856 ~ 3,562	1.6 ~ 2.3
방한 미국인	843 ~ 1,093	928 ~ 1,316	1,024 ~ 1,547	5.0 ~ 9.1
방한 대만인	755 ~ 776	913 ~ 981	1,104 ~ 1,272	10.0 ~ 13.1
방한 홍콩인	639 ~ 764	730 ~ 1,151	835 ~ 1,943	6.9 ~ 26.3

중국, 일본 외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목적의 외래객 유치해야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개도국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 아니라 빠른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미 관광시장이 발달한 선진국 보다 해외관광 수요가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방한 수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상용, 유학연수, 공용, 기타 목적 방한이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그러한 목적별 방한 추이와 특성을 고려한 외래객 유치 노력도 필요하다.

한편 현재 방한 관광시장은 중국에, 과거에는 일본에 크게 의지하면서, 큰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국가에서 방한 외래객을 유치해야 한다. 그런데 같은 중화권이라 하더라도 대만과 중국의 문화가 다르고, ASEAN 회원국이라 하더라도 제각각 고유의 정치, 경제, 문화 체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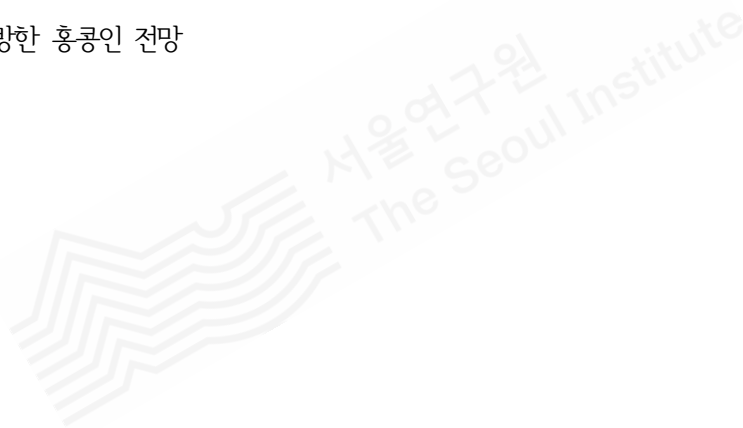
01 연구의 개요	2
1_연구의 배경과 목적	2
2_연구의 방법과 흐름	3
02 세계 관광시장 변화 분석	6
1_세계 관광시장 동향	6
2_해외 지역별 관광시장 동향 및 변화의 특징	7
3_해외 주요 국가별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시장 변화 분석	12
03 방한 관광시장별 특성 및 향후 전망	46
1_방한 관광시장별 방문 추이	46
2_주요 관광시장별 방한 관광수요 변화의 특성	60
3_주요 방한 관광시장 변화의 원인과 전망	72
4_방한 관광시장의 향후 전망	81
04 결론 및 정책적 제언	90
1_분석결과 요약	90
2_방한 관광시장 변화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의 시사점	93
3_정책적 제언	95
참고문헌	97
Abstract	98

표

[표 2-1] 세계 관광객 수 추이	6
[표 2-2] 지역별 관광객 수 추이	9
[표 2-3] 중국 인바운드 관광객 국적 순위	13
[표 2-4]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객 목적지 순위	13
[표 2-5] 일본 인바운드 관광객 국적 순위	15
[표 2-6] 일본 아웃바운드 관광객 목적지 순위	15
[표 2-7] 대만 인바운드 관광객 국적 순위	17
[표 2-8] 대만 아웃바운드 관광객 목적지 순위	17
[표 2-9] 홍콩 인바운드 관광객 국적 순위	19
[표 2-10] 홍콩 아웃바운드 관광객 목적지 순위	19
[표 2-11] 태국 인바운드 관광객 국적 순위	21
[표 2-12] 태국 아웃바운드 관광객 목적지 순위	21
[표 2-13] 필리핀 인바운드 관광객 국적 순위	23
[표 2-14] 필리핀 아웃바운드 관광객 목적지 순위	23
[표 2-15] 말레이시아 인바운드 관광객 국적 순위	25
[표 2-16] 말레이시아 아웃바운드 관광객 목적지 순위	25
[표 2-17] 인도네시아 인바운드 관광객 국적 순위	27
[표 2-18] 인도네시아 아웃바운드 관광객 목적지 순위	27
[표 2-19] 싱가포르 인바운드 관광객 국적 순위	29
[표 2-20] 싱가포르 아웃바운드 관광객 목적지 순위	29

[표 2-21] 미국 인바운드 관광객 국적 순위	31
[표 2-22] 미국 아웃바운드 관광객 목적지 순위	31
[표 2-23] 캐나다 인바운드 관광객 국적 순위	33
[표 2-24] 캐나다 아웃바운드 관광객 목적지 순위	33
[표 2-25] 러시아 인바운드 관광객 국적 순위	35
[표 2-26] 러시아 아웃바운드 관광객 목적지 순위	35
[표 2-27] 영국 인바운드 관광객 국적 순위	37
[표 2-28] 영국 아웃바운드 관광객 목적지 순위	37
[표 2-29] 독일 인바운드 관광객 국적 순위	39
[표 2-30] 독일 아웃바운드 관광객 목적지 순위	39
[표 2-31] 프랑스 인바운드 관광객 국적 순위	41
[표 2-32] 프랑스 아웃바운드 관광객 목적지 순위	41
[표 2-33] 호주 인바운드 관광객 국적 순위	43
[표 2-34] 호주 아웃바운드 관광객 목적지 순위	43
[표 3-1] 전체 방한 외래객 추이	46
[표 3-2] 지역별 방한 외래객 추이	47
[표 3-3] 동아시아 지역 방한 외래객 추이	49
[표 3-4] 동남아시아 지역 방한 외래객 추이	51
[표 3-5] 북미 지역 방한 외래객 추이	52
[표 3-6] 유럽 지역 방한 외래객 추이	54
[표 3-7] 대양주 지역 방한 외래객 추이	55
[표 3-8] 중앙아시아 지역 방한 외래객 추이	56
[표 3-9] 중남미 지역 방한 외래객 추이	57
[표 3-10] 중동 방한 외래객 추이	58
[표 3-11] 아프리카 방한 외래객 추이	59

[표 3-12] 방한 외래객 국적 순위	60
[표 3-13] 목적별 방한 외래객 추이	61
[표 3-14] 해외 주요시장별 2014년 환율제도	74
[표 3-15] 로그 변환한 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	80
[표 3-16] 방한 외래객 추세함수	82
[표 3-17] 전체 방한 외래객, 서울 방문 외래객, 주요 5개 국적 방한 외래객 전망	83
[표 3-18] 방한 중국인 전망	84
[표 3-19] 방한 일본인 전망	85
[표 3-20] 방한 미국인 전망	85
[표 3-21] 방한 대만인 전망	86
[표 3-22] 방한 홍콩인 전망	87



그림

[그림 1-1] 연구 흐름도	3
[그림 2-1] 세계 관광객 수 추이	6
[그림 2-2] 지역별 관광객 수 추이	9
[그림 2-3] 지역별 관광객 비중	10
[그림 3-1] 전체 방한 외래객 추이	46
[그림 3-2] 지역별 방한 외래객 추이	48
[그림 3-3] 동아시아 방한 외래객 추이	50
[그림 3-4] 동남아시아 방한 외래객 추이	51
[그림 3-5] 북미 방한 외래객 추이	52
[그림 3-6] 유럽 방한 외래객 추이	53
[그림 3-7] 대양주 방한 외래객 추이	55
[그림 3-8] 중앙아시아 방한 외래객 추이	56
[그림 3-9] 중남미 방한 외래객 추이	57
[그림 3-10] 중동 방한 외래객 추이	58
[그림 3-11] 아프리카 방한 외래객 추이	59
[그림 3-12] 목적별 방한 외래객 추이	62
[그림 3-13] 세계 GDP 추이	62
[그림 3-14] 동아시아의 목적별 방한 외래객 추이	63
[그림 3-15] 동남아시아의 목적별 방한 외래객 추이	63
[그림 3-16] 북미의 목적별 방한 외래객 추이	64

[그림 3-17] 유럽의 목적별 방한 외래객 추이	64
[그림 3-18] 대양주의 목적별 방한 외래객 추이	65
[그림 3-19] 중앙아시아의 목적별 방한 외래객 추이	65
[그림 3-20] 중남미의 목적별 방한 외래객 추이	66
[그림 3-21] 중동의 목적별 방한 외래객 추이	66
[그림 3-22] 중국의 목적별 방한 외래객 추이	67
[그림 3-23] 일본의 목적별 방한 외래객 추이	67
[그림 3-24] 미국의 목적별 방한 외래객 추이	68
[그림 3-25] 대만의 목적별 방한 외래객 추이	68
[그림 3-26] 홍콩의 목적별 방한 외래객 추이	69
[그림 3-27] 태국의 목적별 방한 외래객 추이	69
[그림 3-28] 필리핀의 목적별 방한 외래객 추이	70
[그림 3-29] 말레이시아의 목적별 방한 외래객 추이	70
[그림 3-30] 러시아의 목적별 방한 외래객 추이	71
[그림 3-31] 인도네시아의 목적별 방한 외래객 추이	71
[그림 3-32] KATA 회원사 외래객 유치 비중	72
[그림 3-33] 해외 주요시장별 환율 변동과 방한 외래객 흐름	75
[그림 3-34] 해외 주요시장별 방한 외래객 및 1인당 실질 GDP	77
[그림 3-35] 1인당 실질 GDP 통제 시 방한 미국인	81
[그림 3-36] 전체 방한 외래객, 서울 방문 외래객, 주요 5개 국적 방한 외래객 전망	83
[그림 3-37] 방한 중국인 전망	84
[그림 3-38] 방한 일본인 전망	85
[그림 3-39] 방한 미국인 전망	86
[그림 3-40] 방한 대만인 전망	86
[그림 3-41] 방한 홍콩인 전망	87

01

연구의 개요

1_연구의 배경과 목적

2_연구의 방법과 흐름

01 | 연구의 개요

1_연구의 배경과 목적

1) 방한 관광시장별 변화에 대한 중장기 종합 분석 연구 부재

방한 외래 관광객은 2013년 12백만 명을 돌파하고 2014년 14.2백만 명을 초과하여 전년 대비 17%라는, 88올림픽 이후 사상 최대의 상승률을 보였다. 방한 관광시장이 이 같은 활황을 계속 이어가는 가운데 개별 관광시장별로는 각각 긍정적, 부정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과거 최대 방한 시장이었던 일본 시장이 2012년 이후 대폭 축소된 반면,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수는 2010년부터 연평균 34%씩 빠르게 증가하였고, 이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 중국은 2013년에 최대 방한 관광시장으로 등극하였다. 그 결과 2014년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613만 명, 일본인 관광객은 228만 명으로 그 차이가 심화되었다. 또 동남아 시장은 중국과 일본에 비하면 아직은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최근 들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관광시장별 추이가 변화하는 데 비해, 변화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광시장 분석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2) 방한 관광시장별 정보 및 변화의 시사점 파악이 목적

방한 관광시장은 과거에는 일본시장에, 최근에는 중국시장에 크게 의존함에 따라 미래의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근래 일본에서 방한 관광 수요가 감소한 원인을 찾고, 중국에서 방한 관광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이 둘을 제외한 타 국가의 방한 수요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해외 방한 관광시장의 중장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세계 및 지역별 관광시장 추이 변화, 해외 주요 방한 관광시장의 아웃바운드 및 인바운드 추이 변화, 방한 관광수요 변화의 특성 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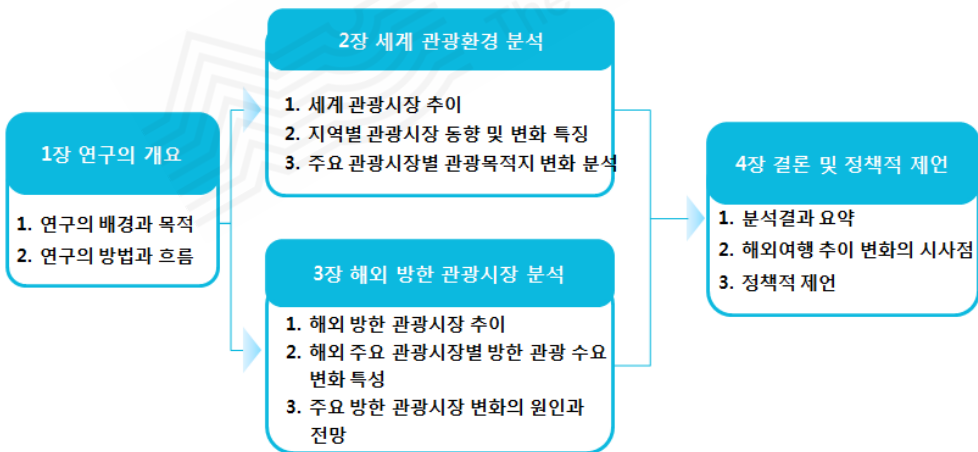
2_연구의 방법과 흐름

1) 연구의 방법

세계 관광시장, 지역별 관광시장, 주요국별 관광시장, 방한 관광시장 각각의 추이를 분석하고 방한 관광시장의 경우 다시 지역, 국적,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방한 관광시장이 변화하는 원인을 찾고 미래 추이를 전망하기 위해 회귀분석과 곡선적합(curve fitting) 기법을 이용하였다. 분석에 쓰인 자료는 관광 지식 정보 시스템,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관광기구(UNWTO), 세계은행(WB), 홍콩-상하이 은행(HSBC), Trading Economics, 해당 국가의 통계청 및 관광청에서 입수하였으며, 자료의 속성을 변형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연구에 맞게 정리 및 가공하여 사용하였다.

2) 연구의 흐름

국제적 관광시장 추이를 분석한 뒤 방한 관광시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한 관광시장 변화의 시사점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그림 1-1] 연구 흐름도

02

세계 관광시장 변화 분석

- 1_ 세계 관광시장 동향
- 2_ 해외 지역별 관광시장 동향 및 변화의 특징
- 3_ 해외 주요 국가별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시장 변화 분석

02. 세계 관광시장 변화 분석

1_세계 관광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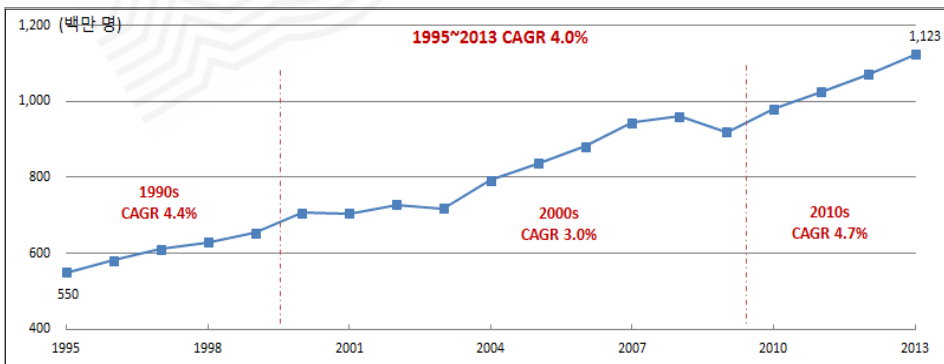
1) 세계 입국자 수는 지난 20여 년 동안 빠르게 증가

지난 20년간 세계 관광시장은 지속적인 팽창을 거듭하여, 현재 가장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부문 중 하나가 되었다. 세계 입국자 수는 1995년 이후 매해 평균 4%씩 꾸준히 성장하여 2011년에 10억 명을 넘어섰고, 2013년에는 11억 명을 초과했다. 특히 1995년에서 1999년까지 4.4%였던 연평균 증가율이 2000년부터 2009년까지는 3.0%로 떨어졌으나 2010년 이후 4.7%로 올라 최근 들어 더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2-1] 세계 관광객 수 추이

(단위 : 백만 명, %)

세계 관광객(arrival) 수					연평균 증가율			
1995	2000	2005	2010	2013	1990s	2000s	2010s	'95~'13
550	706	837	980	1,123	4.4	3.0	4.7	4.0



자료 : World Bank

[그림 2-1] 세계 관광객 수 추이

2) 관광시장은 탄력적인 경제부문

1995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동안 세계 입국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했던 적은 단 세 차례뿐이었다. 2001년에는 9·11테러와 그 이후 찾아온 세계적인 경기 침체 때문에, 2003년에는 SARS(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및 이라크전과 부진한 경제 상황 때문에, 2009년에는 전 세계 214개국에서 유행한 신종 인플루엔자와 '08금융위기의 여파 때문에 세계 입국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바 있다. 그러나 3개년 모두 바로 이듬해 본래 추이를 회복하였는데, 이로 미루어 볼 때 관광시장이 탄력적이고 외부 충격의 여파가 길게 지속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_ 해외 지역별 관광시장 동향 및 변화의 특징

1) 지역별 외래 관광객 추이 변화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외래 관광객 추이는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먼저 2013년 외래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은 3개 지역인 유럽,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의 추이를 살펴보면, 유럽은 9·11테러와 '08금융위기가 있던 2001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외래 관광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3.7%였다. 한편 동아시아의 경우 2003년에는 SARS, 2008년과 2009년에는 '08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외래 관광객이 감소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7.6%씩 꾸준히 증가하였다. 또 동남아시아는 1997년과 1998년에 아시아 금융위기로, 2003년에 SARS로 외래 관광객이 감소하였으나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 20여 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은 6.8%를 기록하였다.

지난 20여 년 동안 관광시장의 성장이 더뎠던 지역으로는 북미와 중남미를 들 수 있다. 9·11 테러의 영향으로 2001년부터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던 북미행 외래 관광객 수는 2004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7년에 들어서야 외래객 수 74백만 명으로 겨우 2000년 수준을 넘어서었다. 그러나 '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에 감소했다가 2010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중남미 역시 2001년부터 외래 관광객이 감소하였으나 2003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200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소폭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1995년부터 2013년까지의 전체적인 연평균 증가율은 북미가 2%, 중남미가 3%로

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미주 대륙과는 달리 중동과 아프리카를 찾는 외래 관광객 수는 1995년부터 2009년까지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2010년 말부터는 지역 정세가 불안하여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편 대양주를 찾는 외래 관광객은 1990년대에는 연평균 7.4%씩 증가하였으나 이후 증가율이 2% 이하로 하락하면서 느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앙아시아를 찾는 외래 관광객은 연평균 증가율 21%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양주와 중앙아시아 모두 인바운드 관광객의 수 자체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2) 중동, 아프리카를 제외한 지역은 2010년부터 계속 외래 관광객 증가

2010년 이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외래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0년 유럽을 찾은 외래 관광객은 486백만 명으로 2008년 수준인 497백만 명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2009년 471백만 명까지 감소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전년 대비 3% 증가라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2011년에는 516백만 명까지 증가하여 본래의 추이를 회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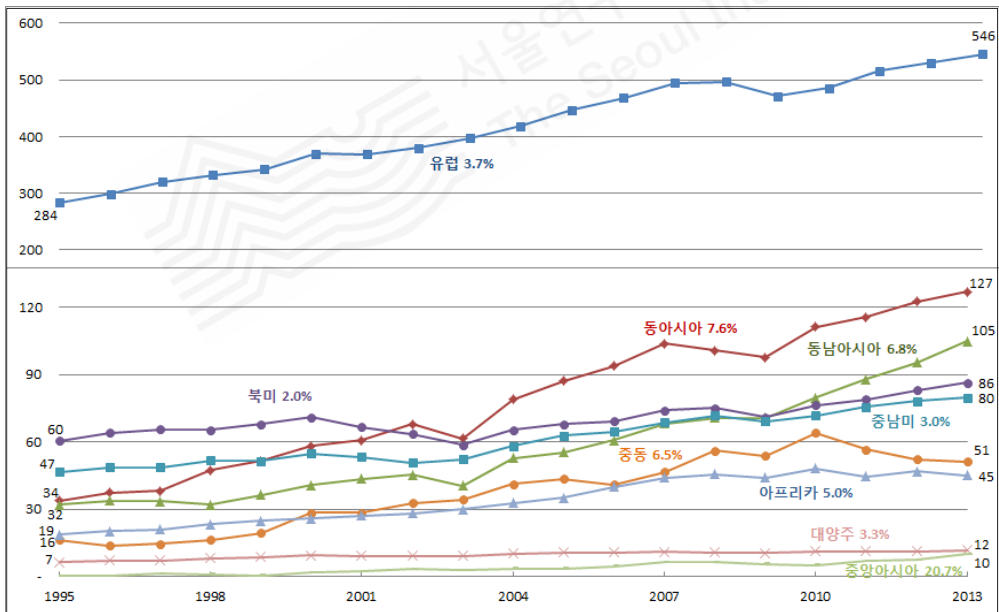
한편 '08금융위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2008년과 2009년에 2년 연속으로 외래 관광객 수가 98만 명까지 감소했던 동아시아는 2010년에 111백만 명으로 회복한 뒤 매년 평균 4.4%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동남아시아를 찾는 외래 관광객 수는 '08금융위기 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증가하여 2010년 북미의 외래 관광객 수를 초과하였으며 이후로도 매년 평균 9.6%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증가하고 있다.

그 이외의 지역들 역시 2010년 이후 매년 평균 북미 4.2%, 중남미 3.5%, 대양주 1.8%, 중앙아시아 26%씩 증가하였으나 중동과 아프리카는 각각 7.1%, 2.1%씩 감소하였다. 이들 지역을 찾는 외국인이 감소하는 이유로는 정치적 불안정성과 무력충돌을 꼽을 수 있다. '아랍의 봄'이라 불리는 반정부 운동이 2010년 12월 튀니지에서 시작되어 중동과 북아프리카로 번졌고 이들 지역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크고 작은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아프리카를 찾는 외래 관광객의 경우 2012년 잠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3년 다시 감소하였다.

[표 2-2] 지역별 관광객 수 추이

(단위 : 백만 명, %)

지역별 관광객 수					연평균 증가율				
지역	1995	2000	2005	2010	2013	1990s	2000s	2010s	'95~'13
유럽	284	370	447	486	546	4.8	2.7	3.9	3.7
동아시아	34	58	87	111	127	11.2	5.9	4.4	7.6
동남아시아	32	41	55	80	105	3.1	6.3	9.6	6.8
북미	60	71	68	76	86	3.0	-0.0	4.2	2.0
중남미	47	55	63	72	80	2.6	2.6	3.5	3.0
중동	16	29	44	64	51	4.4	7.3	-7.1	6.5
아프리카	19	26	35	48	45	7.4	6.0	-2.1	5.0
대양주	7	10	11	11	12	7.3	1.2	1.8	3.3
중앙아시아	0	2	4	5	10	11.5	13.6	25.2	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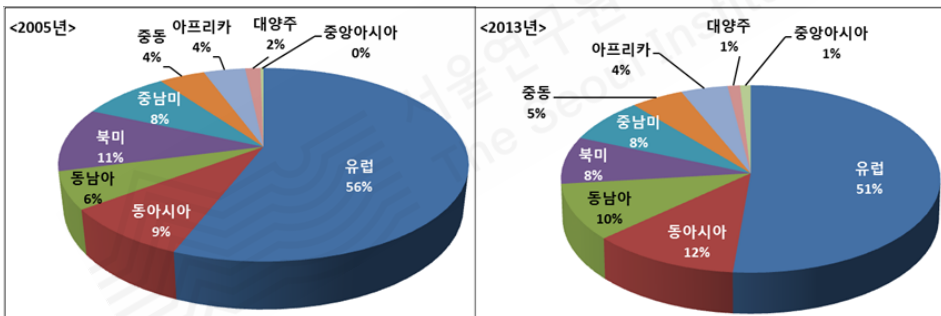
자료 : World Bank

[그림 2-2] 지역별 관광객 수 추이

3) 부동의 1위 유럽과 뒤를 쫓는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2013년 지역별 외래 관광객은 유럽이 5.5억 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동아시아가 1.3억 명, 동남아시아가 1억 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비율로 따지면 유럽 51%, 동아시아 12%, 동남아시아 10%이다. 여전히 유럽이 절반을 넘게 차지하며 부동의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10여 년 전인 2005년과 비교해보면 지역별 점유율 간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05년 지역별 외래 관광객 점유율은 유럽 56%, 북미 11%, 동아시아 9%, 중남미 8%, 동남아시아 6%였다. 당시에 비교해 보면 2013년 유럽의 점유율은 5%p 하락하였고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점유율은 각각 3%p, 4%p 상승한 셈이다. 인바운드 관광시장에서 유럽의 연평균 성장률보다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연평균 성장률이 더 높은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유럽의 비중은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3] 지역별 관광객 비중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인바운드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한 원인은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중국의 아웃바운드 시장은 날로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데, 소비 측면에서는 이미 2012년에 1,020억 달러를 지출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소스마켓(source market)으로 등극하였고, 2014년에는 중국인 해외여행객이 1억 명을 넘어섰다. 2014년 중국인 해외여행객 중 80%가량은 아시아 국가를 방문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문화적 차이가 작고, 여행 경비가 적게 들며, 이동 시간이 짧아 단기방문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그러나 빠르게 증가하는 해외관광객 숫자에도 불구하고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중국인은 전체 인구의 5%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대부분이 홍콩과 마카오를 방문하고 있는 실정이며 아직도 많은 수의 잠재 해외여행객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투자회사인 CLSA는 2020년 해외여행을 경험한 중국인의 수는 2014년에 두 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고, 2013년 중국 여유국이 발행한 <국민 관광레저 지침(The Outline for National Tourism and Leisure)> 역시 중국의 아웃바운드 관광 촉진을 예고하였다.

한편 동남아시아 개도국들에서는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닐슨 컴퍼니가 발행한 ASEAN 2015에 따르면 2005년 구매력을 기준으로 하루 가처분소득이 16~100달러인 중산층은 2012년에는 190백만 명이었으며, 2020년에 400백만 명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동남아에서 해외여행 경비를 부담할 수 있는 인구 역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아시아 개도국의 여행수요 증가로 인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인바운드 시장은 계속 팽창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에도 동남아시아의 인바운드 시장이 더 빠르게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외래 관광객의 연평균 증가율은 동아시아가 7.6%로 6.8%인 동남아시아보다 높지만, 동아시아의 증가세는 둔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동아시아행 관광객은 연평균 증가율이 '90년대에 11%, '00년대에 5.9%, '10년대에 4.4%로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같은 기간 동안 동남아시아행 관광객의 연평균 증가율은 3.1%, 6.3%, 9.6%로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_해외 주요 국가별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시장 변화 분석

1) 동아시아국가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시장 변화

(1) 중화권을 제외한 중국 방문자 국적 1위는 한국, 중국인 방문국 1위도 한국

2004년 총 109백만 명의 외래 관광객이 중국을 방문하였고, 2013년에는 129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중국의 인바운드 관광객 수는 매년 평균 1.9%씩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3년 중국을 찾은 외래 관광객 중 77백만 명은 홍콩, 21백만 명은 마카오 출신으로 방중 관광객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과 역사적으로 특수한 관계에 놓인 홍콩, 마카오, 대만을 제외하고 중국을 가장 많이 방문한 관광객의 국적은 한국으로 2013년 4백만 명의 한국인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한편 중국의 아웃바운드 관광객은 2007년 41백만 명에서 연평균 16%씩 증가하여 2013년에는 98백만 명에 이르렀다. 특히 2010년부터는 연평균 20%씩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국가는 홍콩으로 2013년 40백만 명이 홍콩을 방문하였고, 두 번째는 마카오로 25백만 명이 방문하여 전체 아웃바운드 관광객의 66%가 홍콩과 마카오를 찾았다. 다음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한 국가는 한국인데 2007년 방한 중국인 관광객은 1.3백만 명이었으나 6년 동안 세 배 가까이 증가하여 2013년에는 4.3백만 명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그 외에도 2008년 7월 중국인의 대만 관광이 허용된 이래 2013년까지 대만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연평균 31%씩 증가하였으며, 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역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58%씩 증가하였다. 그러나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해 2011년 크게 감소하였다가 2012년 회복하는 듯하였으나 2013년 다시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2.3%씩 감소한 꼴이 되었다.

2013년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의 수는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의 수보다 크다. 그러나 방중 한국인의 수는 한국의 전체 아웃바운드 관광객 14.8백만 명¹⁾ 중 27%를 차지했지만, 방한 중국인의 수는 중국의 전체 아웃바운드 관광객의 4.4%에 그쳤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연평균 증가율은 29%로 전체 관광객

¹⁾ 한국관광공사, 2014, 「숫자로 보는 한국 관광」.

증가 추세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더 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표 2-3] 중국 인바운드 관광객 국적 순위

(단위 : 천 명, %)

순위	국가	인바운드 관광객 수(천 명)				연평균 증가율(%)		
		2004	2007	2010	2013	'04~'09	'10~'13	'04~'13
	총계	109,038	131,873	133,762	129,078	3.0	-1.2	1.9
1	홍콩	66,539	77,949	79,322	76,885	3.1	-1.0	1.6
2	마카오	21,882	23,187	23,173	20,740	0.8	-3.6	-0.6
3	대만	3,685	4,628	5,141	5,163	4.0	0.1	3.8
4	한국	2,845	4,777	4,076	3,969	2.4	-0.9	3.8
5	일본	3,334	3,977	3,731	2,878	-0.1	-8.3	-1.6

자료 : UNWTO

[표 2-4]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객 목적지 순위

(단위 : 천 명, %)

순위	국가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			연평균 증가율		
		2007	2010	2013	'07~'09	'10~'13	'07~'13
	총계	40,954	57,387	98,185	7.9	19.6	15.7
1	홍콩	16,137	23,099	40,303	7.6	20.4	16.5
2	마카오	12,770	16,112	25,239	8.8	16.1	12.0
3	한국	1,313	1,969	4,253	6.0	29.3	21.6
4	태국	717	1,015	4,010	-6.9	58.1	33.2
5	대만**	-	1,662	2,919	-	20.7	31.2
7	일본	1,458	1,969	1,835	3.2	-2.3	3.9

* 최초 출국 목적지만 집계한 수치로, 도착지에서 집계한 수치와는 차이가 있음

** 중국 관광객의 대만 여행이 2008년 7월부터 허가되었기 때문에 2009~2013 연평균 성장률 계산

자료 : 중국 국가旅游局

(2) 일본 방문자 국적 1위는 한국, 일본인 방문국 1위는 미국

2004년 총 6.1백만 명의 외래 관광객이 일본을 방문하였고, 2013년에는 10.4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일본의 인바운드 관광객 수는 연평균 6%씩 증가하였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일본 인바운드 관광객의 연평균 증가율이 2%로 낮았으나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연평균 6.4%씩 빠르게 증가하였다. 2013년 일본을 가장 많이 방문한 관광객의 국적은 한국으로 2.5백만 명의 한국인이 일본을 방문하였다. 한국인 다음으로는 대만, 중국, 미국, 홍콩 관광객 순으로 일본을 많이 방문하였다. 각 국적별 증가세를 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의 연평균 증가율은 0.2% 정도였으나 대만과 홍콩은 각각 20%, 14%로 두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어 한국인 관광객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아웃바운드 관광객은 2000년 17.8백만 명에서 연평균 0.2%씩 감소하여 2013년에는 17.5백만 명에 이르며 정체된 시장의 모습을 보였다. 특히 2000년에서 2009년까지 일본인 해외여행객 수는 연평균 1.6%씩 감소했으며, 그나마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1.6%씩 증가하였다. 2013년 일본인이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는 미국이었고, 그다음은 중국, 한국, 태국, 대만의 순으로 많이 방문하였다. 그러나 전체 해외여행객 중 미국행 여행객이 차지하던 비중이 28%이던 2000년과는 달리 2013년에는 방미 관광객이 21%로 감소하였고, 대신 대만행 관광객의 비중이 5.1%에서 8.1%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 외에 중국, 한국, 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비중도 2000년과 비교할 때 2013년에 소폭 상승하여 일본 해외관광객의 목적지가 더 다양화된 모습을 보였다.

비록 일본의 아웃바운드 시장이 정체되어 있긴 하나 인바운드 시장에 비해선 여전히 규모가 크다. 때문에 2013년 방한 일본인의 수가 방일 한국인의 수보다 크에도 불구하고 각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차이가 있는데, 일본 인바운드 시장의 한국인 관광객 비율은 24%인 반면 아웃바운드 시장에서 한국행 관광객의 비율은 16%이다. 더불어 2004년부터 일본을 찾는 한국인의 수가 다른 국적 관광객 수에 비해 꾸준히 높았던 것에 비해 한국행 일본인의 수는 최근 들어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2년 말부터 시작된 아베노믹스로 인해 엔화의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2013년 중국행 관광객 역시 2010년에 비해 하락하였다. 그러나 미국, 태국, 대만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의 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일본인이 한국과 중국 여행을 고려할 때 특히나 비용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5] 일본 인바운드 관광객 국적 순위

(단위 : 천 명, %)

순위	국가	인바운드 관광객 수				연평균 증가율		
		2004	2007	2010	2013	'04~'09	'10~'13	'04~'13
	총계	6,138	9,347	8,611	10,364	2.0	6.4	6.0
1	한국	1,588	2,601	2,440	2,456	-0.0	0.2	5.0
2	대만	1,081	1,385	1,268	2,211	-1.1	20.4	8.3
3	중국	616	942	1,413	1,314	10.3	-2.4	8.8
4	미국	760	816	727	799	-1.6	3.2	0.6
5	홍콩	300	432	509	746	8.4	13.6	10.6

자료 : UNWTO

[표 2-6] 일본 아웃바운드 관광객 목적지 순위

(단위 : 천 명, %)

순위	국가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				연평균 증가율		
		2000	2005	2010	2013	'00~'09	'10~'13	'00~'13
	총계	17,819	17,404	16,637	17,473	-1.6	1.6	-0.2
1	미국	5,061	3,884	3,386	3,730	-5.9	3.3	-2.3
2	중국	2,202	3,390	3,731	2,878	4.7	-8.3	2.1
3	한국	2,472	2,440	3,023	2,748	2.4	-3.1	0.8
4	태국	1,202	1,197	994	1,536	-2.0	15.6	1.9
5	대만	916	1,124	1,080	1,422	1.0	9.6	3.4

자료 : JNTO

(3) 중국을 제외한 대만 방문자 국적 1위는 일본, 대만인 방문국 1위도 일본

2004년 총 2.4백만 명의 외래 관광객이 대만을 방문하였고, 2013년에는 8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대만의 인바운드 관광객 수는 연평균 14%씩 증가하였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중국인 관광객으로 2013년 전체 관광객의 36%인 2.9백만 명의 중국인이 대만을 다녀갔다. 중국은 2008년에 처음 자국민의 대만 방문을 허용하였는데 이후 2013년까지 연평균 증가율 189%라는 놀라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중국인 관광객 수가 일본인 관광객 수를 앞지르기 전까지 대만을 찾은 관광객의 국적은 일본이 가장 많았는데 2004년에 0.9백만 명에서 시작하여 2013년에는 1.4백만 명까지 증가하였다. 2013년을 기준으로 중국과 일본 다음에 가장 많이 대만을 방문한 관광객의 국적은 홍콩, 미국, 말레이시아 순이며 한국인은 7번째로 많이 대만을 방문하였다.

한편 대만의 아웃바운드 관광객은 2002년 7.3백만 명에서 연평균 성장률 4.1%씩 증가하여 2014년에는 11.8백만 명을 초과하였다. 아웃바운드 관광객의 목적지 국가로는 역시 중국이 가장 많았다. 2000년대 초·중반 동안 대만과 중국은 극심한 정치적 갈등을 겪기도 하였으나 2008년 들어 대만정부가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중국과의 직항, 관광, 환전을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행 여행자가 급증하였다. 중국 다음으로 2014년에 대만인이 가장 많이 찾은 국가는 일본, 홍콩, 한국, 마카오 순이다. 이전에는 한국보다 마카오를 방문하는 대만인이 더 많았으나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마카오행 관광객은 연평균 7.6%로 감소하였고, 한국행 관광객은 연평균 15%로 증가하여 2012년 두 나라의 순위가 역전되었다.

한국은 2014년 대만인 관광객이 네 번째로 많이 방문한 국가이긴 하나 세 번째로 많이 방문한 국가인 홍콩과 비교할 때 2014년에 한국을 찾은 관광객의 수는 홍콩을 찾은 관광객의 3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2010년에서 2014년까지 홍콩을 방문하는 대만 관광객의 수는 연평균 3.3%씩 감소하는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을 방문하는 대만인은 연평균 11%씩 증가하고 있다. 한편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방한 대만인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국 여행 시 방문 비교 국가로는 일본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는 대만인에게 여행지로서의 일본과 한국이 비슷한 성격을 띠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2014년 일본행 대만인의 수는 한국행 대만인의 수보다

4.7배가량 많을 뿐 아니라, 일본행 관광객의 연평균 증가율은 21%로 방한 관광객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대만에서 우리나라의 관광경쟁력이 일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대만 인바운드 관광객 국적 순위

(단위 : 천 명, %)

순위	국가	인바운드 관광객 수				연평균 증가율		
		2004	2007	2010	2013	'04~'09	'10~'13	'04~'13
	총계	2,428	2,989	5,567	8,016	12.6	12.9	14.2
1	중국*	-	-	1,631	2,875	-	-	188.9
2	일본	885	1,164	1,080	1,422	2.5	9.6	5.4
3	홍콩	71	80	794	1,183	58.9	14.2	36.7
4	미국	380	395	396	414	-0.6	1.5	1.0
5	말레이시아	92	141	286	394	12.6	11.3	17.5
7	한국	145	222	217	351	3.0	17.4	10.4

* 중국 관광객의 대만 여행이 2008년 7월부터 허가되었기 때문에 2008~2013 연평균 성장률 계산

자료 : UNWTO

[표 2-8] 대만 아웃바운드 관광객 목적지 순위

(단위 : 천 명, %)

순위	국가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				연평균 증가율		
		2002	2005	2010	2014	'02~'09	'10~'14	'02~'14
	총계	7,319	8,208	9,415	11,845	1.5	5.9	4.1
1	중국	0	-	2,424	3,267	663.8	7.7	249.0
2	일본	797	1,180	1,378	2,972	4.9	21.2	11.6
3	홍콩	2,419	2,807	2,309	2,018	-1.0	-3.3	-1.5
4	한국	120	368	406	627	18.3	11.4	14.8
5	마카오	1,270	1,164	668	493	-7.4	-7.3	-7.6

자료 : Tourism Bureau, M.O.T.C. Republic of China

(4) 중화권 제외한 홍콩 방문자 국적 1위는 미국, 홍콩인 방문국 1위는 일본

2004년 총 22백만 명의 외래 관광객이 홍콩을 방문하였고, 2013년에는 54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홍콩의 인바운드 관광객 수는 연평균 11%씩 증가하였다. 특히 2010년에서 2013년까지는 연평균 증가율이 15%에 달한다. 2013년 홍콩을 가장 많이 찾은 관광객의 국적은 중국으로 41백만 명이 홍콩을 방문하였고, 다음으로는 대만 관광객 2.1백만 명이 홍콩을 찾았다. 중국인과 대만인은 2004년부터 계속 홍콩을 가장 많이 방문한 국적의 관광객이었다. 2004년 당시 1.1백만 명이 방문하여 세 번째로 홍콩을 많이 방문했던 미국인 관광객은 2013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이 0.6%로 그 증가세가 정체되어 있으나, 한국인 관광객의 수가 연평균 8.1%로 증가하고 있어 미국인 관광객과의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

한편 홍콩의 아웃바운드 시장은 인바운드 시장에 비해 느리게 성장하고 있다. 2004년 70백만 명이었던 홍콩 아웃바운드 관광객의 수는 연평균 성장률 1.9%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83백만 명이 되었다. 특히 2004년에서 2009년까지는 연평균 성장률 3.1%로 증가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정체된 상황이다. 인바운드 시장과 마찬가지로 홍콩의 아웃바운드 관광객 역시 중국을 가장 많이 찾았다. 비록 2011년 이후 유일하게 중국행 관광객만이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두 번째로 많이 방문한 국가인 마카오에 비해 44배나 더 많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중국 다음으로 많이 방문한 목적지는 대만, 일본, 태국, 한국 순인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태국과 한국행 관광객은 연평균 증가율이 20%대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에서 2009년까지 태국을 찾는 홍콩 관광객의 수가 감소했던 것에 비해 같은 기간 한국을 방문하는 홍콩인은 연평균 증가율 6.8%로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홍콩 아웃바운드 시장에서 한국행 관광객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홍콩의 전체 아웃바운드 관광객 중 한국을 찾는 홍콩인의 비율은 0.5%에 불과하고 중국, 마카오, 대만과 같은 중화권 국가를 제외해도 한국행 관광객의 비중은 12%가량이다. 한편 일본행 관광객의 경우 2004년에는 66만 명이었던 태국행 관광객보다 적은 수인 30만 명이었으나, 이후 감소추세를 보인 태국행 관광객과는 달리 일본행 관광객은 전체 아웃바운드 관광객의 증가세보다 빠르게 증가하였다. 일본을 찾는 관광객은 2013년까지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여전히 많은 수의 홍콩인이 한국보다 일본을 더 많이 방문하고 있지만, 최근 그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2010년 이후 일본을 찾는 홍콩인의 연평균 증가율은 14%인 반면 한국을 찾는 홍콩인의 연평균 증가율은 21%로 방한 관광객의 증가세가 더 빠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2-9] 홍콩 인바운드 관광객 국적 순위

(단위 : 천 명, %)

순위	국가	인바운드 관광객 수				연평균 증가율		
		2004	2007	2010	2013	'04~'09	'10~'13	'04~'13
	총계	21,811	28,169	36,030	54,299	6.3	14.6	10.7
1	중국	12,246	15,486	22,684	40,745	8.0	21.6	14.3
2	대만	2,075	2,239	2,165	2,100	-0.6	-1.0	0.1
3	미국	1,052	1,231	1,171	1,110	0.3	-1.8	0.6
4	한국	539	876	891	1,084	2.8	6.7	8.1
5	일본	1,126	1,324	1,317	1,057	1.4	-7.1	-0.7

자료 : UNWTO

[표 2-10] 홍콩 아웃바운드 관광객 목적지 순위

(단위 : 천 명, %)

순위	국가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				연평균 증가율		
		2004	2007	2010	2013	'04~'09	'10~'13	'04~'13
	총계	70,191	81,890	84,169	83,229	3.1	-0.4	1.9
1	중국	66,539	77,949	79,322	76,885	3.1	-1.0	1.6
2	마카오	1,302	1,668	1,620	1,743	4.2	2.5	3.3
3	대만	71	80	794	1,1383	58.9	14.2	36.7
4	일본	300	432	509	746	8.4	13.6	10.6
5	태국	657	448	391	694	-10.4	21.1	0.6
7	한국	155	140	229	400	6.8	20.5	11.1

자료 : UNWTO

2) 동남아시아 국가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시장 변화

(1) 태국 방문자 국적 1위는 중국, 태국인 방문국 1위는 말레이시아

2004년 총 11.7백만 명의 외래 관광객이 태국을 방문하였고, 2013년에는 27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태국의 인바운드 관광객 수는 연평균 9.6%씩 증가해 왔다. 2013년 태국을 가장 많이 방문한 관광객은 중국인으로 4.6백만 명이 방문하였다. 2004년까지만 하더라도 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말레이시아인, 일본인, 한국인 관광객보다도 적었지만, 2010년부터 연평균 증가율 61%를 기록하며 빠르게 증가하였다. 한편 러시아의 경우도 중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2013년 세 번째로 태국을 많이 방문한 러시아 관광객들은 2004년 당시 12만 명으로 그 수가 적었으나 2010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 39%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175만 명에 이르렀다. 러시아인 다음으로는 일본인과 한국인이 태국을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 특히 한국 관광객의 경우 2006년 잠시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2009년까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0년부터 연평균 증가율 17%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태국의 아웃바운드 관광객은 1997년 1.6백만 명에서 연평균 8.4%씩 증가하여 2013년에는 6백만 명에 근접했다. 특히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은 연평균 증가율이 10.1%로 전체 기간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였다. 태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한 세 국가는 말레이시아, 라오스, 싱가포르 순인데 모두 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거나 근교에 위치한 아세안(ASEAN) 국가들이다. 1997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태국인들은 말레이시아를 가장 많이 방문하였는데, 2013년 말레이시아 방문객은 2백만 명으로 라오스행 관광객의 두 배 이상이었다. 한편 1997년 당시에는 라오스행 관광객이 싱가포르행 관광객의 24% 수준이었으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06년부터는 라오스행 관광객이 더 많아졌다. 중국과 홍콩은 2013년 태국인들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로 많이 방문한 국가인데, 1997년에는 홍콩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더 많았으나 2002년부터 중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더 많아졌다.

방한 태국인 역시 설문조사에서 방문 비교 국가로 일본을 제일 많이 꼽았다. 일본과 한국의 경우 각각 2013년에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로 태국 관광객이 많이 찾은 국가인데, 1997년 당시 한국을 찾는 관광객은 일본을 찾는 관광객의 24% 수준이었으나 2013년에는 일본의

80% 정도 수준으로 증가하여 그 격차를 좁혔다. 특히 일본의 경우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 줄어든 태국인 관광객이 2010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한국행 태국인의 수는 전반적인 증가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태국의 전체 아웃바운드 관광객에서 방한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2.9% 정도이다.

[표 2-11] 태국 인바운드 관광객 국적 순위

(단위 : 천 명, %)

순위	국가	인바운드 관광객 수				연평균 증가율		
		2004	2007	2010	2013	'04~'09	'10~'13	'04~'13
	총계	11,651	14,464	15,936	26,547	4.0	18.5	9.6
1	중국	730	907	1,122	4,637	1.3	60.5	22.8
2	말레이시아	1,405	1,540	2,059	3,041	4.6	13.9	9.0
3	러시아	115	278	645	1,747	24.0	39.4	35.3
4	일본	1,212	1,278	994	1,536	-3.7	15.6	2.7
5	한국	899	1,084	805	1,295	-7.2	17.2	4.1

자료 : UNWTO

[표 2-12] 태국 아웃바운드 관광객 목적지 순위

(단위 : 천 명, %)

순위	국가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					연평균 증가율			
		1997	2000	2005	2010	2013	'97~'99	'00~'09	'10~'13	'97~'13
	총계	1,638	1,909	3,047	5,338	5,970	0.5	10.1	3.8	8.4
1	말레이시아	376	540	831	1,770	2,044	8.9	12.4	4.9	11.2
2	라오스	51	67	272	888	963	10.6	33.3	2.8	20.1
3	싱가포르	211	234	317	323	427	3.3	1.2	9.7	4.5
4	중국	91	136	363	290	330	14.9	5.5	4.4	8.3
5	홍콩	201	196	254	203	243	-6.0	-2.3	6.2	1.2
6	일본	87	89	168	268	219	-6.0	10.8	-6.6	6.0
7	한국	21	61	85	137	172	29.2	5.6	8.0	13.9

자료 : 태국 NTO

(2) 필리핀 방문자 국적 1위는 한국, 필리핀인 방문국 1위는 중국

2004년 총 2.2백만 명의 외래 관광객이 필리핀을 방문하였고, 2013년에는 4.5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필리핀의 인바운드 관광객 수는 연평균 8.3%씩 증가하였다. 2013년 필리핀을 가장 많이 찾은 국적의 관광객은 한국인으로 1.2백만 명이 필리핀을 방문하였다. 2004년에는 38만 명의 한국인이 필리핀을 방문하여 미국인과 일본인 관광객보다 수가 적었으나 2005년에는 일본인 관광객 수를 앞질렀고, 2006년에는 미국인 관광객 수를 앞질렀다. 2013년 두 번째로 필리핀을 많이 찾은 미국인 관광객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1898년부터 1946년까지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 지배했던 역사가 있어 미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는 일본, 중국, 호주 관광객 순으로 필리핀을 많이 방문하였다.

한편 필리핀의 아웃바운드 관광객은 2004년 2.6백만 명이었다가 연평균 증가율 8.7%씩 증가하여 2013년에는 5.6백만 명에 이르렀다. 필리핀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국가는 중국으로 2013년 1백만 명이 가까운 필리핀인이 중국을 찾았다. 중국과 필리핀 사이에는 오래전부터 남중국해 섬들을 둘러싼 갈등이 있어왔는데 그러한 정치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인들은 과거부터 중국을 가장 많이 방문해 왔으며 기간별 연평균 증가율도 꾸준히 6%대를 유지하고 있다. 필리핀인이 중국 다음으로 많이 방문한 국가는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한국 순이었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경우 2004년 당시 한국행 관광객보다 적은 14만 명이 방문하였으나 2007년부터는 말레이시아를 찾는 관광객이 한국을 찾는 관광객 보다 많아졌다. 그러나 2010년에서 2013년까지 말레이시아행 관광객의 연평균 증가율은 4.6%로 낮아진 반면 한국행 관광객의 연평균 증가율은 10.4%로 과거에 비해 증가하여 둘 사이의 간격이 좁혀지고 있다.

필리핀은 아세안 회원국이긴 하나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조금 떨어진 말레이 제도에 위치해 있어 지리적으로도 중국과 가까운 편이다. 때문에 필리핀 관광객이 많이 찾는 국가 5개 중 아세안 회원국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두 곳이었으며 나머지 세 곳은 동아시아에 위치한 중국, 홍콩, 한국이었다. 특히 2010년에서 2013년까지는 다른 나라보다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연평균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2-13] 필리핀 인바운드 관광객 국적 순위

(단위 : 천 명, %)

순위	국가	인바운드 관광객 수				연평균 증가율		
		2004	2007	2010	2013	'04~'09	'10~'13	'04~'13
	총계	2,188	2,911	3,292	4,478	5.2	10.8	8.3
1	한국	379	653	741	1,166	5.6	16.3	13.3
2	미국	478	579	600	675	4.0	4.0	3.9
3	일본	382	395	359	434	-3.2	6.5	1.4
4	중국	40	158	187	426	31.4	31.5	30.2
5	호주	89	112	147	213	8.2	13.0	10.2

자료 : UNWTO

[표 2-14] 필리핀 아웃바운드 관광객 목적지 순위

(단위 : 천 명, %)

순위	국가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				연평균 증가율		
		2004	2007	2010	2013	'04~'09	'10~'13	'04~'13
	총계	2,618	3,908	4,321	5,566	8.3	8.8	8.7
1	중국	549	833	828	997	6.4	6.4	6.8
2	싱가포르	246	419	544	688	11.9	8.1	12.1
3	홍콩	257	440	493	585	12.1	5.8	9.5
4	말레이시아	144	327	487	557	25.5	4.6	16.2
5	한국	213	264	297	401	5.0	10.4	7.2
13	일본	155	90	77	108	-14.3	11.9	-3.9

자료 : UNWTO

(3) 말레이시아 방문자 국적 1위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인 방문국 1위는 태국

2004년 총 15.7백만 명의 외래 관광객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였고, 2013년에는 26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말레이시아의 인바운드 관광객 수는 연평균 5.6%씩 증가하였다. 2013년 말레이시아를 가장 많이 방문한 관광객의 국적은 싱가포르로 13백만 명이 말레이시아를 찾았다. 다음은 인도네시아인, 중국인, 브루나이인, 태국인 순으로 말레이시아를 많이 찾았으며 한국인은 12번째로 말레이시아를 많이 방문했다. 한편 말레이시아행 태국 관광객은 2004년에는 싱가포르 다음으로 많았으나 2006년부터 감소하여 2007년에는 인도네시아인, 2012년에는 중국인, 2013년에는 브루나이인보다 적어졌다.

한편 말레이시아의 아웃바운드 관광객은 2004년 4.5백만 명에서 연평균 9.4%씩 증가하여 2013년에는 10.1백만 명에 이르렀다. 말레이시아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는 인근 아세안 국가들로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순이었으며 이들을 방문한 관광객의 비중이 전체 아웃바운드 관광객 중 57%를 차지하였다. 특히 2013년 10월 말레이시아 관광업 및 여행업 협회²⁾(MATTA)와 태국 여행업 협회³⁾(TTAA)가 관광개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MOU를 체결함에 따라 앞으로 태국을 방문하는 말레이시아인들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 번째로 많이 방문한 국가는 중국이며 그다음으로는 홍콩을 많이 찾았다. 한편 한국의 경우 2013년 말레이시아인들이 10번째로 많이 찾은 국가였다.

2004년에서 2009년까지 한국을 찾은 말레이시아 관광객의 수는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0년부터 크게 증가한 후 2013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22%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아웃바운드 관광객 연평균 증가율의 세 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중국과 홍콩을 방문하는 말레이시아인의 수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감소하거나, 그 증가세가 약화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중국행 관광객은 2004년만 하더라도 인도네시아나 싱가포르행 관광객보다 많았다. 2008년 인도네시아행 관광객 수가 중국행 관광객 수를 추월하였고, 2013년 말레이시아인들은 중국보다 싱가포르를 더 많이 방문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2) The Malaysian Association of Tour & Travel Agents(MATTA)

3) Thai Travel Agents Association(TTAA)

방한 말레이시아인이 방문 비교 국가로 가장 많이 뽑은 일본행 관광객 역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16%씩 빠르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말레이시아인의 동아시아 관광지 선호 성향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2013년 한국행 관광객은 중국행 관광객의 17%, 홍콩행 관광객의 44%에 그치고 있다.

[표 2-15] 말레이시아 인바운드 관광객 국적 순위

(단위 : 천 명, %)

순위	국가	인바운드 관광객 수				연평균 증가율		
		2004	2007	2010	2013	'04~'09	'10~'13	'04~'13
	총계	15,703	20,973	24,577	25,715	8.5	1.5	5.6
1	싱가포르	9,520	10,493	13,042	13,179	6.0	0.3	3.7
2	인도네시아	790	1,805	2,507	2,548	24.9	0.5	13.9
3	중국	550	689	1,130	1,790	13.0	16.6	14.0
4	브루나이	454	1,172	1,124	1,239	18.5	3.3	11.8
5	태국	1,518	1,626	1,459	1,156	-0.9	-7.4	-3.0
12	한국	91	225	265	275	20.0	1.3	13.0

자료 : UNWTO

[표 2-16] 말레이시아 아웃바운드 관광객 목적지 순위

(단위 : 천 명, %)

순위	국가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				연평균 증가율		
		2004	2007	2010	2013	'04~'09	'10~'13	'04~'13
	총계	4,524	5,803	8,163	10,149	8.2	7.5	9.4
1	태국	1,389	1,552	2,047	3,031	4.7	14.0	9.1
2	인도네시아	623	891	1,277	1,431	13.6	3.9	9.7
3	싱가포르	537	646	1,037	1,281	7.3	7.3	10.1
4	중국	742	1,062	1,245	1,207	7.4	-1.0	5.6
5	홍콩	244	370	424	467	6.0	3.2	7.5
10	한국	94	83	114	208	-3.1	22.3	9.2
11	일본	72	101	115	177	4.3	15.5	10.4

자료 : UNWTO

(4) 인도네시아 방문자 국적 1위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인 방문국 1위도 싱가포르

2004년 총 5.3백만 명의 외래 관광객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고, 2013년에는 8.8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인도네시아의 인바운드 관광객 수는 연평균 5.8%씩 증가하였다. 2013년에는 싱가포르인 143만 명이 인도네시아를 찾아 인바운드 관광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은 말레이시아인으로 138만 명이 싱가포르를 방문했다. 세 번째로 인도네시아를 많이 찾는 관광객의 국적은 호주였으며 그다음으로는 중국, 일본, 한국 순이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의 경우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62%였으며,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19%에 달한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아웃바운드 관광객은 2004년 4.3백만 명에서 연평균 8.2%씩 증가하여 2013년에는 8.8백만 명에 이르렀다. 2013년 인도네시아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은 두 나라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순이었는데, 이들 두 나라는 인도네시아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을 뿐 아니라 말레이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음은 중국, 태국, 홍콩 순으로 많이 방문했으며 한국은 7번째로 많이 방문한 국가였다. 이 중 태국행 관광객은 2010년부터 크게 성장하기 시작하여 2013년에는 중국행 관광객 수에 거의 근접하였고 한국행 관광객 역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26%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04년에 비해 2013년에 세 배가량 증가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인바운드 시장의 경우 2013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관광객의 비중이 각각 16% 정도로 높은 하나 호주 및 중국 관광객이 각각 11%와 10% 정도로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러나 아웃바운드 시장의 경우 2013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행 관광객의 비중은 각각 35%와 29%로 6.9% 정도인 중국행 관광객과 차이가 크다. 더군다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싱가포르행 관광객은 연평균 증가율이 10%로 증가하고 있어, 이 차이는 당분간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행 관광객의 경우 최근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수 자체가 적었던 탓에 2013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총 아웃바운드 관광객의 2.1%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표 2-17] 인도네시아 인바운드 관광객 국적 순위

(단위 : 천 명, %)

순위	국가	인바운드 관광객 수				연평균 증가율		
		2004	2007	2010	2013	'04~'09	'10~'13	'04~'13
	총계	5,321	5,506	7,003	8,802	3.5	7.9	5.8
1	싱가포르	1,620	1,160	1,206	1,432	-6.8	5.9	-1.4
2	말레이시아	482	800	1,172	1,381	16.6	5.6	12.4
3	호주	444	287	770	984	5.2	8.5	9.2
4	중국	40	269	511	858	61.9	18.8	40.6
5	일본	653	517	416	497	-5.6	6.1	-3.0
6	한국	247	337	296	351	1.1	5.9	4.0

자료 : UNWTO

[표 2-18] 인도네시아 아웃바운드 관광객 목적지 순위

(단위 : 천 명, %)

순위	국가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				연평균 증가율		
		2004	2007	2010	2013	'04~'09	'10~'13	'04~'13
	총계	4,328	5,702	7,215	8,814	7.4	6.9	8.2
1	싱가포르	1,765	1,962	2,306	3,089	-0.2	10.2	6.4
2	말레이시아	790	1,805	2,507	2,548	24.9	0.5	13.9
3	중국	350	477	573	605	6.0	1.8	6.3
4	태국	201	234	286	595	2.4	27.7	12.8
5	홍콩	191	277	340	380	6.7	3.7	7.9
7	한국	62	67	95	189	5.7	25.7	13.3
9	일본	55	64	81	137	2.9	19.3	10.6

자료 : UNWTO

(5) 싱가포르 방문자 국적 1위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인 방문국 1위는 말레이시아

2004년 총 8.3백만 명의 외래 관광객이 싱가포르를 방문하였고, 2013년에는 15.6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싱가포르의 인바운드 관광객 수는 연평균 7.2%씩 증가하였다. 2013년 싱가포르를 가장 많이 방문한 관광객의 국적은 인도네시아, 중국,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 순이고 한국 관광객은 10번째로 싱가포르를 많이 방문하였다. 싱가포르의 인바운드 시장에서 인도네시아 관광객이 줄곧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 2004년 싱가포르를 찾은 말레이시아인들은 호주인과 인도인보다 적었는데, 이후 2010년에 호주인 수를 초과하였고, 2012년에는 인도인 수를 초과하였다.

한편 싱가포르의 아웃바운드 관광객은 2004년 13.9백만 명에서 연평균 4.1%씩 증가하여 2013년에는 19.8백만 명에 이르렀다. 2013년 싱가포르인이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는 말레이시아로 전체 아웃바운드 관광객의 6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홍콩 순으로 많이 방문하였으며, 한국은 11번째로 많이 방문한 국가였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싱가포르인이 많이 찾은 관광지 1, 2위의 자리를 지키는 동안 3위는 태국과 중국행 관광객이 번갈아 가며 차지했다. 태국행 관광객은 2009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이후 2013년까지 연평균 18%씩 빠르게 증가했고, 오히려 중국행 관광객은 2011년 이후 감소하여 2013년에는 태국행 관광객보다 적어졌다.

2004년에서 2009년까지 방한 싱가포르 관광객의 연평균 증가율은 2.5% 정도였으나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15.7%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2013년 싱가포르인들이 9번째로 많이 방문한 국가인 일본은 2004년에서 2009년까지 10%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1.5%로 증가 속도가 크게 감소하였다. 때문에 2010년 당시 일본행 관광객과 한국행 관광객의 차는 6만 8천여 명에 달했으나 2013년에는 1만 4천여 명으로 감소하였다. 방한 싱가포르인 역시 방문 비교 국가로 일본을 가장 많이 꼽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한국 여행 수요가 일본 여행 수요를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19] 싱가포르 인바운드 관광객 국적 순위

(단위 : 천 명, %)

순위	국가	인바운드 관광객 수				연평균 증가율		
		2004	2007	2010	2013	'04~'09	'10~'13	'04~'13
	총계	8,329	10,285	11,642	15,568	3.1	10.2	7.2
1	인도네시아	1,759	1,961	2,347	3,112	-0.0	9.9	6.5
2	중국	867	1,090	1,150	2,646	1.1	32.0	13.2
3	말레이시아	410	522	833	1,031	9.6	7.4	10.8
4	호주	529	725	820	1,029	7.8	7.9	7.7
5	인도	539	822	907	1,013	8.0	3.7	7.3
10	한국	371	480	379	499	-5.2	9.6	3.3

자료 : UNWTO

[표 2-20] 싱가포르 아웃바운드 관광객 목적지 순위

(단위 : 천 명, %)

순위	국가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				연평균 증가율		
		2004	2007	2010	2013	'04~'09	'10~'13	'04~'13
	총계	13,864	15,427	18,535	19,821	5.0	2.3	4.1
1	말레이시아	9,520	10,493	13,042	13,179	6.0	0.3	3.7
2	인도네시아	1,645	1,352	1,373	1,634	-5.0	6.0	-0.1
3	태국	732	799	654	1,067	-2.3	17.7	4.3
4	중국	637	922	1,004	967	6.9	-1.2	4.7
5	홍콩	352	479	528	522	5.3	-0.4	4.5
9	일본	90	152	181	189	10.0	1.5	8.6
11	한국	85	94	113	175	2.5	15.7	8.3

자료 : UNWTO

3) 북미 국가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시장 변화

(1) 미국 방문자 국적 1위는 캐나다, 미국인 아시아 방문국 1위는 중국

2004년 총 46백만 명의 외래 관광객이 미국을 방문하였고, 2013년에는 70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미국의 인바운드 관광객 수는 연평균 4.7%씩 증가하였다. 2013년 미국을 가장 많이 방문한 관광객의 국적은 캐나다와 멕시코로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특히 언어가 같은 캐나다 관광객의 비중은 전체 인바운드 관광객의 34%를 차지한다. 다음은 영국, 일본, 브라질 관광객 순으로 미국을 많이 찾았으며 한국인은 9번째로 많이 방문하였다. 영국은 미국과 역사적 관련이 깊고 언어도 같으며, 브라질은 같은 대륙이라는 지리적 이점이 있지만, 일본인은 언어와 지리적 불리함에도 영국인 못지않게 미국을 많이 방문하였다.

한편 미국의 아웃바운드 관광객은 2004년 71백만 명에서 연평균 1%씩 증가하여 2013년에는 78백만 명에 이르렀다. 2013년 미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한 도시는 멕시코이며, 다음으로 캐나다를 많이 방문하였다. 세 번째로 많이 방문한 나라는 프랑스인데, 2013년 프랑스를 방문한 미국인의 수는 2.6백만 명으로 캐나다행 관광객의 26%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멕시코행 미국인 수는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캐나다행 미국인 수는 감소한 반면, 프랑스행 관광객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미국인이 20번째로 많이 방문한 국가였다.

아시아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면 2013년 미국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는 중국으로 2.1백만 명이 중국을 찾았다. 미국과 중국은 다양한 문제로 외교적 마찰을 빚어왔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동안 미국 관광객들은 아시아 국가 중 중국을 가장 많이 찾았다. 중국 다음으로는 인도, 일본, 태국, 홍콩, 한국 순으로 많이 찾았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인도보다 일본을 많이 찾았으나 2008년부터 인도를 찾는 관광객이 더 많아졌는데 이는 인도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과 동시에 2008년과 2009년 일본을 찾는 관광객은 감소한 결과이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2011년을 제외하고는 2010년부터 일본행 관광객도 다시 증가하고 있다. 방한 관광객의 수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큰 기복 없이 연평균 성장률 3.9%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2-21] 미국 인바운드 관광객 국적 순위

(단위 : 천 명, %)

순위	국가	인바운드 관광객 수				연평균 증가율		
		2004	2007	2010	2013	'04~'09	'10~'13	'04~'13
	총계	46,086	55,979	60,010	69,768	3.6	5.2	4.7
1	캐나다	13,857	17,760	20,176	23,387	5.3	5.0	6.0
2	멕시코	11,907	14,327	13,472	14,343	2.3	2.1	2.1
3	영국	4,303	4,498	3,851	3,835	-2.0	-0.1	-1.3
4	일본	3,748	3,531	3,386	3,730	-4.9	3.3	-0.1
5	브라질	385	639	1,198	2,060	18.3	19.8	20.5
9	한국	627	806	1,108	1,360	3.5	7.1	9.0

자료 UNWTO

[표 2-22] 미국 아웃바운드 관광객 목적지 순위

1) 전체 국가 방문 순위

(단위 : 천 명, %)

순위	국가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				연평균 증가율		
		2004	2007	2010	2013	'04~'09	'10~'13	'04~'13
	총계	70,986	76,713	73,596	77,521	0.2	1.7	1.0
1	멕시코	19,370	19,425	18,527	18,940	-1.2	0.7	-0.2
2	캐나다	15,088	13,371	11,871	12,008	-5.0	0.4	-2.5
3	프랑스	2,621	3,428	2,909	3,102	3.2	2.2	1.9
20	한국	511	587	653	722	3.6	3.4	3.9

2) 아시아 국가 방문 순위

1	중국	1,309	1,901	2,010	2,085	5.5	1.2	5.3
2	인도	526	799	931	1,085	9.5	5.2	8.4
3	일본	760	816	727	799	-1.6	3.2	0.6
4	태국	557	624	587	789	1.5	10.4	3.9
5	홍콩	826	924	839	786	-1.8	-2.1	-0.5
6	한국	511	587	653	722	3.6	3.4	3.9

자료 : UNWTO

(2) 캐나다 방문자 국적 1위는 미국, 캐나다인 아시아 방문국 1위는 중국

2004년 총 39백만 명의 외래 관광객이 캐나다를 방문하였고, 2013년에는 25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캐나다의 인바운드 관광객 수는 연평균 4.7%씩 감소하였다. 캐나다를 가장 많이 찾은 관광객의 국적은 미국으로 2013년에 20백만 명이 방문하여 전체 인바운드 관광객의 8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영국인, 프랑스인, 중국인, 독일인 순으로 캐나다를 많이 방문했으며 한국인은 아홉 번째로 많이 방문했다. 캐나다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모두 공용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영국인과 프랑스인 모두 캐나다 방문 시 언어적 이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를 방문하는 영국인은 감소하고 있다. 반면 캐나다를 방문하는 중국인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연평균 성장을 22%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독일인 관광객의 수를 초과하였다.

한편 캐나다의 아웃바운드 관광객은 2004년 21백만 명에서 연평균 6.1%씩 증가하여 2013년에는 35백만 명에 이르렀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캐나다인이 가장 많이 찾은 국가는 미국인데, 2013년 미국행 관광객은 23백만 명으로 전체 아웃바운드 관광객의 67%를 차지했다. 다음은 쿠바, 프랑스 순으로 많이 방문하였으며 한국은 18번째로 많이 방문한 국가였다. 2004년에는 프랑스를 방문한 관광객이 쿠바를 방문한 관광객보다 더 많았지만, 쿠바행 관광객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2011년부터는 3년 연속으로 쿠바를 더 많이 방문하였다.

아시아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면 2013년 캐나다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는 중국으로 68만 명이 중국을 찾았는데 이는 2004년에 비해 두 배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다음으로는 인도, 홍콩, 태국, 일본, 한국 순으로 많이 방문하였다. 중국행 관광객의 증가세는 최근 들어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나 2013년 두 번째로 많았던 인도행 관광객보다 여전히 2.5배 이상 많았다. 캐나다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아시아의 5개 가운데 태국행 관광객만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두자릿수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은 오히려 관광객 수가 감소하거나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한국행 관광객만이 유일하게 2010년 이후에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2-23] 캐나다 인바운드 관광객 국적 순위

(단위 : 천 명, %)

순위	국가	인바운드 관광객 수				연평균 증가율		
		2004	2007	2010	2013	'04~'09	'10~'13	'04~'13
	총계	38,845	30,373	25,621	25,163	-8.7	-0.6	-4.7
1	미국	34,626	25,695	21,166	20,435	-9.9	-1.2	-5.7
2	영국	847	926	728	664	-3.1	-3.0	-2.7
3	프랑스	343	381	442	467	3.8	1.8	3.5
4	중국	105	156	201	366	9.7	22.1	14.9
5	독일	318	318	342	322	0.0	-1.9	0.1
9	한국	191	213	170	159	-5.5	-2.3	-2.0

자료 : UNWTO

[표 2-24] 캐나다 아웃바운드 관광객 목적지 순위

1) 전체 국가 방문 순위

(단위 : 천 명, %)

순위	국가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				연평균 증가율		
		2004	2007	2010	2013	'04~'09	'10~'13	'04~'13
	총계	20,555	26,909	30,590	35,071	6.2	4.7	6.1
1	미국	13,857	17,760	20,176	23,387	5.3	5.0	6.0
2	쿠바	563	660	945	1,106	10.2	5.4	7.8
3	프랑스	586	915	962	1,080	8.3	3.9	7.0
18	한국	78	98	121	134	7.1	3.3	6.2

2) 아시아 국가 방문 순위

1	중국	348	577	685	684	9.6	-0.1	7.8
2	인도	136	208	242	255	10.5	1.7	7.3
3	홍콩	211	296	291	247	4.3	-5.3	1.7
4	태국	107	150	148	209	6.5	12.1	7.7
5	일본	142	166	153	153	1.5	-0.1	0.8
6	한국	78	98	121	134	7.1	3.3	6.2

자료 : UNWTO

4) 유럽 국가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시장 변화

(1) 러시아 방문자 국적 1위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인 아시아 방문국 1위는 중국

2004년 총 22백만 명의 해외 관광객이 러시아를 방문하였고, 2013년에는 31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러시아의 인바운드 관광객 수는 연평균 3.8%씩 증가하였다. 주로 독립연합국가(CIS)에서 러시아를 많이 방문하였는데, 2013년 인바운드 관광객 중 가장 비중이 높았던 국적은 우크라이나였으며 다음으로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폴란드, 핀란드가 뒤를 따랐다. 한국인은 27번째로 많이 러시아를 방문하였다. 2004년에서 2009년까지의 기간 동안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한 나라에서 러시아를 방문한 관광객의 수는 감소하거나 정체된 추세였으나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모두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한편 러시아의 아웃바운드 관광객은 2004년 15.2백만 명에서 연평균 11%씩 증가하여 2013년에는 38백만 명에 이르렀다. 러시아인들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우크라이나를 가장 많이 방문했으며, 다음으로 터키와 이집트를 많이 방문했다. 한국은 러시아가 32번째로 많이 방문한 국가이다. 터키와 이집트는 러시아의 전통적인 여름휴가지로 비교적 저렴한 비용과 간편한 입국절차로 러시아인들이 방문하기 선호하는 국가이다. 그러나 ‘아랍의 봄’ 이후로 감소한 이집트행 관광객은 2012년에 증가하는 듯하였으나 2013년에 다시 감소하여 아직 2010년 수준으로는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다.

아시아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면 2013년 러시아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는 중국으로 2.2백만 명이 중국을 찾았다. 중국행 관광객은 2004년에서 2008년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08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에 대폭 감소한 뒤 2011년까지 증가했다가 2012년부터 다시 감소하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이 방문한 카자흐스탄의 경우 2009년까지 관광객이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0년부터 연평균 20%씩 증가하고 있다. 2013년 세 번째로 많이 방문한 국가는 태국인데 2004년에는 12만 명이 태국을 방문하여 방한 러시아인 16만 명보다 적었으나 2006년 한국행 관광객 수를 넘어섰고, 2010년부터는 연평균 39%씩 증가하여 2013년에는 1.7백만 명이 태국을 찾았다. 다음은 키르기스스탄과 베트남 순이며, 한국은 7번째로 많이 방문한 국가였다. 러시아 관광객의 경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아시아 최다 방문국 5개 가운데 중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두자릿수 증

가을을 보이는 데 비해 한국행 관광객의 연평균 증가율은 5%로 그리 높지 않았다.

[표 2-25] 러시아 인바운드 관광객 국적 순위

(단위 : 천 명, %)

순위	국가	인바운드 관광객 수				연평균 증가율		
		2004	2007	2010	2013	'04~'09	'10~'13	'04~'13
	총계	22,064	22,909	22,281	30,792	-0.7	11.4	3.8
1	우크라이나	6,683	6,422	5,574	7,081	-3.5	8.3	0.6
2	카자흐스탄	2,761	2,896	2,747	3,849	-1.3	11.9	3.8
3	우즈베키스탄	677	1,185	1,584	2,967	12.4	23.3	17.8
4	폴란드	1,128	957	395	1,645	-17.4	60.9	4.3
5	핀란드	1,092	976	1,013	1,388	-0.6	11.1	2.7
27	한국	109	125	91	108	-5.0	6.0	-0.1

자료 : UNWTO

[표 2-26] 러시아 아웃바운드 관광객 목적지 순위

1) 전체 국가 방문 순위

(단위 : 천 명, %)

순위	국가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				연평균 증가율		
		2004	2007	2010	2013	'04~'09	'10~'13	'04~'13
	총계	15,172	20,983	26,394	38,350	7.1	13.3	10.9
1	우크라이나	5,995	7,258	7,900	10,285	3.0	9.2	6.2
2	터키	1,594	2,455	3,092	4,246	11.0	11.2	11.5
3	이집트	785	1,517	2,856	2,394	21.0	-5.7	13.2
32	한국	157	140	151	175	-2.7	5.2	1.2

2) 아시아 국가 방문 순위

1	중국	1,792	3,004	2,370	2,186	-0.6	-2.7	2.2
2	카자흐스탄	1,629	1,340	1,042	1,781	-10.5	19.6	1.0
3	태국	119	280	644	1,746	23.0	39.4	34.8
4	키르기스스탄	37	119	134	449	34.2	49.5	32.1
5	베트남	12	40	83	298	35.1	53.3	42.6
7	한국	157	140	151	175	-2.7	5.2	1.2
14	일본	57	64	51	61	-3.7	5.5	0.8

자료 : UNWTO

(2) 영국 방문자 국적 1위는 프랑스, 영국인 아시아 방문국 1위는 태국

2004년 총 28백만 명의 외래 관광객이 영국을 방문하였고, 2013년에는 33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영국의 인바운드 관광객 수는 연평균 1.9%씩 증가하였다. 2013년 영국을 가장 많이 방문한 관광객의 국적은 프랑스였고, 그다음으로는 독일, 미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순이었으며 한국인은 29번째로 많이 영국을 방문하였다.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프랑스인 관광객과는 달리 미국인 관광객은 2007년까지만 해도 영국 인바운드 관광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뒤 좀처럼 증가하지 않고 있다. 독일 관광객 역시 2007년에서 2009년까지 3년 연속 감소한 뒤 낮은 폭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아일랜드 관광객은 2009년부터 줄곧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편 영국의 아웃바운드 관광객은 2004년 54백만 명에서 연평균 2.4%씩 증가하여 2013년에는 67백만 명에 이르렀다. 2013년 영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는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순이었고 한국은 52번째로 많이 방문하였다. 화창한 날씨를 자랑하는 스페인의 휴양지는 예전부터 영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휴가지로 2013년 전체 아웃바운드 관광객의 21%가 스페인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2004년에 비하면 감소한 수준인데, 2007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던 스페인행 영국인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연속 급락하였으며 2011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 2007년 수준으로 회복하진 못한 상태이다. 마찬가지로 프랑스행 영국인 역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이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면 2013년 영국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는 태국과 인도로 각각 85만 명과 81만 명이 방문하였다. 다음으로는 중국, 싱가포르, 홍콩 순으로 많이 방문하였으며 아시아 국가들만을 고려하면 한국은 13번째로 많이 방문한 국가이다. 한편 한국을 방문한 영국인은 2004년 당시 6.6만 명에 그쳤으나 연평균 7%씩 성장하여 2013년에는 12만 명을 초과하였고, 영국인이 8번째로 많이 방문한 국가인 일본은 2004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였다.

[표 2-27] 영국 인바운드 관광객 국적 순위

(단위 : 천 명, %)

순위	국가	인바운드 관광객 수				연평균 증가율		
		2004	2007	2010	2013	'04~'09	'10~'13	'04~'13
	총계	27,755	32,778	29,803	32,813	1.5	3.3	1.9
1	프랑스	3,254	3,404	3,618	3,930	3.1	2.8	2.1
2	독일	2,968	3,376	3,004	3,162	-1.3	1.7	0.7
3	미국	3,616	3,551	2,711	2,791	-4.5	1.0	-2.8
4	아일랜드	2,578	2,970	2,629	2,395	2.7	-3.1	-0.8
5	네덜란드	1,620	1,823	1,758	1,922	1.2	3.0	1.9
29	한국	138	157	115	202	-11.6	20.7	4.3

자료 : UNWTO

[표 2-28] 영국 아웃바운드 관광객 목적지 순위

1) 전체 국가 방문 순위

(단위 : 천 명, %)

순위	국가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				연평균 증가율		
		2004	2007	2010	2013	'04~'09	'10~'13	'04~'13
	총계	54,338	70,889	63,553	67,235	3.3	1.9	2.4
1	스페인	15,629	16,296	12,440	14,327	-3.2	4.8	-1.0
2	프랑스*	-	14,818	12,071	12,615	-4.2	1.5	-1.5
3	아일랜드	4,095	4,369	3,948	4,444	-2.2	4.0	0.9
52	한국	66	79	98	121	6.7	7.4	7.0

2) 아시아 국가 방문 순위

1	태국	629	746	760	848	4.3	3.7	3.4
2	인도	556	796	759	809	6.7	2.1	4.3
3	중국	418	605	575	625	4.8	2.8	4.6
4	싱가포르	457	496	462	461	0.5	-0.0	0.1
5	홍콩	345	497	422	423	3.8	0.1	2.3
8	일본	216	222	184	192	-3.4	1.4	-1.3
13	한국	66	79	98	121	6.7	7.4	7.0

* 2004년~2005년 자료가 누락되어 2006년부터의 연평균 증가율 계산

자료 : UNWTO

(3) 독일 방문자 국적 1위는 네덜란드, 독일인 아시아 방문국 1위는 태국

2004년 총 20백만 명의 외래 관광객이 독일을 방문하였고, 2013년에는 32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독일의 인바운드 관광객 수는 연평균 5.1%씩 증가하였다. 2013년 독일을 가장 많이 찾은 관광객의 국적은 네덜란드였고 다음으로는 스위스,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 순이었으며 한국인은 30번째로 독일을 많이 찾았다. 2004년에서 2010년까지는 독일을 방문하는 미국인이 스위스인보다 많았으나 2011년 이후로 스위스인 관광객이 더 많아졌다. 네덜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는 모두 독일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로 비교적 적은 경비로 독일을 방문할 수 있으며 특히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는 독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는 이점이 존재한다.

한편 독일의 아웃바운드 관광객은 2004년 76백만 명에서 연평균 1.1%씩 증가하여 2013년에는 84백만 명에 이르렀다. 2013년 독일인이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 인근 유럽 국가들이었고 한국은 51번째로 많이 방문하였다. 프랑스는 전 세계에서 외래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가로 독일인 역시 프랑스를 가장 많이 방문하였다. 또 독일은 프랑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접근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유럽 국가들 사이의 공동 리더 역할을 하며 긴밀한 관계를 맺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를 찾는 독일인이 많은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아시아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면 2013년 독일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는 태국으로 72만 명이 태국을 찾았다. 다음으로는 중국, 인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순으로 많이 방문했으며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9번째로 많이 찾은 나라이다. 한국을 찾는 독일인의 수는 2004년에서 2009년까지는 연평균 7.2%씩 증가하였지만, 2010년에서 2013년까지는 연평균 증가율이 0.9%로 하락하여 증가세가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행 독일인의 연평균 증가율 역시 같은 기간 7.3%에서 2.2%로 하락하여 증가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2010년 이후 오히려 연평균 증가율이 상승한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행 관광객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표 2-29] 독일 인바운드 관광객 국적 순위

(단위 : 천 명, %)

순위	국가	인바운드 관광객 수				연평균 증가율		
		2004	2007	2010	2013	'04~'09	'10~'13	'04~'13
	총계	20,137	24,421	26,875	31,545	3.8	5.5	5.1
1	네덜란드	2,884	3,367	3,918	4,124	5.1	1.7	4.1
2	스위스	1,417	1,732	2,028	2,594	5.6	8.5	7.0
3	미국	1,926	2,123	2,206	2,310	0.1	1.5	2.0
4	영국	1,788	2,067	1,987	2,294	-0.4	4.9	2.8
5	오스트리아	920	1,155	1,388	1,631	6.4	5.5	6.6
30	한국	131	160	144	224	-1.1	15.7	6.1

자료 : UNWTO

[표 2-30] 독일 아웃바운드 관광객 목적지 순위

1) 전체 국가 방문 순위

(단위 : 천 명, %)

순위	국가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				연평균 증가율		
		2004	2007	2010	2013	'04~'09	'10~'13	'04~'13
	총계	76,265	79,944	78,828	84,420	0.4	2.4	1.1
1	프랑스	13,728	13,039	11,410	13,032	-4.9	4.5	-0.6
2	오스트리아	10,255	10,160	10,706	11,758	0.7	3.2	1.5
3	스페인	9,537	10,081	8,814	9,855	-1.3	3.8	0.4
51	한국	69	85	98	101	7.2	0.9	4.3

2) 아시아 국가 방문 순위

1	태국	438	537	597	724	4.9	6.6	5.7
2	중국	365	557	609	649	7.3	2.2	6.6
3	인도	117	184	228	252	10.4	3.4	8.9
4	싱가포르	142	165	209	252	5.2	6.3	6.5
5	인도네시아	135	112	145	168	-0.9	5.0	2.5
8	일본	106	125	124	122	0.8	-0.7	1.5
9	한국	69	85	98	101	7.2	0.9	4.3

자료 : UNWTO

(4) 프랑스 방문자 국적 1위는 영국, 프랑스인 아시아 방문국 1위는 태국

프랑스는 전 세계 해외 여행객이 가장 많이 찾는 국가이다. 2004년 총 74백만 명의 외래 관광객이 프랑스를 방문하였고, 2013년에는 85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프랑스의 인바운드 관광객 수는 연평균 1.4%씩 증가하였다. 2013년 프랑스를 가장 많이 찾은 관광객의 국적은 영국, 독일, 벨기에/룩셈부르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순으로 모두 인근의 유럽 국가들이었다. 한국의 경우 기타 국가로 분류되어 한국인 관광객이 몇 번째로 많이 방문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는 구할 수 없었다.

한편 프랑스의 아웃바운드 관광객은 2004년 33백만 명에서 연평균 2.6%씩 증가하여 2013년에는 42백만 명에 이르렀다. 2013년 프랑스인들이 많이 방문한 국가는,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순이었으며 한국행 관광객은 53번째로 많았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아웃바운드 관광객 중 스페인을 방문한 프랑스인의 비중은 평균 23%이며 이탈리아와 영국행 프랑스인의 비중은 각각 평균 13%와 10%를 유지하고 있어 세 나라 사이의 간격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는 관광 목적지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기호가 잘 변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아시아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면 2013년 프랑스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는 태국으로 58만 명이 태국을 찾았다. 다음으로는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순이었으며 한국은 11번째로 많이 찾은 국가였다. 중국, 인도, 베트남행 관광객의 경우 모두 '08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에 그 수가 감소한 반면, 태국행 관광객은 계속 빠르게 증가하였다. 덕분에 2011년까지 프랑스인이 가장 많이 방문했던 아시아 국가는 중국이었으나, 2012년부터는 태국을 가장 많이 방문하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프랑스인의 수 역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단 한 번도 감소하지 않고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일본행 프랑스인의 경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크게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하여 2013년에 예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표 2-31] 프랑스 인바운드 관광객 국적 순위

(단위 : 천 명, %)

순위	국가	인바운드 관광객 수				연평균 증가율		
		2004	2007	2010	2013	'04~'09	'10~'13	'04~'13
	총계	74,433	80,851	77,648	84,726	0.6	3.0	1.4
1	영국	13,581	15,009	12,897	13,158	-1.1	0.7	-0.4
2	독일	13,982	13,041	11,410	13,032	-5.2	4.5	-0.8
3	벨기에/ 룩셈부르크	9,452	9,355	10,742	10,462	2.9	-0.9	1.1
4	이탈리아	7,750	8,141	7,178	7,815	-1.3	2.9	0.1
5	네덜란드	5,955	6,824	7,002	6,547	3.9	-2.2	1.1

자료 : UNWTO

[표 2-32] 프랑스 아웃바운드 관광객 목적지 순위

1) 전체 국가 방문 순위

(단위 : 천 명, %)

순위	국가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				연평균 증가율		
		2004	2007	2010	2013	'04~'09	'10~'13	'04~'13
	총계	33,090	38,329	38,967	41,666	2.8	2.3	2.6
1	스페인	7,736	9,004	8,125	9,525	0.6	5.4	2.3
2	이탈리아	4,202	4,804	4,844	5,252	3.3	2.7	2.5
3	영국	3,254	3,404	3,618	3,930	3.1	2.8	2.1
53	한국	41	53	66	76	8.3	4.7	7.0

2) 아시아 국가 방문 순위

1	태국	251	352	440	580	9.8	9.7	9.8
2	중국	281	463	513	534	8.6	1.3	7.4
3	인도	132	205	225	248	8.3	3.3	7.3
4	베트남	104	176	199	210	10.7	1.7	8.1
5	인도네시아*	-	-	163	191	-	5.4	2.0
8	일본	96	138	151	155	8.1	0.8	5.5
11	한국	41	53	66	76	8.3	4.7	7.0

* 2004년~2005년 자료가 누락되어 2006년부터의 연평균 증가율 계산

자료 : UNWTO

5) 대양주 국가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시장 변화

(1) 호주 방문자 국적 1위는 뉴질랜드, 호주인 아시아 방문국 1위는 싱가포르

2004년 총 5.2백만 명의 외래 관광객이 호주를 방문하였고, 2013년에는 6.4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호주의 인바운드 관광객 수는 연평균 2.3%씩 증가하였다. 호주를 가장 많이 찾는 관광객의 국적은 뉴질랜드, 중국, 영국, 미국, 싱가포르 순이었고 한국인은 8번째로 많이 호주를 방문하였다. 호주 전체 인바운드 관광객 중 뉴질랜드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9% 정도로 이는 지리적, 언어적, 문화적 친밀성 덕분인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미국과 영국이 호주를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0년 들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중국인 관광객인데, 연평균 17%씩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1년에는 미국인 수를, 2012년에는 영국인 수를 넘어섰다.

한편 호주의 아웃바운드 관광객은 2004년 7백만 명에서 연 평균 8.6%씩 증가하여 2013년에는 14.6백만 명에 이르렀다. 2013년 호주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는 프랑스, 뉴질랜드, 미국이었고, 한국은 24번째로 많이 방문하였다. 과거에는 인근에 위치한 뉴질랜드를 가장 많이 방문하였으나, 2010년 이후 프랑스행 관광객들이 연평균 6.6%씩 증가하여 2013년 뉴질랜드행 관광객의 수를 앞질렀다. 한편 미국행 관광객 역시 2010년 이후 연평균 10%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13년 미국행 호주인은 121만 명으로 뉴질랜드행 호주인과 약 1만 명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곧 뉴질랜드행 관광객의 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면 2013년 호주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는 싱가포르로 1.1백만 명이 싱가포르를 찾았다. 다음으로는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말레이시아를 많이 방문하였으며 한국의 경우 아시아 국가 중 12번째로 많이 방문하였다. 특히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과 같은 동남아시아를 찾는 호주인의 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의 경우 2004년에서 2009년의 기간보다 2010년에서 2013년까지 기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이 절반 이하로 하락하여 증가세가 약화된 모습을 보였다. 일본은 연평균 증가율이 소폭 증가하긴 했으나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치이다.

[표 2-33] 호주 인바운드 관광객 국적 순위

(단위 : 천 명, %)

순위	국가	인바운드 관광객 수				연평균 증가율		
		2004	2007	2010	2013	'04~'09	'10~'13	'04~'13
	총계	5,215	5,644	5,790	6,382	1.0	3.3	2.3
1	뉴질랜드	1,033	1,138	1,146	1,193	1.2	1.3	1.6
2	중국	251	358	446	709	7.2	16.7	12.2
3	영국	675	688	659	656	-0.0	-0.2	-0.3
4	미국	433	460	463	501	1.7	2.7	1.6
5	싱가포르	251	264	271	340	-0.1	7.9	3.4
8	한국	212	253	220	198	-2.5	-3.6	-0.8

자료 : UNWTO

[표 2-34] 호주 아웃바운드 관광객 목적지 순위

1) 전체 국가 방문 순위

(단위 : 천 명, %)

순위	국가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				연평균 증가율		
		2004	2007	2010	2013	'04~'09	'10~'13	'04~'13
	총계	6,974	9,143	12,436	14,639	9.5	5.6	8.6
1	프랑스*	-	-	1,027	1,244	-	6.6	6.1
2	뉴질랜드	856	950	1,120	1,218	4.8	2.8	4.0
3	미국	520	670	904	1,205	6.8	10.0	9.8
24	한국	58	81	112	124	11.4	3.2	8.8

2) 아시아 국가 방문 순위

1	싱가포르	561	768	881	1,125	8.2	8.5	8.0
2	인도네시아	406	314	772	998	7.5	8.9	10.5
3	태국	393	638	703	906	10.4	8.8	9.7
4	중국	376	607	661	723	8.3	3.0	7.5
5	말레이시아	204	320	581	526	21.2	-3.2	11.1
8	일본	194	223	226	245	1.7	2.7	2.6
12	한국	58	81	112	124	11.4	3.2	8.8

* 2004년~2007년 자료가 누락되어 2008년부터의 연평균 증가율 계산

자료 : UNWTO

03

방한 관광시장별 특성 및 향후 전망

- 1_방한 관광시장별 방문 추이
- 2_주요 관광시장별 방한 관광수요 변화의 특성
- 3_주요 방한 관광시장 변화의 원인과 전망
- 4_방한 관광시장의 향후 전망

03 | 방한 관광시장별 특성 및 향후 전망

1_방한 관광시장별 방문 추이

1) 방한 외래객 수는 지난 2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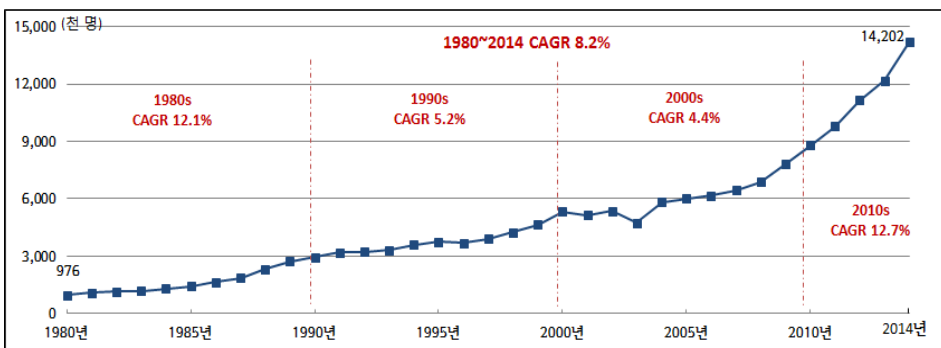
방한 외래객은 지난 25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 전체 방한 외래객의 수는 1980년 1백만 명을 조금 밑돌았으나 매년 평균 8.2%씩 꾸준히 성장하여 2012년에는 1천만 명을 돌파하였고 2014년에는 14.2백만 명에 이르렀다. 한편 '80년대 12%였던 연평균 증가율은 '90년대에 5.2%, '00년대에는 4.4%로 감소하여 외래객의 증가속도가 느려지는 듯했으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13%로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세계 관광시장이 그러하듯 국내 관광시장 역시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1980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을 찾은 외래객은 1996년, 2001년, 2003년에 감소한 적이 있으나 모두 이듬해 곧바로 회복되었다. 한편 '08금융위기와 신종 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세계 관광시장이 축소되었던 2009년에 국내 관광시장은 별 타격을 받지 않았다.

[표 3-1] 전체 방한 외래객 추이

(단위 : 천 명, %)

방한 외래객 수					연평균 증가율				
1980	1990	2000	2010	2014	1980s	1990s	2000s	2010s	'80~'14
976	2,959	5,324	8,798	14,202	12.1	5.2	4.4	12.7	8.2



자료 : 관광 지식 정보 시스템

[그림 3-1] 전체 방한 외래객 추이

2) 급증하는 아시아인 방한 관광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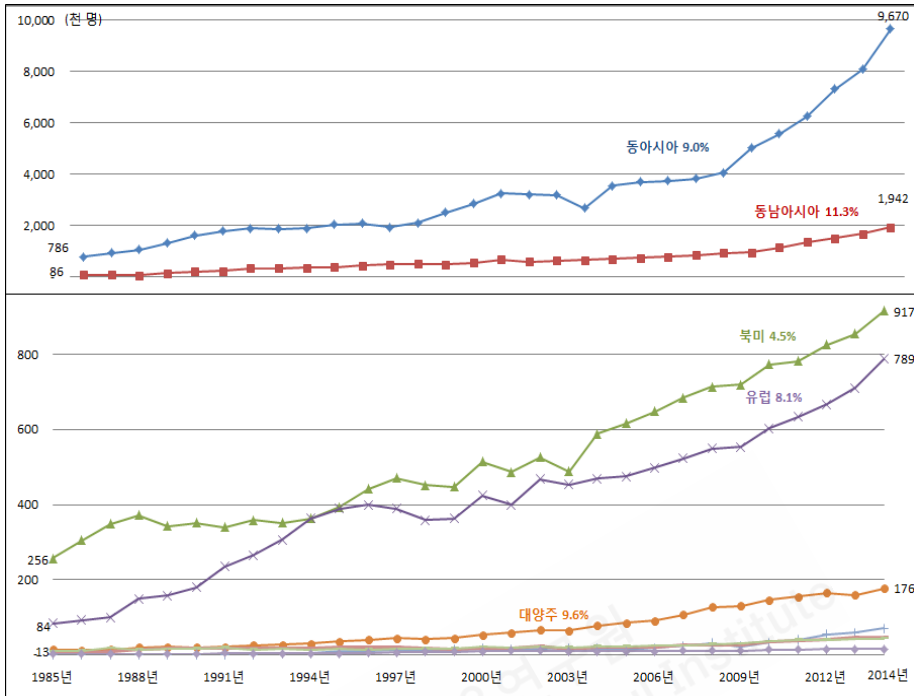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객의 출신지역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동아시아로 2014년 9.7백만 명이 방문하여 전체 외래객의 68%를 차지하였다. 또 동남아시아 관광객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14년에는 1.9백만 명이 한국을 찾았다. 뿐만 아니라 북미, 유럽, 대양주, 중앙아시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전 지역에서 한국을 찾는 외래객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방한 외래객이 급증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의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아시아지역 중 중동을 제외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객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5%, 14%, 23%로 두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북미와 유럽 외래객 역시 아시아 지역만큼은 아니지만 2000년대에 비해 2010년부터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표 3-2] 지역별 방한 외래객 추이

(단위 : 천 명, %)

지역	방한 외래객 수					연평균 증가율				
	1985	1990	2000	2010	2014	'80s	'90s	'00s	'10s	'85 ~'14
동 아시아	786	1,785	3,255	5,575	9,670	19.9	5.4	5.0	14.8	9.0
동남 아시아	86	241	681	1,145	1,942	24.2	9.7	3.8	14.1	11.3
북미	256	351	515	774	917	7.5	2.7	3.8	4.3	4.5
유럽	84	180	425	603	789	17.1	8.1	3.0	7.0	8.1
대양주	13	19	53	145	176	12.4	9.5	10.4	5.0	9.6
중앙 아시아*	-	-	15	31	70	0.0	109	4.1	22.6	36.9
중남미	5	17	15	33	46	31.2	-2.2	6.1	8.8	7.9
중동	8	16	20	35	42	16.0	0.2	4.2	5.0	5.9
아프 리카	1	1	8	13	14	9.2	20.9	2.8	3.0	9.9

*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과 1992년 1월 국교를 수립했기 때문에 1992~2014년 연평균 성장률 계산



자료 : 관광 지식 정보 시스템

[그림 3-2] 지역별 방한 외래객 추이

3) 지역별·국가별 방한 외래객 추이

(1) 2014년 동아시아 지역 최대 방한 국가는 중국

2014년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을 가장 많이 방문한 외래객의 국적은 중국이고, 다음으로는 일본 외래객이 많았다. 중국에서 한국 방문이 전면 자유화된 2000년 이후 한국을 찾는 중국인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34%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부터 중국인들의 해외여행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방한 중국 외래객도 덩달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Green Book of China’s Tourism 2011’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먼저 점진적으로 관광시장을 개방하던 중국이 2010년에 이르러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와 여행 허가지역 지위 부여(ADS : Approved Destination Status) 협정을 맺었고, 중국 전역에 사는 중국인들이 해외여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또 많은 국가들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비자발급 요건 및 절차를 단순화시킨 점 역시 중국인들의 해외여행을 촉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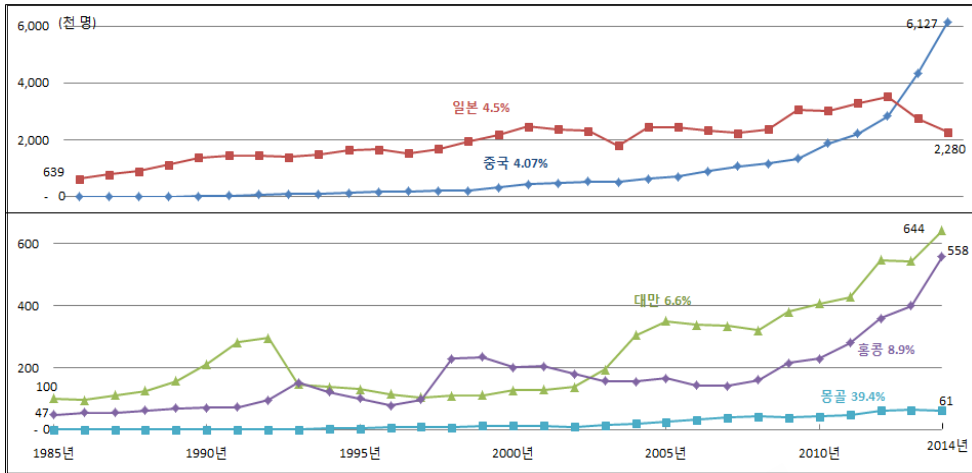
한편 한국을 찾는 일본인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1985년부터 2012년 까지 방한 외래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것도 일본인이었다. 그러나 2013년부터 방한 일본인의 수는 가파르게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아베노믹스로 인한 원화가치 절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엔화가 약세이던 2006년과 2007년에도 방한 외래객이 크게 감소한 바 있다.

일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래객의 국적은 대만과 홍콩이었다. 대만 외래객은 1992년 한-대만 수교 단절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1999년 대만에서 한국가수 클론이 인기를 끌고 2001년 한국드라마 <겨울연가>가 방영된 이후 한류 붐을 타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홍콩 외래객의 경우 2000년부터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08년부터 다시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코트라(KOTRA) 국가정보에 의하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삼성전자가 성화 봉송에 참여하고, 장애인 올림픽을 후원함으로써 홍콩인들에게 한국 기업의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또 화장품 브랜드 라네즈는 2008년부터 홍콩 모델로 송혜교를 발탁하여 매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는데 이 같은 홍콩 내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들이 방한 외래객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표 3-3] 동아시아 지역 방한 외래객 추이

(단위 : 천 명, %)

국가	방한 외래객 수					연평균 증가율				
	1985	1990	2000	2010	2014	'80s	'90s	'00s	'10s	'85 ~'14
중국	0	43	443	1,875	6,127	180.4	25.0	13.1	34.4	40.7
일본	639	1,460	2,472	3,023	2,280	21.2	4.6	2.4	-6.8	4.5
대만	100	211	127	406	644	12.0	-6.9	13.0	12.2	6.6
홍콩	47	71	201	229	558	9.8	14.3	0.8	25.0	8.9
몽골	0	0	12	42	61	-15.9	62.0	13.6	9.7	39.4



자료 : 관광 지식 정보 시스템

[그림 3-3] 동아시아 방한 외래객 추이

(2) 2014년 동남아시아 지역 최대 방한 국가는 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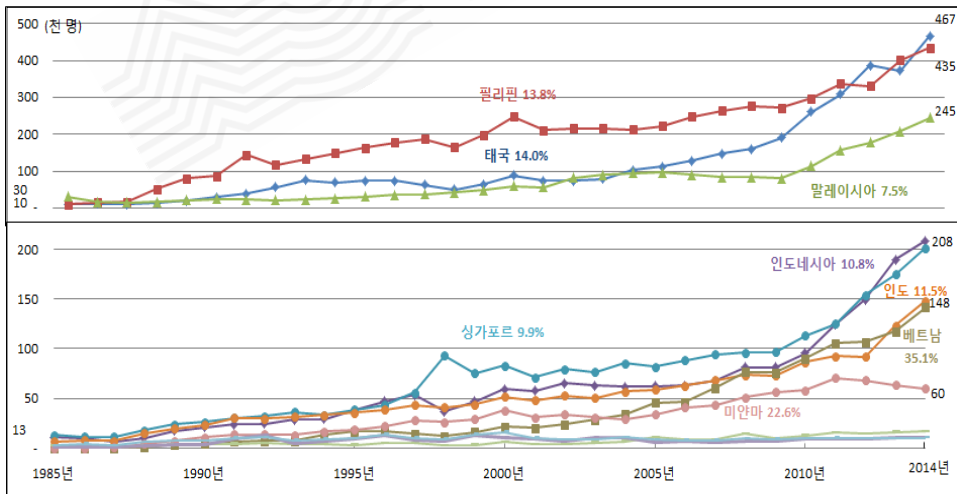
2014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을 가장 많이 방문한 외래객의 국적은 태국으로 47만 명이 방문하였고, 44만 명이 방문한 필리핀이 바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태국과 필리핀 외래객 모두 2010년 이후로 두자릿수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방한 태국인은 연평균 증가율이 16%로 빠르게 증가하여 2014년 방한 필리핀인 수를 앞질렀다. 2014년 마스터 카드에서 발행한 The future of outbound travel in Asia Pacific에 의하면 태국인은 가보고 싶은 여행지 1위로 도쿄-일본, 2위로 서울-한국, 3위로 파리-프랑스를 꼽았다. 조사에 따르면 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파리를 1위로 꼽지 않은 나라였는데, 그만큼 일본이나 한국 여행을 선호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한국 여행을 택하는 태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동남아시아 지역 방한 외래객 중 세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말레이시아인은 네 번째로 비중이 높았던 인도네시아인과 함께 2010년에서 2014년까지 20% 이상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특히 방한 인도네시아인의 경우 2010년 이전에도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는데 덕분에 2013년에 방한 싱가포르인 수를 앞질렀다.

[표 3-4] 동남아시아 지역 방한 외래객 추이

(단위 : 천 명, %)

국가	방한 외래객 수					연평균 증가율				
	1985	1990	2000	2010	2014	'80s	'90s	'00s	'10s	'85 ~'14
태국	11	29	88	261	467	16.7	9.0	9.0	15.7	14.0
필리핀	10	87	249	297	435	66.7	9.7	1.0	10.0	13.8
말레이시아	30	25	60	114	245	-9.2	7.7	3.3	21.1	7.5
인도네시아	11	21	59	95	208	12.4	9.4	3.6	21.6	10.8
싱가포르	13	26	83	113	201	16.1	12.4	1.7	15.5	9.9
인도	6	23	51	87	148	32.7	7.3	3.9	14.3	11.5
베트남	0	4	21	90	142	256.6	16.6	15.1	11.9	35.1
미얀마	0	11	38	58	60	159.1	11.9	4.5	0.8	22.6
스리랑카	2	4	6	13	16	20.4	-2.8	5.3	6.9	8.1
방글라데시	1	4	11	9	11	50.3	15.1	-4.9	4.7	10.0
파키스탄	3	7	16	9	10	27.5	7.2	-6.1	1.9	4.7
몽골	0	0	12	42	61	-15.9	62.0	13.6	9.7	39.4



자료 : 관광 지식 정보 시스템

[그림 3-4] 동남아시아 방한 외래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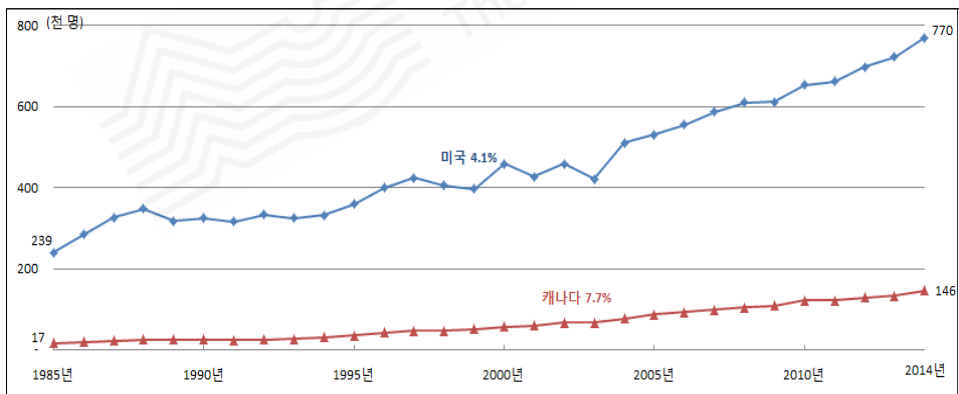
(3) 2014년 북미 지역 최대 방한 국가는 미국

북미 지역에서는 단연코 미국 외래객의 수가 가장 많았다. 2014년 미국 외래객은 77만 명으로 캐나다 외래객 15만 명에 비해 5배 이상 많았다. 그러나 1985년 미국 외래객이 24만 명으로 캐나다 외래객 1.7만 명에 비해 약 14배가량 많았던 것을 생각한다면 이 격차는 많이 좁혀진 셈이다. 실제로 1985년에서 2014년까지 방한 미국인의 연평균 증가율은 4.1%였던 반면 방한 캐나다인의 연평균 증가율은 7.7%로 더 높았다.

[표 3-5] 북미 지역 방한 외래객 추이

(단위 : 천 명, %)

	방한 외래객 수					연평균 증가율				
	1985	1990	2000	2010	2014	'80s	'90s	'00s	'10s	'85 ~'14
미국	239	325	459	653	770	7.3	2.2	3.2	4.2	4.1
캐나다	17	25	56	121	146	10.1	8.0	7.6	4.8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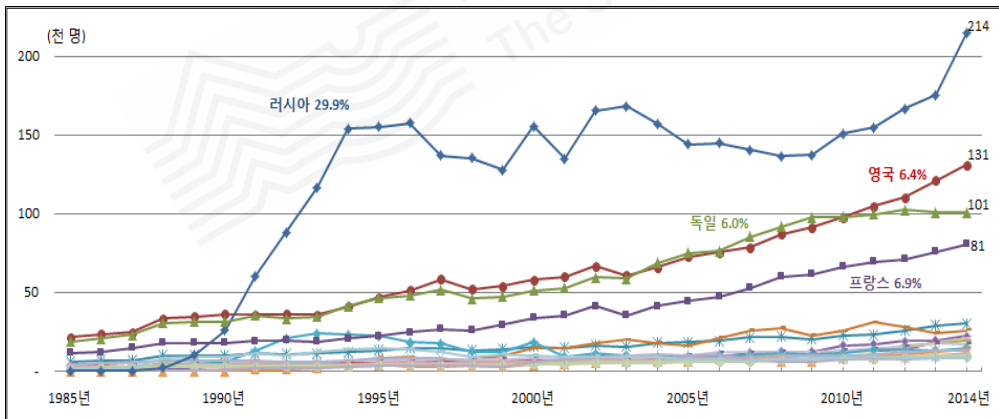
자료 : 관광 지식 정보 시스템

[그림 3-5] 북미 방한 외래객 추이

(4) 2014년 유럽 지역 최대 방한 국가는 러시아

2014년 유럽에서 한국을 가장 많이 방문한 외래객의 국적은 러시아이고, 다음으로 영국, 독일, 프랑스가 많이 방문하였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1989년부터 한국을 찾는 외래객이 증가하기 시작하다가 한-소 수교가 맺어진 1990년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1985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30%에 달한다. 러시아 외래객은 정작 사스(SARS)가 유행했던 2003년에는 감소하지 않았으나, 이듬해인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 이후 연평균 9.2%씩 증가하고 있다. 한편 2013년 18만 명이었던 방한 러시아인은 2014년 전년 대비 22% 증가한 21만 명이 되었는데 이는 한국-러시아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2014년부터 러시아인들이 비자 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4년 기준 러시아 다음으로 한국을 많이 방문한 외래객의 국적은 영국, 독일, 프랑스 순이다. 2000년대 들어 영국과 프랑스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객의 수는 2003년 SARS가 유행하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감소하지 않고 꾸준히 증가하였다.



자료 : 관광 지식 정보 시스템

[그림 3-6] 유럽 방한 외래객 추이

또 연평균 증가율 역시 방한 영국인과 프랑스인이 각각 2000년부터 2009년까지는 5.2%와 6.8%,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7.7%와 5.0%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방한 독일인의 경우 2010년부터 증가세가 정체된 모습을 보였는데, 연평균 증가율은 0.6%에 머물렀으며

2013년에는 전년 대비 1.4%가량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덕분에 2004년에서 2010년까지는 방한 독일인이 방한 영국인보다 많았으나 2011년부터는 방한 영국인의 수가 더 많아졌다.

[표 3-6] 유럽 지역 방한 외래객 추이

(단위 : 천 명, %)

국가	방한 외래객 수					연평균 증가율				
	1985	1990	2000	2010	2014	'80s	'90s	'00s	'10s	'85 ~'14
러시아	0	26	155	151	214	209.9	19.3	-1.4	9.2	29.9
영국	21	36	58	98	131	12.6	4.6	5.2	7.7	6.4
독일	19	31	51	98	101	13.9	4.7	7.5	0.6	6.0
프랑스	12	18	34	66	81	11.4	5.5	6.8	5.0	6.9
네덜란드	6	10	16	23	30	13.3	3.4	3.0	7.4	5.7
우크라이나*	-	-	15	25	26	-	50.7	4.7	0.4	18.8
터키	1	3	6	16	22	34.5	4.3	8.6	8.2	13.5
노르웨이	4	5	8	13	21	3.9	4.6	4.3	12.6	6.2
스페인	1	3	5	13	19	31.7	2.8	8.9	11.2	9.5
스웨덴	4	6	8	13	17	7.4	2.8	4.1	6.3	4.8
폴란드	0	6	18	12	15	136.3	8.3	-5.9	6.6	17.3
루마니아	0	0	4	9	14	-39.6	31.7	5.2	12.3	23.5
스위스	5	6	6	10	13	8.2	-1.1	5.2	5.7	3.5
덴마크	2	5	6	8	11	15.8	2.3	2.7	8.6	5.3
벨기에	2	3	5	8	10	11.8	4.1	3.8	5.7	5.8
불가리아	0	1	6	8	8	71.4	6.7	0.2	2.6	21.1
그리스	2	9	10	8	8	53.0	2.4	-2.5	0.9	5.7

* 우크라이나와 1992년 1월 국교를 수립했기 때문에 1992~2014년 연평균 성장률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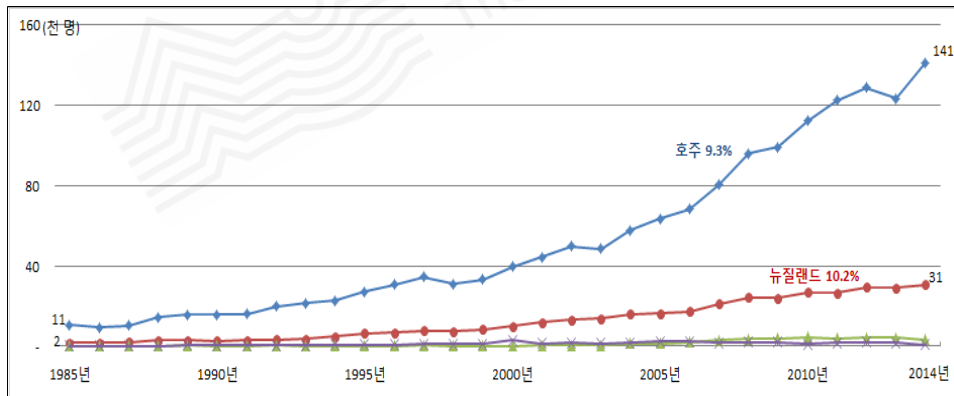
(5) 2014년 대양주 지역 최대 방한 국가는 호주

대양주에서 한국을 가장 많이 찾는 외래객의 국적은 호주로 2014년 14만 명이 한국을 방문했다. 그러나 2000년대 연평균 증가율 11%를 기록하던 방한 호주인의 수는 2010년 이후 증가세가 약해졌고, 2013년에는 오히려 감소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호주인 다음으로 한국을 많이 방문한 뉴질랜드인의 수는 1985년 2천여 명이었으나 연평균 10%씩 증가하여 2014년에는 3만 명을 초과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방한 호주인의 수가 4.5배가량 더 많다.

[표 3-7] 대양주 지역 방한 외래객 추이

(단위 : 천 명, %)

국가	방한 외래객 수					연평균 증가율				
	1985	1990	2000	2010	2014	'80s	'90s	'00s	'10s	'85 ~'14
호주	11	16	40	112	141	10.2	8.8	10.7	5.9	9.3
뉴질랜드	2	3	10	27	31	14.2	13.3	10.3	3.4	10.2
피지	0	0	0	4	3	47.1	8.4	37.1	-6.9	13.5
키리바시	0	1	3	1	1	208.1	8.3	-5.4	-7.1	17.4



자료 : 관광 지식 정보 시스템

[그림 3-7] 대양주 방한 외래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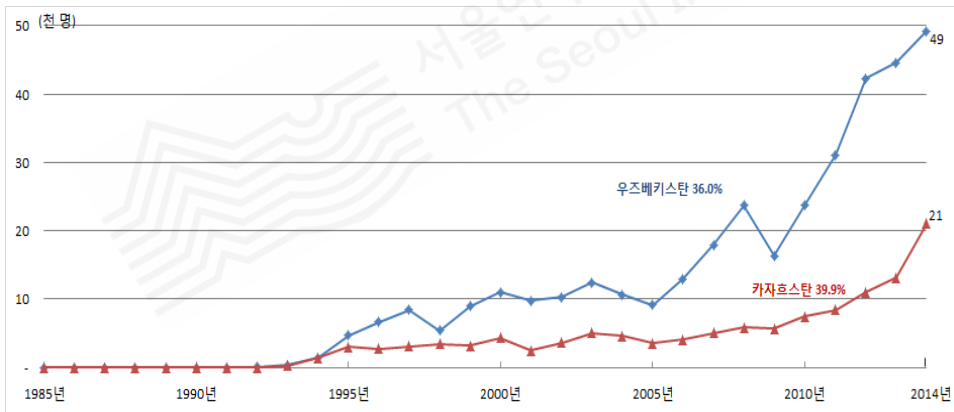
(6) 2014년 중앙아시아 지역 최대 방한 국가는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국가인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래객은 1992년 한국과 수교를 맺은 이래 각각 연평균 36%와 40%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비록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2014년 방한 우즈베키스탄인은 4.9만 명, 카자흐스탄인은 2.1만 명 수준이지만, 2010년 이후에도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중앙아시아 출신 외래객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표 3-8] 중앙아시아 지역 방한 외래객 추이

(단위 : 천 명, %)

국가	방한 외래객 수				연평균 증가율			
	1992	2000	2010	2014	'90s	'00s	'10s	'92 ~ '14
우즈베키스탄	0	11	24	49	106.1	4.5	20.0	36.0
카자흐스탄	0	4	7	21	119.5	3.0	29.8	39.9



자료 : 관광 지식 정보 시스템

[그림 3-8] 중앙아시아 방한 외래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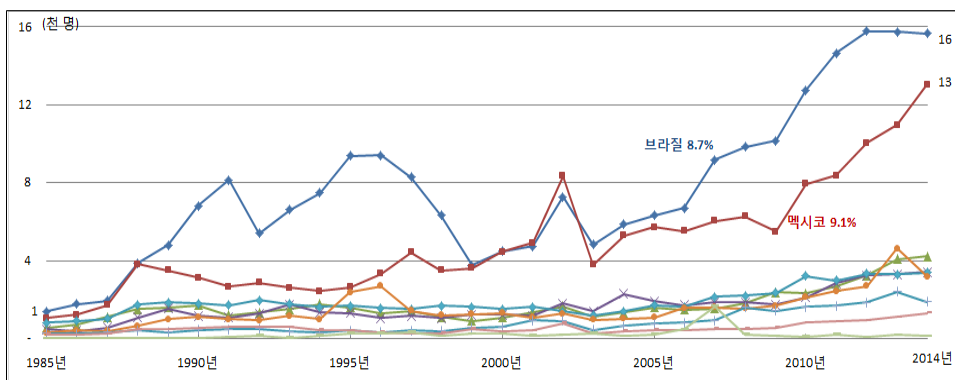
(7) 2014년 중남미 지역 최대 방한 국가는 브라질

2014년 중남미에서는 브라질과 멕시코 외래객이 한국을 많이 방문하였는데, 입국자 수는 각각 1.6만 명, 1.3만 명이었다. 두 국가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객의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긴 하나 변동폭이 크게 나타났다. 또 2010년 이후 방한 멕시코인은 다소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반면 방한 브라질인은 2013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표 3-9] 중남미 지역 방한 외래객 추이

(단위 : 천 명, %)

국가	방한 외래객 수					연평균 증가율				
	1985	1990	2000	2010	2014	'80s	'90s	'00s	'10s	'85 ~'14
브라질	1	7	4	13	16	36.4	-6.4	9.5	5.3	8.7
멕시코	1	3	4	8	13	35.1	1.6	2.3	13.2	9.1
콜롬비아	0.6	1.7	1.1	2.3	4.2	29.1	-6.8	9.1	16.3	7.1
칠레	0.5	1.2	1.2	2.1	3.4	34.2	0.5	4.1	12.9	7.0
아르헨티나	0.8	1.8	1.5	3.2	3.4	22.5	-1.1	5.1	1.5	5.0
페루	0.3	1.1	1.3	2.1	3.2	33.5	1.3	3.0	10.5	8.3
베네수엘라	0.3	0.4	0.6	1.6	1.9	5.4	2.7	10.4	4.0	6.9
에콰도르	0.2	0.5	0.4	0.8	1.3	23.5	-0.2	5.0	12.5	6.6
쿠바	0.0	0.0	0.2	0.1	0.1	5.7	35.0	-5.9	12.9	13.0



자료 : 관광 지식 정보 시스템

[그림 3-9] 중남미 방한 외래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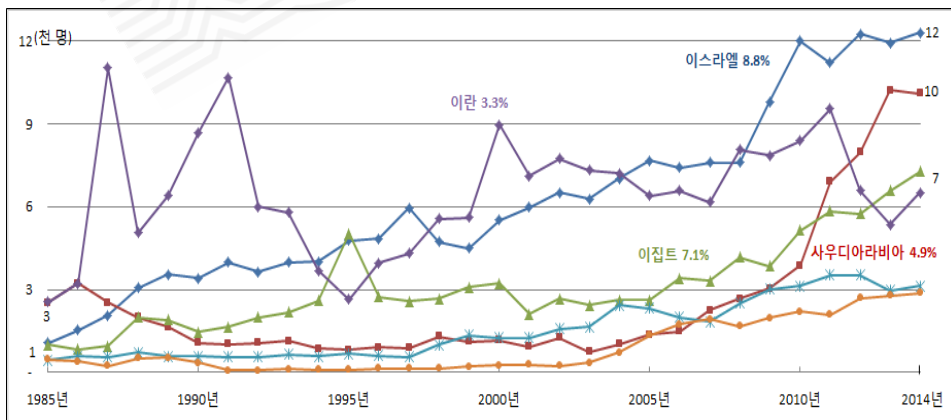
(8) 중동, 아프리카 출신 방한 외래객 추이

기복이 잦고 증감 폭이 큰 양상은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나타나는데, 중동에서는 2009년부터 크게 증가한 이스라엘인이 2014년 한국을 가장 많이 방문했고, 다음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인이 많이 방문했다. 또 아프리카에서 한국을 가장 많이 방문한 남아공 외래객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나이지리아 외래객은 오히려 2000년대 들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10] 중동 방한 외래객 추이

(단위 : 천 명, %)

국가	방한 외래객 수					연평균 증가율				
	1985	1990	2000	2010	2014	'80s	'90s	'00s	'10s	'85 ~'14
이스라엘	1	3	6	12	12	34.8	3.1	6.6	0.6	8.8
사우디아라비아	3	1	1	4	10	-10.2	0.6	11.4	27.0	4.9
이집트	1	1	3	5	7	17.3	8.6	2.0	9.1	7.1
이란	3	9	9	8	7	25.9	-4.7	-1.5	-6.1	3.3
요르단	0	1	1	3	3	7.1	9.6	10.3	-0.1	6.9
이라크	0	0	0	2	3	3.9	-5.3	25.5	6.8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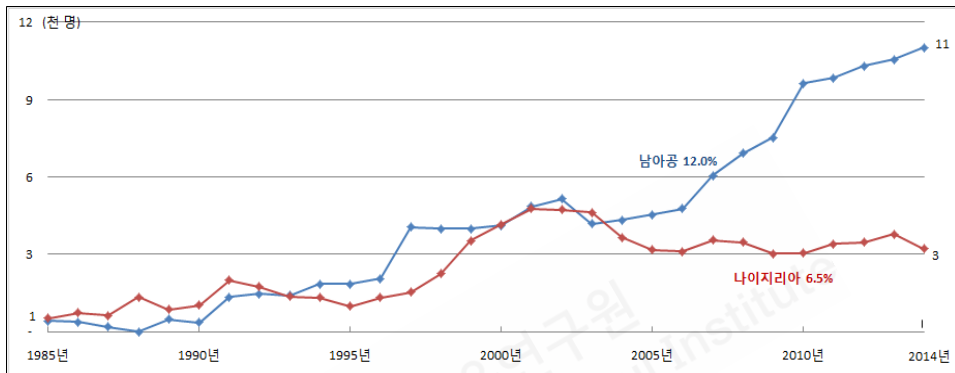
자료 : 관광 지식 정보 시스템

[그림 3-10] 중동 방한 외래객 추이

[표 3-11] 아프리카 방한 외래객 추이

(단위 : 천 명, %)

국가	방한 외래객 수					연평균 증가율				
	1985	1990	2000	2010	2014	'80s	'90s	'00s	'10s	'85 ~'14
남아프리카 공화국	0	0	4	10	11	3.4	30.9	7.0	3.4	12.0
나이지리아	1	1	4	3	3	13.2	14.9	-3.4	1.5	6.5



자료 : 관광 지식 정보 시스템

[그림 3-11] 아프리카 방한 외래객 추이

2_주요 관광시장별 방한 관광수요 변화의 특성

1) 해외 주요 관광시장은 아시아 국가들

방한 외래객 대부분의 국적은 아시아 국가들이다. 2014년 기준 방한 외래객의 국적은 중국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두 번째로 일본이 높았는데, 이 두 나라에서 온 외래객의 수가 전체 외래객의 60%가량을 차지한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한국을 많이 방문한 미국과 아홉 번째로 많이 방문한 러시아를 제외하면 아시아 국가가 방한 외래객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를 차지하고 있다.

[표 3-12] 방한 외래객 국적 순위

(단위 : 천 명, %)

순위	국가	인바운드 외래객 수				연평균 증가율		
		2000	2005	2010	2014	'00~'09	'10~'14	'00~'14
1	중국	443	710	1,875	6,127	13.1%	34.4%	20.6%
2	일본	2,472	2,440	3,023	2,280	2.4%	-6.8%	-0.6%
3	미국	459	531	653	770	3.2%	4.2%	3.8%
4	대만	127	351	406	644	13.0%	12.2%	12.3%
5	홍콩	201	166	229	558	0.8%	25.0%	7.6%
6	태국	88	113	261	467	9.0%	15.7%	12.7%
7	필리핀	249	223	297	435	1.0%	10.0%	4.1%
8	말레이시아	60	97	114	245	3.3%	21.1%	10.6%
9	러시아	155	144	151	214	-1.4%	9.2%	2.3%
10	인도네시아	59	62	95	208	3.6%	21.6%	9.4%

자료 : 관광 지식 정보 시스템

2012년 이후 급격하게 감소한 일본 외래객을 제외하면 주요 아시아 국가에서 한국을 찾는 외래객의 수는 2010년 들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0년에서 2014년까지 5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중국이 34%, 대만, 홍콩,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각각 12%, 25%, 16%, 10%, 21%, 22%였다. 한편 방한 미국인은 여타 아시아 국가들처럼 빠르진 않으나 4.2%의 연평균 증가율로 꾸준히 증가했다.

외래객 입국 순위 1위였던 일본을 밀어내고 선두로 올라선 중국처럼, 2000년 이후 두드러진 상승세를 나타내는 국가들이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불기 시작한 한류 붐으로 방한 대만인 수는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2003년에 방한 러시아인과 홍콩인 수를 앞질렀고, 2004년에는 방한 필리핀인 수를 앞질렀다. 또 방한 홍콩인은 2010년 이후 매년 평균 25%씩 증가하여 2014년에는 방한 대만인 다음으로 많은 외래객 수를 기록했다. 태국인 외래객은 2013년 잠시 감소하기도 했으나 2014년 다시 이전의 증가 추세로 복귀하였고, 방한 말레이시아인과 인도네시아인도 2010년 이후 20%대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2) 최다 방한 목적은 관광, 그다음은 기타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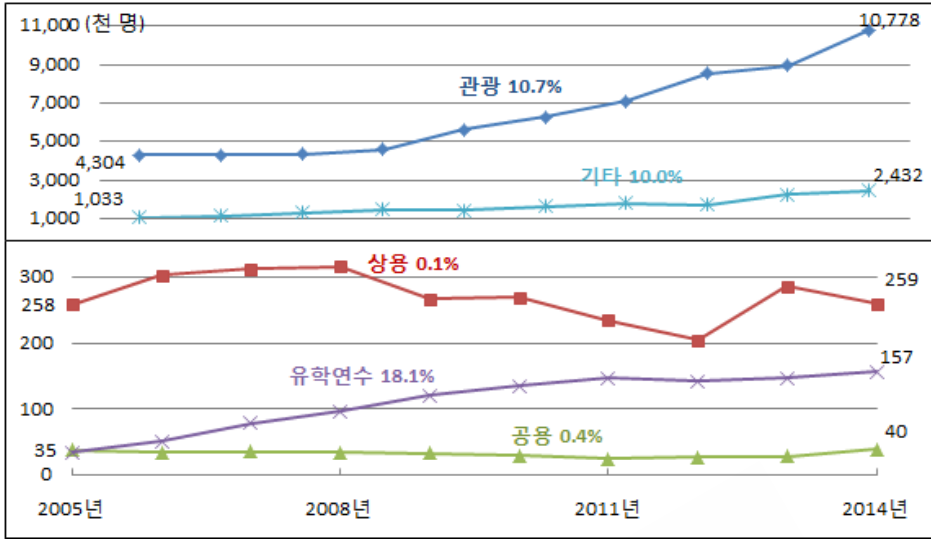
2005년에서 2014년까지 10년 동안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방문목적에 조사한 결과 주 목적이 관광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기타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입국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항공, 크루즈 등의 승무원들이 기타 목적에 포함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가파르게 증가하는 관광 목적 외래객에 비해 상용 목적 외래객은 2008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며 비록 2013년 잠시 증가하긴 하였으나 이듬해 다시 하락하였다. 이는 '08금융위기 이후 아직 세계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고, 비즈니스 목적의 외래객이 관광을 함께 즐기면서 방문 목적을 관광으로 대답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표 3-13] 목적별 방한 외래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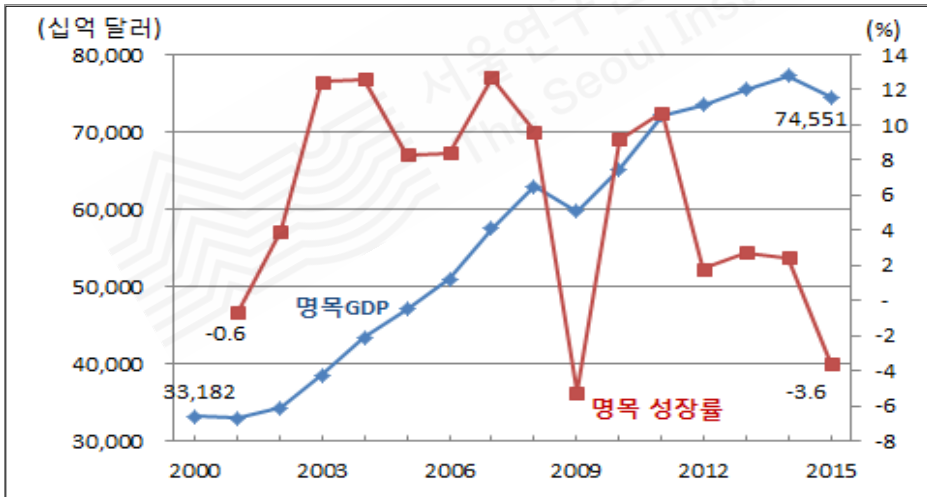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

구분	목적별 방한 외래객 수			연평균 증가율		
	2005	2010	2014	'05~'09	'10~'14	'05~'14
관광	4,304	6,293	10,778	6.9	14.4	10.7
상용	258	269	259	0.8	-0.9	0.1
공용	38	30	40	-3.4	6.9	0.4
유학연수	35	135	157	36.2	3.9	18.1
기타	1,033	1,627	2,432	8.5	10.6	10.0



자료 : 관광 지식 정보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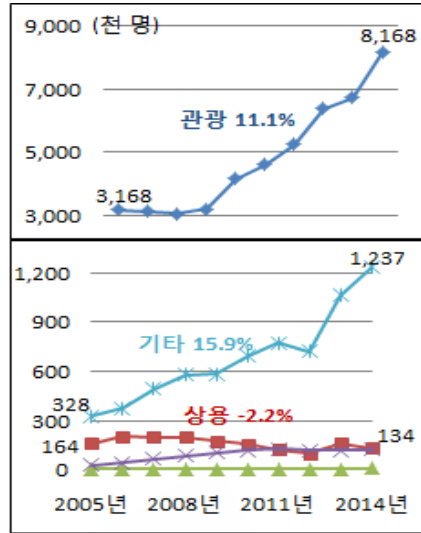
[그림 3-12] 목적별 방한 외래객 추이



자료 :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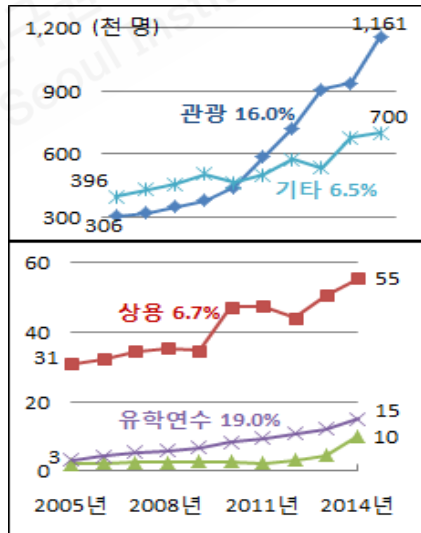
[그림 3-13] 세계 GDP 추이

지역별로 살펴보면 2005년에서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대부분의 지역에서 방문하는 외래객의 목적은 관광, 기타, 상용 순으로 많았지만 지역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였다. 먼저 동아시아의 경우 목적별 외래객 추이가 전체 외래객 추이와 유사했는데, 이는 동아시아 외래객이 전체의 68%를 차지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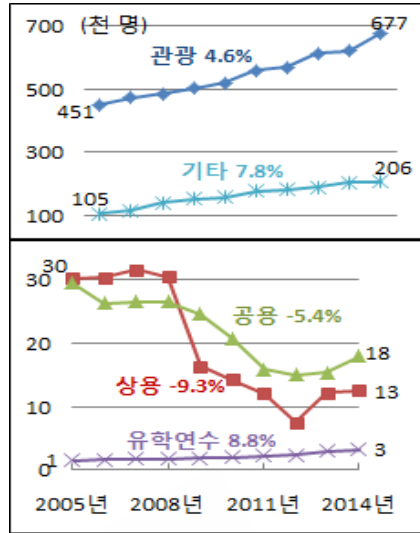
[그림 3-14] 동아시아의 목적별 방한 외래객 추이

한편 동남아시아의 경우 2009년까지는 기타 목적의 외래객이 더 많았으나 관광 목적의 외래객이 연평균 증가율 16%로 빠르게 증가하여 2010년에 기타 목적 외래객 수를 넘어섰다. 상용 목적 방문객은 2009년에 소폭 감소하긴 하였으나, 이후 2012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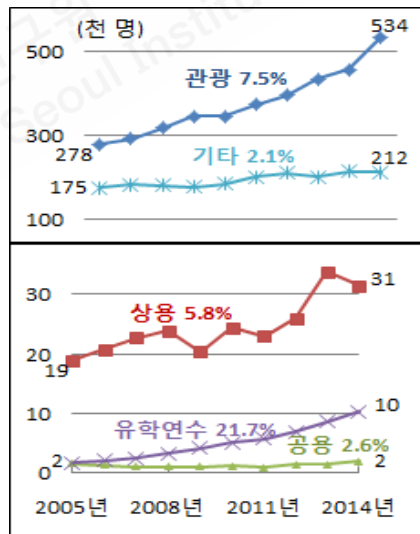
[그림 3-15] 동남아시아의 목적별 방한 외래객 추이

북미에서 한국을 찾는 외래객의 주 목적 역시 관광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타 목적이 많았다. 한편 '09년부터 상용과 공용 목적 외래객이 모두 감소했는데, 상용 목적 방한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여 공용 목적 방한 외래객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이후 2013년부터는 다시 공용과 상용 목적 방문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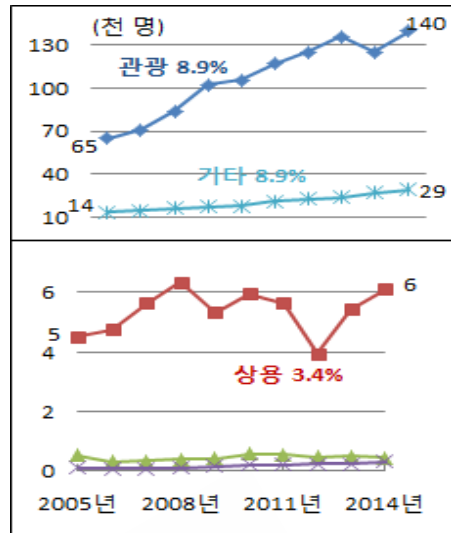
[그림 3-16] 북미의 목적별 방한 외래객 추이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관광 목적으로 방한하는 외래객이 가장 많았는데, 2009년을 제외하면 2005년부터 단 한 차례도 감소하지 않고 증가해 왔다. 한편 기타 목적 방한 외래객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연평균 2.1%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용 목적 외래객은 2009년 감소한 뒤 단기적으로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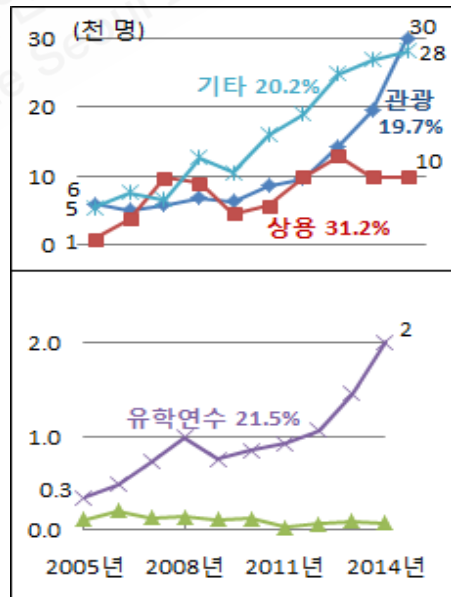
[그림 3-17] 유럽의 목적별 방한 외래객 추이

대양주에서 방한하는 외래객의 목적도 관광, 기타, 상용 순으로 많았다. 관광 목적 외래객은 2013년에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2005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왔고, 기타목적 외래객은 한 차례도 감소하지 않고 증가했다. 그러나 상용 목적 외래객은 2009년은 물론 2011년과 2012년에도 크게 감소하였다가 2013년부터 회복하기 시작하여 2014년에 들어서야 2008년에 근접한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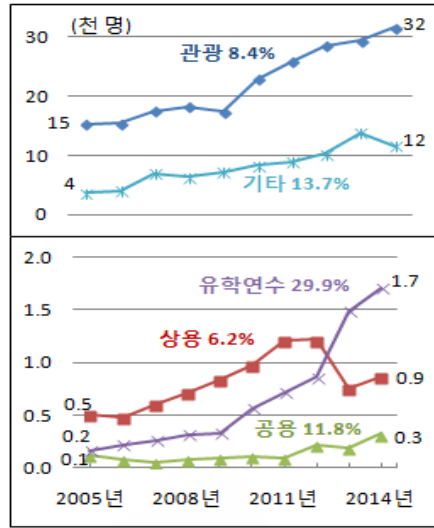
[그림 3-18] 대양주의 목적별 방한 외래객 추이

중앙아시아에서 방한하는 외래객은 특이하게도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기타 목적이 가장 많았다. 또 2014년에는 관광 목적 외래객이 더 많긴 하였지만 그 차이는 2천 명가량으로 그리 크지 않은 수준이었다. 한편 상용 목적 외래객은 2005년부터 증가하여 2007년에는 기타, 관광 목적보다 많았으나 2008년과 2009년에 감소한 뒤로 2011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기타 목적과 관광 목적 외래객보다 적은 수가 한국을 찾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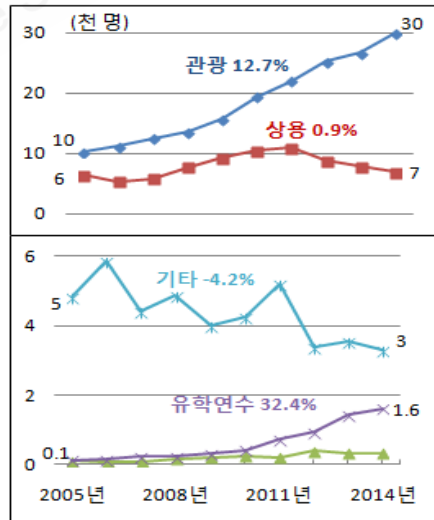
[그림 3-19] 중앙아시아의 목적별 방한 외래객 추이

중남미에서 방한하는 외래객의 목적은 관광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목적 외래객의 경우 2012년까지만 하더라도 관광, 기타 목적 다음으로 많았으나 2013년 대폭 감소하였고 대신 같은 해에 유학연수목적 외래객이 크게 증가하여 상용목적 외래객의 수를 앞질렀다.



[그림 3-20] 중남미의 목적별 방한 외래객 추이

중동에서 방한하는 외래객은 관광 목적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상용 목적과 기타 목적 외래객이 많았다. 한편 관광 목적 외래객이 증가하면서 기타 목적 외래객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던 대부분의 지역들과는 달리 기타 목적 입국은 연평균 4.2%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상용 목적 입국 역시 2012년부터 3년 연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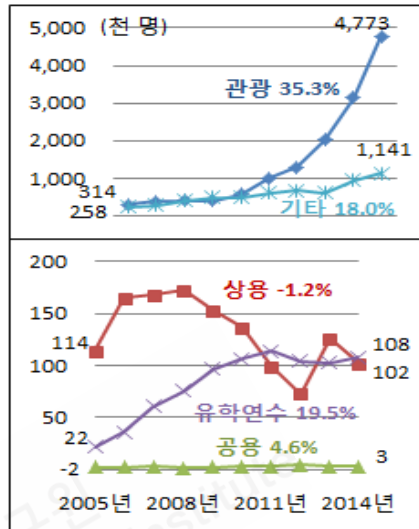


[그림 3-21] 중동의 목적별 방한 외래객 추이

3) 해외 주요 국가별 방한 목적 변화

(1)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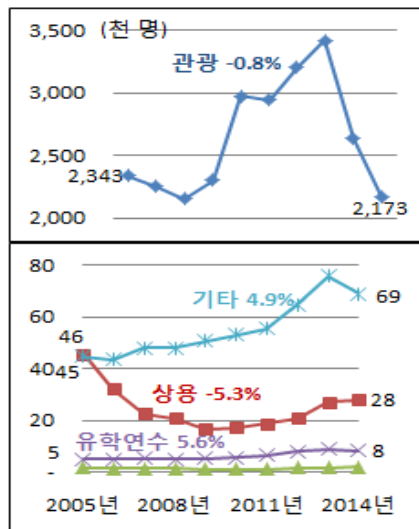
2014년 관광 목적 방한 중국인은 4.8백만 명으로 31만 명이었던 2005년부터 매년 평균 35%씩 증가해 왔다. 특히 중국의 전체 아웃바운드 관광객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2010년부터는 한국행 관광객의 증가세 역시 빨라졌는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관광 목적 외래객의 연평균 증가율은 47%였다. 관광 다음으로는 기타 목적 방한이 많았는데, 2014년에는 1.1백만 명이 입국하였다. 상용 목적 방한의 경우 2008년 이후 줄곧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 잠시 증가하였으나 2014년에 다시 감소하였다. 한편 2005년에서 2009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45%를 기록하며 빠르게 증가했던 유학연수 목적 방한은 2011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림 3-22] 중국의 목적별 방한 외래객 추이

(2) 일본

2014년 관광 목적 방한 일본인은 2.2백만 명으로 2005년 2.3백만 명이었던 것보다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08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오히려 크게 증가하였다. 이후 2012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후 다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기타 목적 방문객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 역시 2014년에는 감소했다. 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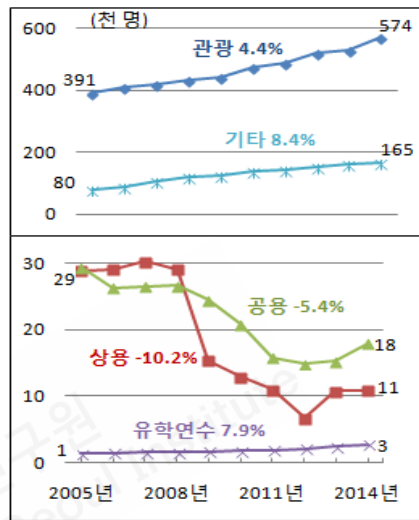


[그림 3-23] 일본의 목적별 방한 외래객 추이

상용 목적 외래객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0년부터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3)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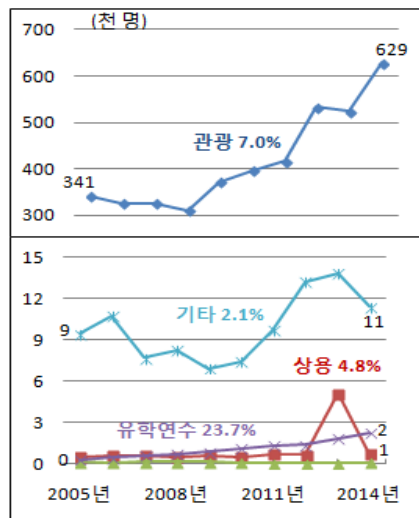
2005년 39만 명이던 관광 목적 방한 미국인의 수는 단 한 차례도 감소하지 않고 매년 평균 4.4%씩 증가하여 2014년에는 57만 명을 초과했다. 기타 목적 외래객 역시 연평균 증가율 8.4%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16.5만 명에 도달했다. 그러나 상용 목적 외래객은 2007년부터 큰 폭으로 감소하다가 2013년에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공용 목적 외래객은 2013년 전까지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였다. 유학연수 목적 외래객은 큰 숫자는 아니지만 연평균 7.9%씩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림 3-24] 미국의 목적별 방한 외래객 추이

(4) 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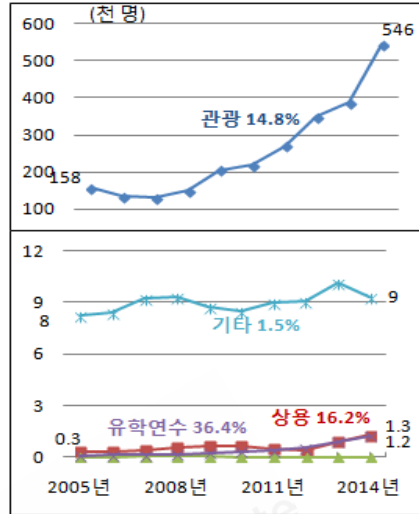
관광 목적 방한 대만인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감소해 왔으나, 2009년부터 빠르게 증가하여 2014년에는 63만 명에 이르렀다. 한편 기타 목적 외래객은 2009년까지는 증감을 반복하며 감소하다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2013년을 제외하고는 상용 목적보다 유학연수 목적으로 방한하는 외래객이 더 많았는데, 2014년 유학연수 목적 방한 대만인은 2.3천 명으로 그 수가 많진 않았으나 연평균 증가율은 23.7%로 상당히 높다.



[그림 3-25] 대만의 목적별 방한 외래객 추이

(5) 홍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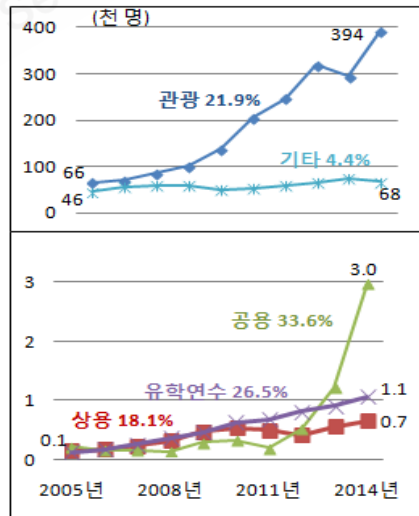
관광 목적 방한 홍콩인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201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 특히 2010년 이후 더 빠르게 증가하였는데 매년 평균 26%씩 증가하여 2014년에는 55만 명에 이르렀다. 관광 목적 다음으로 많은 기타 목적 방한 홍콩인은 9천 명 내외로 증감을 반복하며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상용과 유학연수 목적 외래객은 2012년부터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나 수 자체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그림 3-26] 홍콩의 목적별 방한 외래객 추이

(6) 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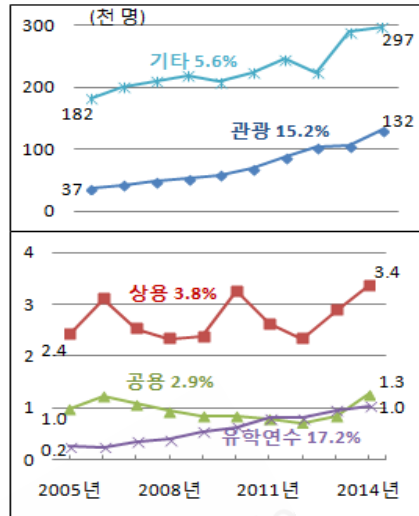
관광 목적 방한 태국인은 2013년을 제외하고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2005년 6.6만 명이었으나 매년 평균 22%씩 증가하여 2014년에는 39만 명을 초과하였다. 기타 목적 외래객의 경우 2008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해 오다가 2014년 들어 소폭 감소하였다. 한편 2011년 이후 공용 목적 외래객의 증가가 눈에 띄는데, 2011년에는 2백여 명 정도였으나 2014년 3천 명이 되어 15배가량 증가하였다.



[그림 3-27] 태국의 목적별 방한 외래객 추이

(7) 필리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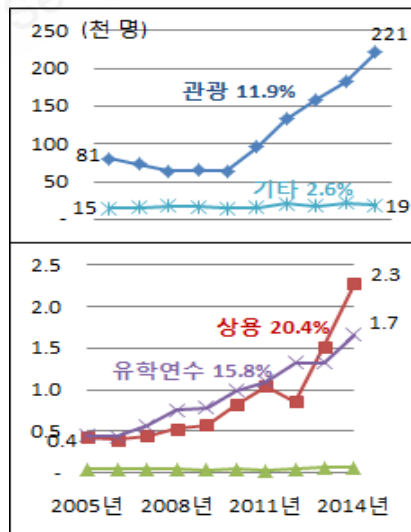
특이하게도 필리핀은 기타 목적으로 방한한 외래객 수가 관광 목적 외래객보다 더 많았다. 그러나 그 차이는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2005년 기타 목적 외래객은 18.2만 명으로 관광 목적 외래객 3.7만 명에 비해 5배 가까이 많았지만 2014년에는 기타 목적 외래객이 30만 명, 관광 목적 외래객이 13.2만 명으로 그 차이가 2배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좁혀졌다. 한편 상용 목적 외래객은 3천 명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3-28] 필리핀의 목적별 방한 외래객 추이

(8) 말레이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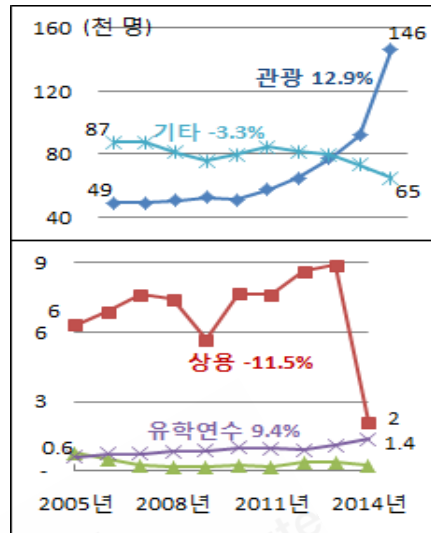
관광 목적 방한 말레이시아인은 2005년 이후 2009년까지 매년 평균 5.6%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0년부터 연평균 증가율이 23%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4년 22만 명을 초과하였다. 기타 목적 외래객은 증감을 반복하며 증가하는 추세이고, 증가추세이던 상용 목적 외래객은 2012년에 감소한 뒤 2013년부터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16%로 증가하던 유학연수 목적 외래객을 앞질렀다.



[그림 3-29] 말레이시아의 목적별 방한 외래객 추이

(9) 러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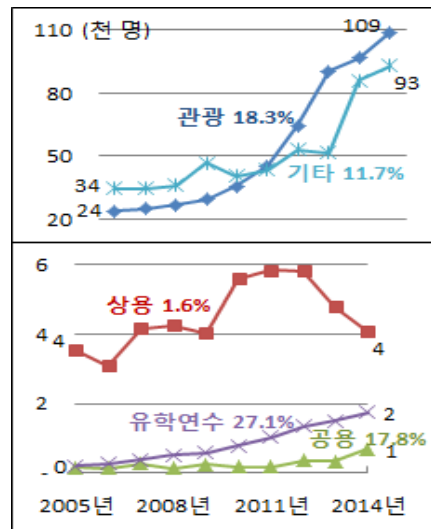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관광 목적 방한 러시아인은 기타 목적 방한 러시아인보다 적었지만, 기타 목적 외래객이 2010년 이후 감소하고 관광 목적 외래객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에 관광 목적 외래객이 더 많아졌다. 한편 2014년 상용 목적 외래객은 전년의 1/4 수준으로 감소하고, 관광 목적 외래객은 전년 대비 60%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는 한-러 간의 비자면제협정 체결로 2014년 1월 1일부터 방한 러시아인이 비자 없이 60일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3-30] 러시아의 목적별 방한 외래객 추이

(10) 인도네시아

관광 목적 방한 인도네시아인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한해도 감소하지 않고 매년 평균 18%씩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덕분에 관광 목적 외래객은 2009년까지만 해도 기타 목적 외래객에 비해 적었지만 2010년 기타 목적 외래객 수를 초과하였다. 한편 2006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던 상용 목적 외래객은 2013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유학연수 목적 외래객은 수 자체는 적지만 다른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외래객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빠르게 증가하였는데,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27%에 달했다.



[그림 3-31] 인도네시아의 목적별 방한 외래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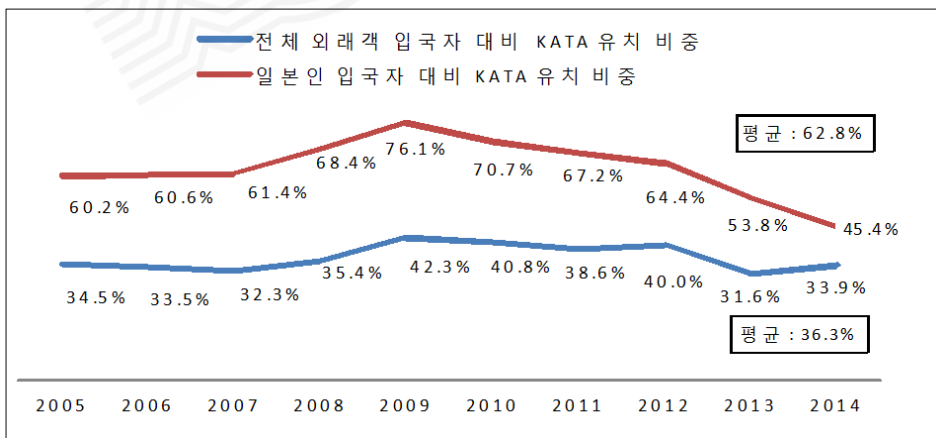
3_주요 방한 관광시장 변화의 원인과 전망

1)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방한 일본인 감소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10년간 일본인 외래객 중 KATA(한국여행업협회) 회원사의 유치 비중은 평균 62%로 전체 외래객 대비 KATA 유치 비중인 36%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타 국가에 비해 일본 시장에 대한 여행사의 공헌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방한 일본인 대비 KATA 유치 비중은 2009년 정점을 찍은 뒤 점차 감소하여 2014년 45%까지 하락하였고, 특히 2012년 이후부터는 전년 대비 15% 이상씩 가파르게 하락하였다. 따라서 방한 일본인 감소 원인 중 하나로 여행사의 모객(募客) 감소를 들 수 있다.

일본에서 여행 패키지 상품의 주 소비층은 단카이 세대라고 불리는 베이비붐 세대였는데, 이들의 본격적인 은퇴와 장기화된 경제 위축이 패키지 상품 구매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2년 이후 시작된 연화가치의 급락은 이러한 경향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의 실업률은 경기 순환보다는 매년 신규 졸업자와 정년 퇴직자 수의 차이에 영향을 받아왔고, 그에 따라 개인소득의 총액이 달라져 왔다. 따라서 단카이 세대가 은퇴함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취업자 수 감소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의 소비 축소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 한국여행업협회 매출통계 시스템

[그림 3-32] KATA 회원사 외래객 유치 비중

2) 소득과 환율이 방한 관광 수요에 미치는 영향

(1) 환율의 영향을 받는 방한 일본인

국제관광 수요는 문화, 종교, 역사 등 다양한 맥락의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유행성 질병, 테러, 금융위기와 같은 단발적인 요인이 국제관광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을 꼽으라면 소득과 비용을 꼽을 수 있다. 소득이 증가할 때 국제관광 수요 역시 증가할 것이고 비용이 증가하면 수요는 감소할 것이다.

국제관광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환율이 있다. 자국 화폐 가치가 목적지 화폐에 비해 절상될 경우 목적지 물가는 낮아질 것이고, 반대로 자국 화폐 가치가 평가 절하될 경우 목적지의 물가가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율이 관광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자국 및 도착국가 화폐 사이의 교환 비율을 알아야 하는데, 이 상대 환율은 기축통화에 대한 각국의 환율을 이용하여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한편 환율제도는 국가와 시기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1964년 이전까지 고정환율제도를 운용하였으나, 이후 고정환율제도와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중간단계환율제도를 운용하였고,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였다. 반대로 홍콩은 1983년 이후 현재까지 미화 1달러당 7.8홍콩달러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홍콩과 같이 고정환율제도를 취하고 있는 나라라 하더라도 변동환율제도를 택하고 있는 한국의 원화 대비 환율을 구하면 변동하는 상대 환율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2014년 국제통화기금(IMF)이 각국 중앙은행의 발표와는 별개로 환율 변동 신축성에 근거하여 분류한 비에 따르면 방한 외래객 수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0개 국가 중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운용되고 있는 제도는 변동환율제도이다. 그중 시장 자율성이 가장 높은 자유변동환율제도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며, 중국은 중간단계 환율제도를, 홍콩과 러시아는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표 3-14] 해외 주요시장별 2014년 환율제도

국가	환율제도	설명
중국	관리변동 (크롤링페그)	중간단계환율제도로 환율이 통계적으로 일정한 추세에서 2% 이내로 변동하도록 제한하여 6개월 이상 유지
일본	자유변동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하나, 정책당국의 제한적 시장 개입은 허용
대만	관리변동	환율이 정책당국이 정한 적정 범위에서만 신축적으로 움직이도록 조치
홍콩	고정(페그)	자국 통화의 환율을 기축통화에 고정시킨 후 외화 준비자산 범위 내에서만 화폐발행을 허용
태국	변동	환율이 정책당국이 정한 적정 범위에서만 신축적으로 움직이도록 조치
필리핀	변동	환율이 정책당국이 정한 적정 범위에서만 신축적으로 움직이도록 조치
말레이시아	변동	환율이 정책당국이 정한 적정 범위에서만 신축적으로 움직이도록 조치
러시아	고정(페그)	중간단계환율제도로 자국 통화를 기축통화나 복수 통화 바스켓에 연동시켜 고정
인도네시아	변동	환율이 정책당국이 정한 적정 범위에서만 신축적으로 움직이도록 조치

* IMF는 2009년 환율제도를 재분류하면서 관리변동환율제도의 범위를 넓히고 변동환율제도로 명칭을 바꿈

자료 : IMF, 대만 중앙은행

주요 방한 관광시장의 외래객과 대원화 환율 사이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원-엔 환율과 방한 일본인 수 사이에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992년 이후부터는 거의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원화 가치가 절하되면 일본인 외래객의 수가 증가함을 나타낸다. 한편 다른 국가의 경우 환율과 외래객을 절대적인 수치로만 비교한 그래프상으로는 특별한 관련성을 찾기 어려웠다. 따라서 그래프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을 찾아보기 위해 뒤이은 섹션에서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자료 : 한국은행, 세계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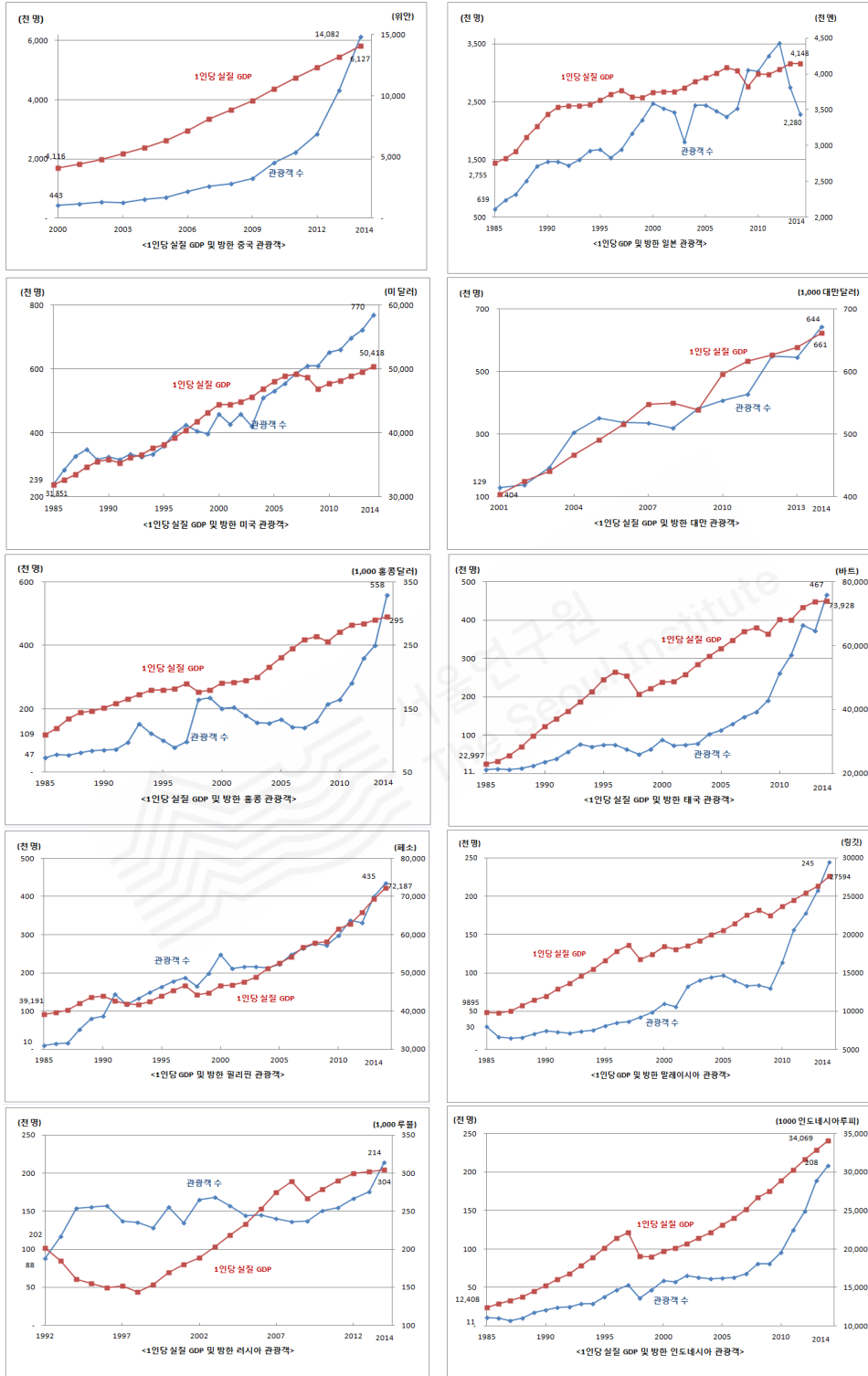
[그림 3-33] 해외 주요시장별 환율 변동과 방한 외래객 흐름

(2) 소득은 여러 국가의 방한수요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해외여행 수요는 정상재이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한다고 해서 그것이 방한 수요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 대신 일본행이나 중국행을 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4년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한 외래객이 한국과 함께 방문을 검토했던 국가는 일본이 4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태국, 중국, 대만 순으로 많았다. 즉 이들 국가로의 여행이 한국여행의 대체재가 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각국의 소득 증가가 방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지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득에 해당하는 변수로는 1인당 실질 GDP를 사용하였다. 명목 GDP의 경우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변동하는 통화 가치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고 보다 정확하게 당시 경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중국, 일본, 미국, 대만, 홍콩,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해외 주요 방한 시장에 해당하는 10개 국가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시기에 따라 소득과 방한 외래객 수가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했으나, 대체로 소득과 방한 관광객 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다만 홍콩의 경우 2006년까지는 입국객과 소득이 크게 관계가 없어 보이나 방한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2007년 이후부터는 동일한 추세를 보였고, 러시아의 경우 2009년부터 1인당 실질 GDP와 방한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그래프를 이용한 분석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소득의 증가 정도와 방한 외래객 수의 증가 정도는 같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래프를 통해서는 두 변수의 증감 방향을 비교할 수 있을 뿐, 소득의 증가율이 방한 외래객 증가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해외여행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득 하나뿐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요인을 함께 고려했을 때 소득과 방한 외래객 사이의 관계가 변할 수도 있다. 한편 변수들 추세를 이용한 그래프상에서 방한 수요와 소득 사이에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던 홍콩과 러시아 외래객의 경우, 로그를 취하는 방법으로 변형을 가해주면 상관관계가 나타날 수도 있다.



자료: IMF, 관광 지식 정보 시스템

[그림 3-34] 해외 주요시장별 방한 외래객 및 1인당 실질 GDP

3) 회귀분석 결과 소득은 방한 관광수요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1) 회귀분석 방법

거시경제 변수를 중심으로 국제관광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위해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로는 방한 외래객 수를 두고 독립변수로는 대원화 환율, 1인당 실질 GDP, 가변수인 SARS 변수를 사용하여 각 나라별로 분석을 실시했다. 1인당 실질 GDP는 각국의 화폐단위로 나타낸 값을 사용하여 환율과 함께 독립변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관광시장은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SARS의 영향은 지속되지 않고 단발적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SARS는 2002년 11월 중국 광둥성에서 발생하여 홍콩을 거쳐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비록 국내에서 유행하진 않았지만 2003년 7월 종료가 선언될 때까지 약 77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중국과 홍콩은 각각 349명과 299명의 사망자를 냈다. 이에 따른 방한 수요의 영향은 긍정적인 수도, 부정적인 수도 있다. 인근 국가가 큰 타격을 받은 탓에 한국을 찾는 발걸음까지 덩달아 끊길 수도 있지만, 중국과 홍콩 대신 한국을 찾는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다. 비록 2003년 전체 방한 수요는 감소하긴 하였지만, 국가별로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분석은 자연로그를 취해 로그 변환한 변수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모두 로그 변환하는 경우, 분석 결과로 주어지는 계수는 독립변수가 1% 변화할 때 변화하는 종속변수의 비율(%), 즉 탄력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추세가 지수함수 형태인 경우 로그를 취함으로써 이를 선형함수로 변환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가별 방한 외래객 추이는 대부분 과거보다 최근 들어 더 빠르게 증가하는 지수함수 형태를 띠고 있어 로그를 취해 사용하기에 적절하다.

분석기간은 방한 중국인의 경우 전면 해외여행 자유화가 이루어진 2008년, 일본인은 1985년, 미국과 대만인은 2000년, 홍콩인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로 하였다. 분석기간을 다르게 설정한 이유는 먼저 중국의 경우 2008년이 되어야 해외여행 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미국의 경우 IMF 외환위기 이후 환율 추이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또 1992년에 한국이 대만과 일방적으로 수교를 단절하면서 크게 감소한 방한 대만인이 1999년에는

한국 가수 <클론>이, 2001년에는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가 대만에서 인기를 끌면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방한 홍콩인의 경우 2007년을 기점으로 추이가 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2) 분석 결과

분석 결과 먼저 중국인 방한 외래객은 1인당 실질 GDP와 유의수준 1% 내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1인당 실질 GDP가 1% 증가하면 방한 중국인은 3.6% 증가한다. 한편 대원화 환율과는 유의미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기간이 2008년부터인 관계로 SARS의 영향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았다.

일본인 방한 외래객의 경우 1인당 실질 GDP 및 대원화 환율과 유의수준 1% 내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고, SARS와 유의수준 5% 내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일본의 1인당 실질 GDP가 1% 증가할 때마다 방한 일본인 수는 2% 증가하며, 대원화 환율이 1% 증가할 때마다 방한 일본인 수는 0.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SARS가 본격적으로 유행한 2003년 방한 일본인의 수는 본래 추세보다 22% 감소하였다.

미국인 방한 외래객 역시 1인당 실질 GDP 및 대원화 환율과 유의수준 1% 내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고, SARS와 유의수준 5% 내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미국의 1인당 실질 GDP가 1% 증가할 때마다 방한 미국인 수는 5.5% 증가하며, 대원화 환율이 1% 증가할 때마다 방한 미국인 수는 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SARS가 본격적으로 유행한 2003년 방한 미국인의 수는 본래 추세보다 15% 감소하였다.

대만인 방한 외래객은 1인당 실질 GDP와 유의수준 1% 내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의 1인당 실질 GDP가 1% 증가하면 방한 대만인은 3% 증가한다. 한편 대원화 환율과는 유의미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ARS가 유행한 해에도 방한 대만인은 별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인 방한 외래객은 1인당 실질 GDP와 유의수준 1% 내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의 1인당 실질 GDP가 1% 증가하면 방한 홍콩인은 7.8% 증가한다. 한편 대원화 환율과는 유의미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기간이 2007년부터인

관계로 SARS의 영향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았다.

[표 3-15] 로그 변환한 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

구분	중국	일본	미국	대만	홍콩
1인당 실질 GDP	3.58*** (0.317)	1.998*** (0.297)	5.541*** (0.628)	3.044*** (0.296)	7.797*** (1.223)
대원화 환율	-1.146 (1.503)	0.597*** (0.0924)	0.98*** (0.26)	-5.99 (0.506)	1.283 (0.691)
SARS	주) 2 참조	-0.248** (0.106)	-0.157** (0.0709)	0.0452 (0.191)	주) 2 참조
cons	-12.8 (5.439)	-19.77*** (4.006)	-53.28*** (8.13)	-25.3*** (4.225)	-91.49*** (16.05)
N	7	30	15	15	8
adj. R-sq	0.971	0.938	0.884	0.919	0.877

* p<0.10 ** p<0.05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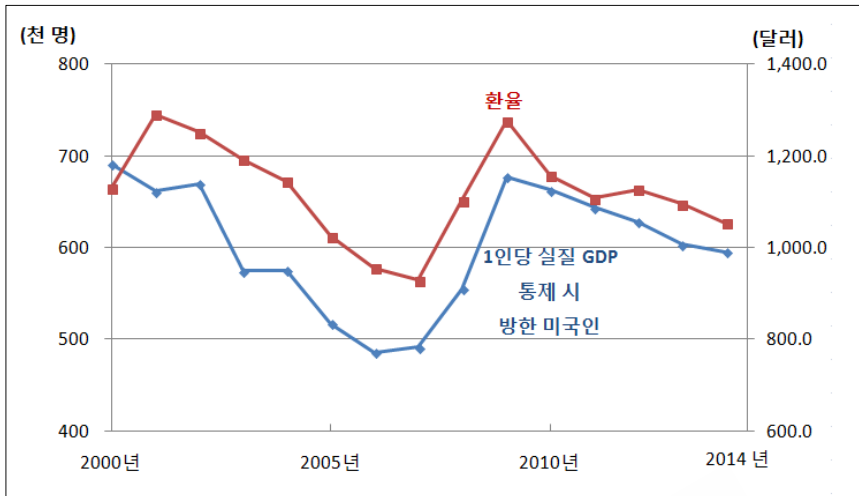
주) 1. () 수치는 표준오차

주) 2. 방한 중국인은 2008년, 방한 홍콩인은 2007년 이후의 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SARS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음

방한 일본인과 환율의 관계는 그래프상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던 반면, 방한 미국인과 환율의 관계는 그래프만으로는 파악이 불가능했다. 이는 환율과 1인당 GDP의 영향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이를 분리해서 살펴보기 위하여 방한 미국인, 환율, 1인당 실질 GDP를 수준변수 상태로 두고 회귀분석을 실시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USA = 68.83GDP + 543.06EX - 3294996$$

이때 USA는 방한 미국인, GDP는 미국의 1인당 실질 GDP, EX는 달러의 대원화 환율이다. 이 식을 이용하여 1인당 실질 GDP의 영향을 제거하고 나면, 1인당 실질 GDP가 통제되었을 때 방한 미국인과 환율이 동일한 추세로 움직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림 3-35] 1인당 실질 GDP 통제 시 방한 미국인

4_방한 관광시장의 향후 전망

1) 예측 방법

방한 외래객의 수를 전망하기 위한 방법으로 회귀분석과 곡선적합(Curve Fitting) 기법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을 이용한 예측방법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방한 외래객 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1인당 실질 GDP, 대원화 환율 등 독립변수들의 전망치도 필요하다. 한편 곡선적합기법은 실측치의 추세를 이용하여 미래를 전망하는 방법으로 가장 실제 추세에 가까운 함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현재 상황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이 꼭 필요하다.

먼저 회귀분석 전망의 경우 다행히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경제변수들에 대한 전망치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여 미래 방한 외래객 수를 추정할 수 있었다. 국제통화기금은 2020년까지 각국의 실질 GDP와 인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1인당 실질 GDP를 구하였다. 한편 방한 일본인과 방한 미국인의 전망치를 구하려면 대원화 환율의 전망치가 필요한데, 이는 홍콩-상하이 은행(HSBC)과 Trading Economy에서 제공하는 주요국들의 대미달러 환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한편 회귀분석은 로그변수를 이용하여 실시하였기 때문에 전망치는 지수 처리하여 수준

값으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

곡선적합기법을 사용하기 위한 추세함수는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최소자승법이란 추정치와 실측치의 차, 즉 잔차를 제곱하여 합산한 총계가 최소가 되는 함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잔차를 r_i , 잔차의 총계를 Q , i 년도의 실제 방한 외래객의 수를 y_i , 추정치를 $f(x_i)$ 라고 하면 최소자승법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x 는 분석에 사용된 최초 연도를 1로 하여 매년 1씩 증가하는 값이다.

$$\min Q = \min \sum_i^n r_i^2 = \min \sum_i^n (y_i - f(x_i))$$

중국, 일본, 미국, 대만, 홍콩에서 한국을 방문한 외래객과 전체 방한 외래객의 추세는 선형에 가깝거나 지수함수의 형태를 보인다. 따라서 추세 함수가 $f(x) = a_1x + a_2$ 와 같이 선형으로 증가할 경우와 $f(x) = b_1e^{b_2x} + b_3$ 와 같이 지수함수 형태로 증가할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잔차 제곱의 합이 가장 작은 함수 형태와 계수의 값을 찾았다. 그 결과 방한 일본인은 선형 추세를 따르고 있었으며 나머지 4개 국적 및 전체 외래객, 주요 5개 국적 외래객의 합계 값의 경우 지수함수 형태의 추세를 따르고 있었다.

한편 전체 방한 외래객의 경우 두 가지 추세함수를 써서 낙관적 전망과 비관적 전망으로 나누었고, 주요 5개 국적 외래객의 경우 먼저 실측치를 합산한 후 이에 대한 추세 함수를 구하였다. 국적별 추세함수를 구할 때 사용한 기간은 회귀분석 때와 동일하다.

[표 3-16] 방한 외래객 추세함수

구분	추세 함수	
	전체 방한 외래객	낙관적 전망
보수적 전망		$f(x) = 1521886e^{0.07x} + 3$
주요 5개 국적 외래객	$f(x) = 155e^{0.13x} + 1606111$	
방한 중국인	$f(x) = 1897e^{0.267x}$	
방한 일본인	$f(x) = 76161x + 81974$	
방한 미국인	$f(x) = 96565e^{0.06x} + 180023$	
방한 대만인	$f(x) = 165319e^{0.09x}$	
방한 홍콩인	$f(x) = 85e^{0.28x} + 855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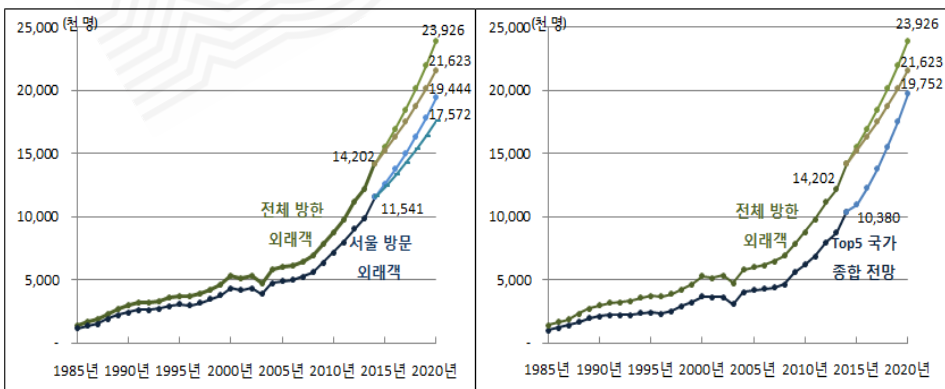
2) 예측 결과

전체 방한 외래객을 곡선적합기법을 사용하여 예측한 결과 2016년에 총 16.4백만~17백만 명의 외래객이 한국을 방문하고, 연평균 7.2~9.0%씩 증가하여 2020년에는 22백만~24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2년에서 2014년 외래객의 서울 방문율은 각각 82.5%, 80.9%, 80.4%였는데, 이를 평균하여 적용하면 2020년 서울을 찾는 외국인은 17.6백만~19.4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주요 5개 국적의 외래객을 합산하여 추세를 구한 결과 2016년에는 12.3백만 명, 2020년에는 19.8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연평균 증가율은 13%로 전체 방한 외래객 모두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17】 전체 방한 외래객, 서울 방문 외래객, 주요 5개 국적 방한 외래객 전망

(단위 : 천 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가율
한국	낙관적	16,962	18,485	20,145	21,954	23,926	9.0
	보수적	16,353	17,536	18,804	20,164	21,623	7.2
서울	낙관적	13,785	15,022	16,371	17,842	19,444	9.0
	보수적	13,289	14,251	15,281	16,387	17,572	7.2
주요 5개 국적		12,293	13,805	15,531	17,502	19,752	12.6



【그림 3-36】 전체 방한 외래객, 서울 방문 외래객, 주요 5개 국적 방한 외래객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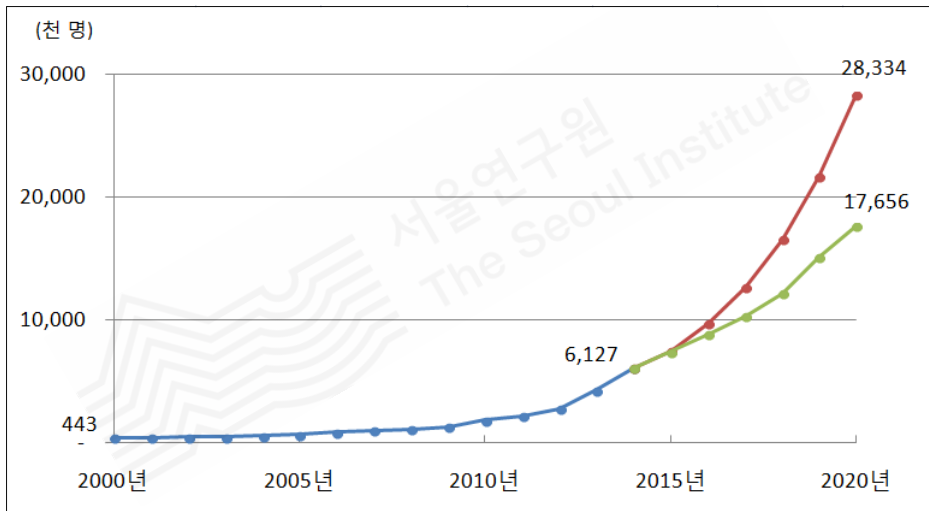
한편 회귀분석과 곡선적합기법을 사용하여 방한 외래객을 예측한 결과 2016년 방한 중국인은 8.8백만~9.7백만 명에 이르고, 2020년에는 17.7백만~28백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낙관적 전망은 곡선적합기법을 사용한 추정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인 34.4%보다는 증가세가 다소 누그러지긴 하나 그래도 연평균 31%씩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적 전망은 회귀분석을 사용한 추정으로 향후 방한 중국인이 연평균 19%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 3-18] 방한 중국인 전망

(단위 : 천 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가율
낙관적	9,739	12,719	16,611	21,695	28,334	30.6
보수적	8,847	10,348	12,183	15,117	17,656	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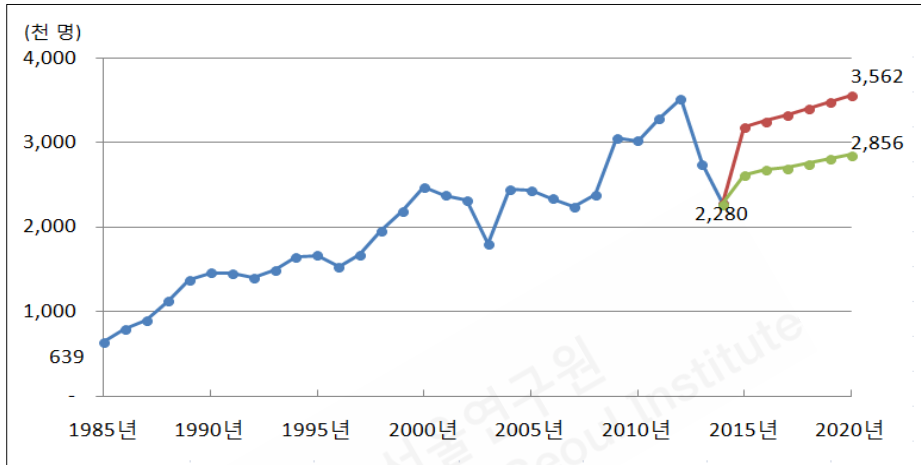
[그림 3-37] 방한 중국인 전망

2016년 방한 일본인은 2.7백만~3.3백만 명에 이르고, 2020년에는 2.9백만~3.6백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연평균 증가율은 1.6~2.3% 정도로 전망되며, 낙관적 전망은 곡선적합기법, 보수적 전망은 회귀분석의 전망치이다. 한편 방한 일본인 외래객은 2012년 3.5백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년 연속 폭락하여 2014년에는 2.3백만 명으로 하락하였는데, 다시 2012년 수준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낙관적 전망을 따르더라도 2020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3-19] 방한 일본인 전망

(단위 : 천 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가율
낙관적	3,257	3,333	3,409	3,485	3,562	2.3
보수적	2,684	2,701	2,757	2,817	2,856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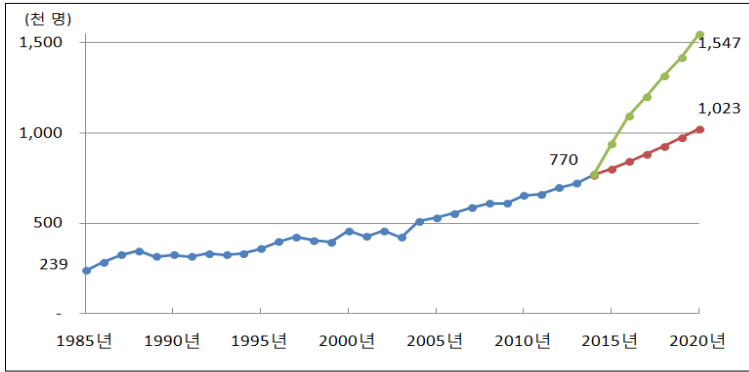
[그림 3-38] 방한 일본인 전망

2016년 방한 미국인은 84만~109만 명에 이르고 2020년에는 1백만~1.5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낙관적 전망은 회귀분석을 사용한 전망이고 보수적 전망은 곡선적합을 사용한 전망인데 이에 따른 연평균 증가율은 5.0~9.1%로 나타났다. 회귀 분석을 이용한 전망치가 이렇게 높은 까닭은 미국의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방한 미국인의 연평균 증가율이 4.2%였던 점을 감안하면, 어떤 전망치를 따르더라도 앞으로 방한 미국인의 증가세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3-20] 방한 미국인 전망

(단위 : 천 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가율
낙관적	1,093	1,201	1,316	1,418	1,547	9.1
보수적	843	884	928	975	1,024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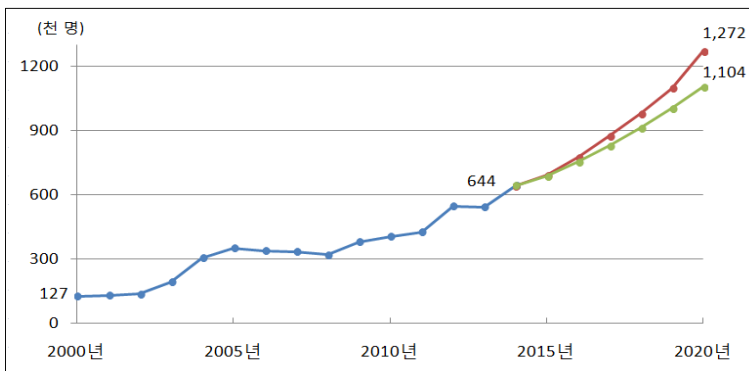
[그림 3-39] 방한 미국인 전망

2016년 방한 대만인은 76만~78만 명, 2020년에는 1.1백만~1.3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방한 대만인 역시 회귀분석을 사용한 전망치가 곡선적합기법을 사용한 전망치보다 더 높고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연평균 증가율은 10~13%로 전망되었다. 방한 대만인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0년에서 2009년까지 13%였으나 2010년에서 2014년까지 12.2%로 소폭 감소하였는데, 곡선적합기법을 사용할 경우 이 경향이 이어져 증가세가 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21] 방한 대만인 전망

(단위 : 천 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가율
낙관적	776	876	981	1,099	1,272	13.1
보수적	755	830	913	1,004	1,10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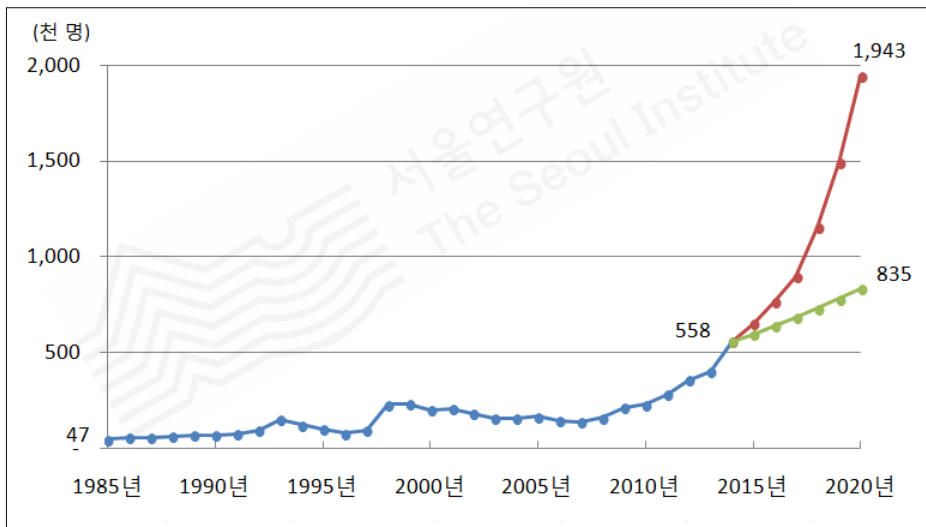
[그림 3-40] 방한 대만인 전망

2016년 방한 홍콩인은 64만~76만 명에 이르고 2020년에는 84만~194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 연평균 증가율은 6.9~26%로 나타났다. 이렇게 전망치의 폭이 큰 이유는 곡선 적합기법을 이용하였을 경우 2010년에서 2014년까지 방한 홍콩인이 연평균 25%씩 증가 하던 추세가 그대로 반영되었지만, 회귀분석을 이용하는 경우 1인당 실질 GDP의 증가세가 최근 방한 관광수요의 증가세보다 느리기 때문이다.

[표 3-22] 방한 홍콩인 전망

(단위 : 천 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가율
낙관적	764	893	1,151	1,492	1,943	26.3
보수적	639	683	730	781	835	6.9



[그림 3-41] 방한 홍콩인 전망

04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1_분석결과 요약
- 2_방한 관광시장 변화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의 시사점
- 3_정책적 제언

04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_분석결과 요약

1) 세계 관광환경 분석 결과

세계 입국자 수는 2013년 11억 명을 초과했는데 이는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4%씩 증가해 온 결과이다. 특히 2010년 이후에는 연평균 증가율이 4.7%로 늘어나 이전 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덕분에 관광시장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경제부문 중 하나가 되었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성장속도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3년 기준 글로벌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지역은 유럽,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이다. 전통적으로 해외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인 유럽의 경우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외래 관광객 수가 연평균 3.7%씩 증가하며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켜왔고,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경우 각각 연평균 7.6%와 6.8%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덕분에 2005년에는 유럽을 찾는 외래 관광객이 전체의 56%를 차지하였으나 2013년에는 51%로 감소하였고 대신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찾는 관광객의 비중이 각각 3%p, 4%p 증가하였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나라들의 최대 해외 아웃바운드 목적지는 지역 내 인근 국가이다. 이동 경비가 적게 들고 이동시간이 짧아 방문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 관광 시장이 팽창함에 따라 지역 내 관광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물리적 거리가 가깝지 않더라도 문화적으로 친숙한 나라를 방문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영미권 국가들 간의 방문이나 프랑스인들의 캐나다 방문이 그 예이다.

한편 정치, 외교적 마찰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았는데, 미국인들은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는 중국을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이 방문했다. 또 한국과 일본, 필리핀과 중국, 중국과 일본 등 영토분쟁을 겪는 나라들 사이에도 많은 관광객이 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한 대만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대만에서의 한류 붐 이후에도 대만의 반한 감정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으며,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의 태권도 판정 문제로 반한 감정이 더 거세지기도 했지만, 한국을 찾는 대만인의 수는 계속 증가하였다.

2) 해외 방한 관광시장 분석 결과

방한 외래객 수는 2014년 14.2백만 명에 이르렀는데 이는 198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8.2%씩 증가한 결과이며, 특히 2010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13%에 이르고 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을 찾는 외래객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동남아시아와 북미 순이었다. 특히 2010년 이후 동아시아 지역의 방한 외래객 수는 연평균 15%, 동남아시아 지역의 방한 외래객 수는 연평균 14%씩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방한 목적별로는 2014년 기준으로 관광 목적 외래객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타, 상용, 유학연수, 공용 목적 순이었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2014년 기준으로 북미의 경우 공용 목적이 상용이나 유학연수 목적 외래객보다 많았고 중남미의 경우 유학연수 목적이 상용 목적 외래객보다 많았다. 또 중동의 경우 상용 목적 외래객이 기타 목적 외래객보다 많았다.

모든 지역에서 방한한 관광 목적 외래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동안 다른 목적으로 방한한 외래객의 추이는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먼저 기타 목적 외래객의 경우 중동에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동아시아, 북미 지역에서는 상용 목적 외래객이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유학연수 목적 외래객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대부분의 해외 주요 방한 시장은 아시아 국가이다.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을 가장 많이 방문한 외래객의 국적은 중국이며, 다음으로는 일본, 미국, 대만, 홍콩,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러시아, 인도네시아 순이었다. 한국을 많이 방문하는 외래객의 국적 10개 중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8개 국가가 모두 아시아에 위치해 있으며 특히 동아시아 국가가 한국을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시장을 방한 목적별로 살펴보면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적의 관광 목적 방한 외래객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일본인 관광 목적 외래객의 경우 2013년부터 2년 연속으로 크게 감소하여 2014년에는 2005년 이하 수준인 2.2백만 명이 한국을 찾았다. 한편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승무원이 포함된 기타 목적 방한 외래객 역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러시아인 기타 목적 외래객만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모든 국가에서 한국을 찾는 유학연수 목적 외래객이 증가추세를 보인 반면, 상용 목적 외래객은 국가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중국인과 미국인 상용 목적 외래객은 '08금융위기의 여파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일본인 상용 목적 외래객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감소하다가 이후 오히려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동남아시아 개도국에서 상용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객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거나 증감을 반복하며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 주요 방한 관광시장별 변화에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

해외여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비용과 소득을 들 수 있다. 환율은 여행비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데, 주요 방한 시장 10개국의 화폐와 원화의 상대 환율을 방한 외래객 추이와 비교해본 결과 방한 일본인의 수가 환율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1인당 실질 GDP를 이용했는데, 추이 비교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방한 외래객과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추이 비교만으로는 분석에 한계가 존재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국, 일본, 미국, 대만, 홍콩 등 방한 외래객이 가장 많은 국가 다섯 개를 선정하여 방한 외래객 수를 종속변수로 두고 원화 대비 환율, 1인당 실질 GDP, SARS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회귀분석은 로그 변환한 변수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5개 국적 외래객 모두 자국의 1인당 실질 GDP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본인과 미국인의 경우 상대 환율과 SARS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향후 방한 관광시장 예측 전망

회귀분석과 곡선적합법을 이용하여 2020년까지 방한 외래객 수를 전망하였다. 먼저 전체 방한 외래객은 2016년 16.4백만~17백만 명이 될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 연평균 7.2~9.0%씩 증가하여 2018년 20백만 명을 돌파하고, 2020년에는 22백만~24백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 방문 외래객은 2012~2014년까지 3개년 방한 외래객의 서울 방문을 평균치인 81.3%를 적용할 때 2016년 13.3백만~3.8백만 명에서 2020년 17.6백만~19.4백만 명까지 증가하여 2020년경 20백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예측은 다소 보수적인 관점에서 추산하였기에 최근 같이 두자릿수 증가율이 계속 된다면 추정치 년도가 1년 정도 앞당겨질 수 있다.

5개 주요 국적 외래객은 2016년 12.3백만 명에서 연평균 12.6%씩 증가하여 2020년 19.8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방한 중국인은 2016년 8.8백만~9.7백만 명에서 2020년 17.7백만~28백만 명으로 증가하고 연평균 증가율은 19~31%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방한 일본인은 2016년에 2.7백만~3.3백만 명, 2020년에 2.9백만~3.6백만 명이 되고 연평균 증가율이 1.6~2.3%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한 미국인은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연평균 5.0~9.1%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2016년에 84백만~109백만 명으로 예상되는 미국인 외래객은 2020년 1백만~1.5백만 명에 이를 것이다. 방한 대만인은 2016년부터 연평균 10~13%씩 증가하여 2020년 1.1백만~1.3백만 명에 이르고, 같은 기간 동안 방한 홍콩인은 매년 평균 6.9~26%씩 증가하여 2020년에는 84만~194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_방한 관광시장 변화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의 시사점

1) 역시 아시아 시장을 주 타깃으로 공략

목적 국가가 가까울수록 이동시간 및 경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많은 해외여행객들이 인근 국가를 방문하고 있으며, 같은 이유로 방한 외래객의 국적 역시 아시아 국가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리적 편의성과 더불어 아시아 개도국은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라는 장점이 있다. 비록 최근 들어 경제성장률이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발전을 계속하고 있는 중국은 물론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은 '08년 금융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경제성장을 계속해 왔다. 덕분에 이들 국가의 중산층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해외여행 수요 역시 더불어 증가하고 있다.

늘어나는 해외여행 수요에 맞춰 중국 및 동남아 국가에서 한국을 찾는 외래객의 수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방한 중국인, 대만인, 홍콩인, 태국인, 필리핀인, 말레이시아인, 인도네시아인의 수는 연평균 증가율 두자릿수 이상을 기록하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늘어난 해외여행 수요가 언제나 방한

수요로 이어진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2010년까지 방일 중국인의 수가 방한 중국인의 수보다 크다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일 중국인의 수가 감소한 것처럼 다양한 요인에 의해 선호하는 여행지가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증가할 아시아 국가의 해외여행객을 한국으로 향하게 할 대책이 필요하다.

2) 다양한 방문 목적별 외래객 유치 방안 필요

외래객은 관광 외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상용, 유학연수, 공용, 기타 등 관광 이외의 목적으로 입국한 외래객이라 하더라도 이들이 관광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앞으로 다른 목적으로 입국하여 관광을 함께 즐기려는 외래객이 점차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미 비즈니스(business)와 레저(leisure)의 합성어인 블레저(bleisure)라는 단어까지 등장했을 정도이다. 또 MICE(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vents) 관광이 대두됨에 따라 태국,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내놓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의 유학 및 어학연수 목적 외래 방문객 마케팅에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그 사례이다. 따라서 비단 관광뿐 아니라 다양한 목적의 외래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3) 국가별 맞춤형 전략 필요

과거 한국의 인바운드 시장은 일본에 크게 의존하였고, 현재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따라서 인바운드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에서 고루 외래객을 유치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른 국가별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화권 국가라 하더라도 중국은 간체를, 대만은 번체를 사용할 뿐 아니라 오래 전부터 일본 미디어에 노출되었던 대만인들은 중국인과 상당히 다른 문화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두 국가를 대상으로 동일한 유치 전략을 취할 수 없다. 또 같은 ASEAN 회원국이라도 정치, 경제, 문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국에 대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한편 특정 국가의 수요 특성 변화에 따라 외래객 유치 전략을 수정해야 할 경우도 있는데 일본의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James Mak et al.(2004)은 2025년 일본인 해외여행객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6%에 달할 것이며 20대 관광객의 경우 2000년보다 적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행한 일본 관광소비자 마케팅조사에 따르면 일본인은 해외여행 시 예산을 핵심 요인으로 고려하나 20대까지는 절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선호하는 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편의성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늘어 나게 될 일본의 시니어층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여행지라는 한국의 이미지를 고급화할 필요가 있다.

3_정책적 제언

결론적으로 이번 연구결과는 현재 중국 방한 관광시장의 급성장으로 주로 중국시장에 정책적 노력이 집중되고 있으나 여타 동북아 시장과 동남아 시장의 성장도 주목할 정도 수준이므로 관광마케팅 다각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해외 방한 관광시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최대 방한 관광시장으로 급부상한 중국시장은 1인당 국민소득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당분간 방한 관광수요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

근래 시장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일본 방한 관광시장은 최근 환율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일본의 자국 환율 정책이 관건이 될 수 있지만 감소되고 있는 일본인들의 중국과 한국관광 수요 추세와는 달리 여타 국가는 엔저 추세에도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교 단절로 한동안 방문객이 거의 없었던 대만 시장의 경우 2000년에 들어서 수요가 다시 발생하여 근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의 방한 관광수요가 일본과 홍콩 방문수요에 비해 현저히 낮아 대만에 대한 관광마케팅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만일 이러한 노력의 성과가 나타날 경우 향후 단기적으로 최소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홍콩 방한 관광시장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이후 급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어 마케팅 노력 여하에 따라 단기 수요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문화체육관광부, 2006~2014,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

한국관광공사, 2010, 「일본 관광소비자 마케팅조사」.

_____, 2014, 「숫자로 보는 한국 관광」.

COTRI China Outbound, 2011, Green Book of China's Tourism 2011.

Mak, James, Carlile, Lonny, Dai, Sally, 2005, "Impact of Population Aging on Japanese International Travel to 2025", Journal of Travel Research, pp.156~158.

MasterCard, 2014, The future of outbound travel in Asia Pacific.

Nielsen, 2014, ASEAN 2015.

OECD, 2014, Tourism Trends and Policies 2014.

UNWTO(World Tourism Organization), 2014, Data on Outbound Tourism(calculated on basis of arrivals in destination countries) dataset [Electronic].

<http://www.economist.com/news/international/21601028-how-growing-chinese-middle-class-changing-global-tourism-industry-coming>(The Economist 홈페이지)

<http://www.globalwindow.org/gw/nationalinfo/GWNINI030M.html>(코트라(KOTRA) 홈페이지)

Abstract

Characteristics and Prospects of South Korea's Inbound Tourism Markets

Kiyong Keum · Seulgi So

In 2014, The number of South Korea inbound tourists recorded over 14 millions with an increase of 17 percent compared with the previous year. This annual growth rate was the highest record after the 1988 Seoul Summer Olympic Games. While South Korea recently enjoys a boom in its tourism economy, some Korea inbound markets are mixed up with gloomy or lagging markets. In general, East Asia countries such as China, Japan, and Taiwan rank top among all the Korea inbound tourism markets. South East Asian tourists such as Singapore, Malaysia, and Thailand also show strong growth rates.

Japanese visitors into Korea were once the largest inbound market in South Korea but fell behind Chinese visitors after 2013. According to this study, Japanese tourists into South Korea since 2013 were affected by both a political fued over territorial and historical controvers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e exchange rate because of the depreciation policy of the Japanese yen. The Japanese government has had recent flare-ups of long-standing disagreements with South Korea and China over the responsibility for Japanese atrocities during the World War II as well as disputes over territory that Japan appropriated in that colonial era. These lead a decrease in numbers of Japanese visitors into those two countries. On the other hand, recently, the movement patterns between the flow of Japanese tourists to South Korea and the yen depreciation rate are almost the same. As a result, the rapid decrease of Japanese tourists seriously

affects the tourism industry of Seoul, particularly luxury hotels whose major customers have been largely Japanese. But, in actuality, Japan is the only gloomy market among the South Korea inbound tourism markets while most of other its inbound markets show increasing patterns.

Taiwanese tourists into South Korea have a high average annual increase of approximately 18 percent in the 2000s. This was a surprising situation because there had been few Taiwanese tourists after 1992 when the South Korea government announced the severance of official diplomatic relations with Taiwan in order to establish a new diplomatic relation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owever, the situation was reversed by a "Korean wave", which was brought about by Korean pop music since 1999. This shows that international political conflicts can be eased through cultural and personal interchanges. This is a value of tourism. Nevertheless, although the inbound Taiwanese tourists stand at third in the Korea inbound tourism markets ranking, its market size is 3.5 times smaller than the second market, Japanese tourists. This implies that Taiwan still has a big potential for the Korean inbound tourism market.

For the top 5 countries of major South Korea inbound tourism markets, the analysis of what factors the South Korea inbound tourists are influenced by shows that the income(real GDP) variable affects all markets but the exchange rate is only significant in Japanese and USA markets. International oil prices were eliminated for all markets as insignificant. In addition, the analysis for future prospects of the South Korean tourism market was carried out with both regression and curve fitting methods. Hence, the estimates for South Korea inbound tourists range from 16.3 to 17 million in 2016 and from 21.6 to 24 million in 2020. From these estimates, this study predicts that Seoul inbound tourists will reach 13.3 to 13.8 million in 2016 and from 17.5 to 19.4 million in 2020.

Consequently, the South Korea inbound tourism market will continue to grow with as China, the biggest market, and other East and Southeast tourism markets keep on growing. Howeve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growth will not continue if those tourists will go to

other destinations rather than South Korea. That aforementioned situation could easily occur if South Korea fails to meet the needs and wants of inbound tourists and the changing market environment. Accordingly, policies should consider the changes of each market including the tourist' purposes, national situations, inbound and outbound flows, and so on.



Contents

01 Introduction

- 1_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 2_Methodology

02 Analysis of Global Tourism Market

- 1_Global Tourism Trends
- 2_Changes and Characteristics in Regional Tourism Market Trend
- 3_Changes of Tourism Destinations in Major Tourism Markets

03 Analysis of South Korea Inbound Tourism Markets

- 1_South Korea Inbound Tourism Market Trends
- 2_Characteristics in the Changes of Tourism Demands in Major South Korean Inbound Tourism Markets
- 3_Causes of Changes in South Korea Inbound Tourism Markets
- 4_Prospects for South Korean Inbound Tourism Markets

04 Conclusion and Suggestions

- 1_Summary
- 2_Conclusions and Implications
- 3_Suggestions

References

서울연 2015-PR-16

해외 주요
방한 관광시장별
변화 특성과 전망

발행인 _ 김수현

발행일 _ 2015년 8월 31일

발행처 _ 서울연구원

ISBN 979-11-5700-101-9 93320 8,000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